

박정희체제와 부마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 일시
- 장소
- 주최

- 주관

식 순

차 례

○

○

○

○

○

부마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차례



부마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1. 머리말

2005년 8월 해방(광복) 60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긍지를 가질만한 역사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2009년 오늘의 시점에서 민주주의도 경제도 어려움이 있지만, 오랜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가졌다는 점은 한국인이 자랑할만 하다. 1950년대에 이승만정권의 압제와 부정선거, 비리, 부패가 끊이지 않았는데, 만약에 4월혁명이 없었더라면 한국인은 정의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 현대사 전체에서 가장 억압이 심했고, 동시대 제3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권력이었던 박정희 유신체제에 맞서 싸운 반유신운동-부마항쟁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떳떳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점은 광주항쟁, 1980년대의 역동적인 민주화운동, 6월항쟁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한국인이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와 인권을 사랑한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불굴의 민주화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인은 암울한 역사에서 벗어나 깨어 있는, 그래서 살아 있는 역사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찬연히 빛나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4월혁명, 부마항쟁, 광주항쟁, 6월항쟁은 우뚝 솟은 봉우리 같은 존재다. 부마항쟁의 역사적 위치에 대해서 『부산민주운동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결히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의 연속성에 관해서 언급해둘 필요가 있겠다. 부마항쟁이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광주항쟁은 “유신잔당 타도하자” “유신잔당 전두환 일당을 박살내자”가 주된 구호로 등장했다. 양자 모두 유신체제와 그 체제를 답습하려는 세력에 대한 항쟁이었다. 부마항쟁이 10·26정변을 불러일으켜 유신체제 붕괴라는 역사적 위업을 이루어 냈다면, 박정희가 키운 하나회 중심의 전두환·신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대항해 광주 학생·시민이 꺾기한 것이 광주항쟁이었다. 이 광주항쟁과 부마항쟁이 기본동력이 되어 1980년대 내내 거센 민주화·자주화운동, 민중운동이 일어나 6월항쟁으로 매듭을 짓게 되었다.

이 기초발제에서는 먼저 어쩌서 다른 지역이 아닌 부산과 마산에서 거대한 항쟁으로 폭발했는지,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큰 규모로 일어났는지 살펴보겠다. 학생들은 1회성 시위로 끝내지 않았다. 교내에서 투쟁하다가 시내 곳곳으로 옮겨가면서, 오전에 시작해 오후 늦게까지 투쟁을 계속했다. 또 부마항쟁은 민중항쟁이었던바, 시민들이 학생들의 투쟁을 비호, 성원했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싸웠다. 다음으로 부마항쟁이 한국민주화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겠다. 그것과 긴밀히 연계되지만, 부마항쟁이 10·26정변을 어떠한 방식으로 유발하였고, 그로 인한 유신체제의 붕괴는 어떠한 의의, 의의를 논할 수 있겠는가 하겠다.

이 글에서는 부마항쟁이 발발하는데, 그리고 그것의 계승과 관해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둘 것이다. 유신체제 붕괴가 전두환 등 신군부의 권에 의해 역사적 의의가 희박하다는 일부 연구자들과 의견을 달리해서, 유신말기 박정희의 정신상 가 리성에서 일한 비정상적인 점이 있었다는 점을 중시하고, 박정희의 인재를 규거사의 적 요인과 유신체제 붕괴가 지고 있는 중대한 역사적 의의, 의의를 논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비중을 둘 것이다. 후자는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 그것의

체적 결산으로서의 6월항쟁과도 연관이 된다.

2. 부마항쟁이 대규모 항쟁으로 폭발한 요인

1)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항쟁

부마항쟁은 그 시위에 여한 학생이 시민이 아무도 그 게 큰 시위가 어질다. 시위를 아 할 경 도 전 예상하지 못했다. 그 게 큰 항쟁의 결을 예상하지 못했을 아 라, 음에는 아예 교문을 벗어 가두시위가 있으리라는 생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10월 16일 부산대 시위를 주동한 정광민이나 다른 의 서 학생들은 교 계 이 에 없었다.²⁾ 교내 시위가 그 게 폭발적으로 일어 것이라고 생 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더 정 할 것이다.

필자는 유신체제에 대한 의 적 반대시위인 19 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 시위를 경이의 로 바라본 바 있다. 시간에 문리대 재학생의 대부 이 세해 시위를 였고, 여학생도 적지 않게 가 했다. 196 년 이래 수 은 데모를 보았고, 그 이전의 문리대 시위에 대해서 선 들로부 얘기를 들었지만, 1960년 4·19시위 이후 음 있는, 라운 사 이었다. 그 이후 수 은 대학에서 그해 12월 까지 동 학 과 시 거부 투쟁이 전 되어 서 이 시 던 박정희가 당 해서 학생 지화라는 항복을 하게 된 것도 예상하지 못한 사 였다.

1960년 4월 19일에 대학생 데모 주동자들도 그 게 큰 시위가 어질 다. 광주항쟁도 비 했다. 국민운동본부 은 198 년 6·10국민대회가 그 게 게 어지 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또 6월 10일 하루로 일 것이라고 생 했고, 그래서 그 이후 게 은 나중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다 아다시 6·10대회가 6월항쟁으로 발전하

는데 결정적 도화선이 된 것은 그 늦게부 시작된 5일간의 명동성당 성투쟁이었다. 그 데 6월 11일 오후 성을 계속해 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국민운동본부는 당 했다. 이 투쟁 때문에 상 이어 게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게 에 없었던 의 사 였고, 자신들의 게 에 차질을 가 까 서였다. 서울에서 학생들의 6월항쟁 여를 주도하게 되는 서울지역대학생 의회(서대) 리더들도 명동성당 성 투쟁이 리 끝나기를 바 다. 일반 학생·시민들의 자발적인 명동성당 성투쟁이 계속되지 않았더라면 6월항쟁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³⁾ 중요 시위나 투쟁은 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예 적 현상이 아 라 오히려 일반적이다.

그와 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위, 항쟁이 일어났을까. 서울대 문리대의 10·2시위의 경우 대중 치사 이 일어 것이 하나의 계기였다. 그 치사를 보고, 신학자 본 히 가 히 러 나 정권에 대해서 생 한 바와 비 하게, 이제 박정희 유신정권이 무 일을 어 게 저지를지 수 없는 유해하고 위 한 권력이라는 인식이 것이다. 그 지만 사 은 유신체제에 대한 강한 비 의식이 주동학생 만 아 라 일반학생들도 광 위하게 유하고 있었던 것이 기본적 요인이었다. 그것만이 아 었다. 문리대생들은 4·19 이래 학생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19 2년 10월 유신쿠데타가 일어 이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바 에 려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19 9년 10월 16일 부산대학생들이 주동자들의 예상을 뛰어 는 투쟁을 인 이유와 이 유사하다.

주동자들이 일반학생들이 시민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시위가 발하고, 그것도 히 전 되었다는 것은 그만한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 지만 그것은 비조적으로 이루어질 가 성이 있으 , 투쟁을 투쟁의 목표와 연결시켜 어나가기 어 다는 점도 있다. 운동 또는 경 의 성이 있을 수 있으 , 운동이 계기적으로 발전하거나 지속성을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하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 박정희정권에서 반박정희 동을 찾아내고 압,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심적인 역할을 있던 중 정보부장 재규는 부마항쟁의 성과 폭발 이유를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인 하자.

중 정보부장은 시위대와 시민이 전혀 의기투 하여 있었고, 그것은 체제에 대한 저항, 정 에 대한 불신과 경제문제가 복 되어 일어 현상으로 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마사 는 다른 지역으로 산 가 성이 다고 했다.

이 발제에서는 부마항쟁이 학생과 시민이 일체가 되어 일어 것을 정치적 계기, 경제적 경, 역사적 으로 나 어 살 고자 한다. 광주항쟁도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인이 작 했지만, 구체적인 데 들어가면 차이가 있음을 수 있다.

2) 정치적 계기

(1) 김영삼 의원제명

19 9년 10월의 시점에서 다른 지역이 아 고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

것은 그해 5월 이후 정국의 량, 국으로 치는 정치정세가 적인 때가 되었다. 5월 30일 대중의 지원을 얻은 신민당 재가 되자 유신체제를 강력히 비하고 나다. 6월 11일 국대의 방한이 유신정권을 도와 다면 우리 국민은 할 수에 없다는 재의 발언은 박정희의 아테를 정면으로 다. 8월 9일 무역 여성 동자들이 신민당사에 들어와 성을 이다가 경의 폭한 압박전으로 1명이 사하고 신민당 당자를 해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과 박정희의 대을 더 게 했다. 9월에 들어와 재 무정지가 신이 아들이고 정운이 무대이 된 것도 상를 일한 위로 국민을 자극했지만, 10월 4일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화당 독으로 의 의원 제명 결의를 전 리한 것은 정국을 국으로 이 는 것이었고, 박정희가 정신적으로 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인 예였다. 살 한 위기에서 신민당 의원 66명이 의원 사서를 냈고 일당 의원 3명이 동조한 것은 한 국민의 마음을 엮기 때문이었다.

신문사 재자인 부산지방 대학생 요사 발생보고서에는 “신민당 재 제명에 른 일의 정국사에 불만을 표시하는 요를 엮다”고 여 있고,⁴⁾ 부산 시경의 부마사 의 에 면 정치적 경으로 화당 장기 권에 대한 전체 국민의 과 신민당 재에 대한 제명과 동당() 의원들의 의원 사 결의가 제시되어 있다.⁵⁾

부산과 마산은 의 정치적 기반이어서 199년 여 과 가을의 정치 사 에 다른 지역사 보다 더 예민한 반 을 보일 수 있었고, 의 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더 더 그러할 수 있었다. 당시 부산지방 간사였던 수는 18일에 “ 제명 철회”의 구호가 이 나 다고 언하였지만,⁶⁾ 부산과 마산에서 시위중에

과 관 된 구호가 이 나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⁷⁾

그 지만 부산항쟁 10시 에 광복동에서 “ ” “ ”하고 연호가 나오자 다른 한 에서 “여기서 이가 나와 우리가 이 위해 데모했 나 ”라는 잔 인 반 이 나 데서도⁸⁾ 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위군중속에는 지지자가 왔지만, 을 지지하기 때문보다 제명에 해서 항쟁 에 여한 시민도 있었고, 제명을 계기로 해서 박정희 유신정권에 대해 인 불만이나 가 폭발한 시민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어 경우 의 의원 박 은 부산과 마산 시민·학생들을 쫓기시키는 데 기폭제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과 관 해서 또 한 가지 의할 것은 학생들의 경우 시민들보다 제명사 을 심 하게 아들었다는 점이다. 하기는 “ ”을 연호하는 구호가 나 것은 10월 16일 오후 6시 이후 시 시위가 음이라고 기술했다.⁹⁾ 부산대 교정에서의 시위에서는 제명과 관 된 구호가 나오지 않았고, 나 다 하더라도 그다지 주목을 을만 하지 않았다. 이것은 학생들이 제명에 무관심했다는 것은 아 다. 10월 15일 부산대에 려 「민주선언문」에는 의회에서 비한 수 을 다고 하여 간 적으로 그 사 을 언급하고 있다.¹⁰⁾

은 학생들이 이 시기 의식화가 전되면서 권력투쟁과 관 된 정치적 사 보다 사 등 동자·민 등의 기 민중문제에 큰 관심을 고 있었다. 역시 15일 부산대에 려 「민주투쟁선언문」에는 대다수 저 동자의 문제를 상당한 비중으 로 언명하고 있고,¹¹⁾ 10월 16일 부산대에 려 「선언문」에서는 폐정 혁 으로 “ 사 에서와 같은 반 리적 기업주 을 명시해서 요구했다.¹²⁾

『 』
『 』
『 』

그 당시 에 대해서 연치 않은 인상을 가 시민도 있었다. 19 5년 4월 인 도차이나사 이후 보수세력의 위기의식이 아지면서 5월 13일에 긴급조치 9호가 발 동되었다. 그 후인 5월 21일 와대에서 이 박정희와 독회 을 가 이후 유신체제에 대한 비 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선의원 의원 사 사 에 대해서도 은 어리가 되어 비 을 았다. 이어 이철승한 당 당수 까지 겨주게 되어 에 대해서 비 적인 감정을 가 사 이 있었다.

부마항쟁에서 이 차지하는 위상과 광주항쟁에서 대중이 차지하는 위상은 달 다. 그것은 두 항쟁의 성 에도 을 다. 광주주민들은 19 1년 대 선거 에서 대중이 패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박정희 유신정권이 들어서면서 대 중에 대한 생명의 위 과 지역차 이 한 심화되었고, 그 에 라서 대중에 대한 박해와 지역차 이 동일시 수 있었다. 10·26정변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현되면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는데, 유신잔당이 12·12쿠데타 에 이어 5·1 쿠데타를 일으켜 대중을 내 등 무 없는 명으로 구속해 생명 을 위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을 산산히 무 과 동시에 지역차 이 또다시 심 화 수 에 없는 상 하에서 광주민중항쟁은 폭발한 것이다.

(2) 유신체제 반대

부마항쟁은 제명사 이 계기가 되었지만, 주요한 투쟁 목표는 유신체제타도였 다. 10월 15일 부산대 교정에 려 「민주선언문」에서는 유신 을 악의 원이라 고 규정했고, 같은 려 「민주투쟁선언문」에서는 “박정희와 유신과 긴급조치 등 불의의 조와 악의 표본”이라고 했으 , 부산대시위가 시작된 10월 16일의 「선언문」 에서는 유신체제를 ”한 인의 무모한 정치 을 시키는 도구”라 하여 학생들이 유 신체제 타도의 선봉에 나서자고 구하였다.¹³⁾ 『부산민주운동사』에는 그 점이 선명히 서술되어 있다. 시위에 나선 은 시민·학생들의 압도적인 구호가 “유신철폐” “독재타 도”였다고 한다.(388) 10월 16일 점차 어 이 어가면서 학생시위대가 민중시위대

로, 시위 투쟁이 항쟁 투쟁으로 변모해 지만,(416) 밀려 다 밀려가는 거대한 조수와 같은 5만여 인 의 장 한 은 학생들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치면서 어 을 불살 다는 것이다.(41)

부산에서 민심이 유신체제에 등을 리고 있다는 것은 19 8년 12월 12일 치른 선에서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 10명의 의원을 선 하는데, 화당은 4명 에 당선 이 되었다. 5명은 신민당 속이었고, 한 명은 무 속의 에 호였는데, 그는 당과 보를 같이하고 있었다. 만 아 라, 당선된 화당 4명도 1위가 한 명도 없었고, 다 차점자에 지나지 않았다. 한 신문은 사 에서 여당은 “전반적인 표 문제 에 도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러 상대적 세를 이 성 해 할 것”이라고 했다.¹⁴⁾

부산만이 아 었다. 12·12선거에서 폭압의 유신체제로, 박정희나 유신체제에 대한 비 이 제되고 있었는데도 신민당이 32.82 를 표해 화당의 31. 0 보다 1.1 나 더 은 지지를 았다. 신민당보다 선명한 기치를 내 었던 일당이 이상의 표를 한 것까지 감 하면,¹⁵⁾ 화당의 패 는 더 명했다. 동아일보가 12월 13일자에서 오 만의 이라고 조심 게 표현했지만, 박정희에게는 이었고, 당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게 했다.

12·12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장기 권으로 만성적 독주를 하는 정권 에 대해 비 적인 장,¹⁶⁾ 유신체제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했지만, 지방에서도 명했다. 장기 권 - 이것은 긴급조치 9호하에서 에둘러 표현한 것이고, 장기 권과 결된 유신체제를 가리 다고 보아 할 것이다 - 에 대

『

』

「

」

한 비에도 부가가치세 강, (이) 해, 3대 들사, 재 비호 인상의 제 들이 두루 작 했다.¹⁷⁾

19 9년 6월 이후 유신체제에 대한 반감은 한 더 졌다. 정치적 동은 어 로 어 게 달 지 수 없는, 폭주하는 자동차 보였다. 거기에다가 경기는 에서 서술하겠지만, 12·12선거가 있었던 19 8년보다 현저히 하강 선을 그리고 있었 고, 가는 뛰고 있었다. 민심의 이반이 급 히 일어 수 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부산과 마산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규모의 항쟁 으로 먼저 나타났다. 이 점을 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는 주로 대학생들과 지식인 에 있었고, 민 을 한 일반대중은 시적으로 아 들었거나 지지한 것으로 주장했다. 유신체제에 대한 지지나 반대는 시기에 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 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만, 적어도 19 8년 12·12선거에서는 까지도 어하는 기 이 적지 않았고, 그 다 음해에는 심했다. 그 점은 부마항쟁의 전 과정을 때 아주 이 나타 다.

3) 경제적 동인(動因)

박정희·유신체제가 붕괴한 중요 이유의 하나가 경제 문제였다는 것은 아이러 하다. 박정희의 치적하면 대부 이 경제발전을 떠 리기 마 이다. 그 지만 유신 붕 괴 전해인 19 8년 12·12 선에서 유신체제인데도 불구하고 화당이 패 한 데에는 19 년부 시 된 부가가치세 강, 해, 재 · 권 중심의 경제가 큰 역할 을 했다는 것은 이 명한 대로이다. 재규가 부마항쟁이 민 또는 민중봉기의 로 일어나고, 다른 5대 도시에도 산 것으로 악한 것은 유신체제 정치 동 에 대한 불만과 가고 조세저항 등 경제문제가 복 적으로 작 했다는 점 때문이었 다. 부산계 사 부가 중심이 된 동수사반이 시한 여 조사에 면 경제 체에

의한 서민 상인 의 불만을 부산항쟁의 재 이유로 왔고, 의 의원 제명과 그에 항의하여 제 한 당의원들의 의원 사 서를 선 수리하겠다고 한 정치적 이 유가 두 째로 제시되어 있다.¹⁸⁾ 경제적 불만의 심 성을 을 수 있다.

유신말기에는 경제적 폐와 사회적 모 이 정되고 있었다. 10월 16일 부산대에 려 「선언문」은 히 경제문제와 사회 부조리를 이 게 증적으로 성 하고 있다.

등에 의한 재 의 비대화와 동자들의 무 없이 은 저 이 극명하 게 대 을 만들고 있음을 수 있다. 12·12 선에서 여당이 패 하자 와대에서는 그 이유를 나 대로 했는데, 부가가치세, 가고, 해, 들 등도 요인이었지만, “ 화당 위에 재 있다”는 당 세에 속수무 이었다고 어 았다.¹⁹⁾

재 에의 경제력 중은 중화학 업이 전되는 것이 비례하여 해마다 다. 그 리하여 19 9년의 경우 전체 제조업 하 에서 상위 5대 재 이 차지하는 비중이 16.3 , 10대 재 의 경우 22. , 20대 재 이 차지하는 비중이 30.3 였다.²⁰⁾ 재 의 경제적 장악만이 문제가 아 였다. 재 이나 권 은 들이나 폐 산업이 시 사하 19 0년대에는 사회적 비리가 이 정되었고, 정경유 으로 부정부패도 심했 다. 12·12선거의 결과와 관 해 한 언 인은 계 간의 위화감이 심해졌음을 지적했 다. 요 음 상 은 도 로 사마시고 심지어는 인도 그들 리만 한다는 것이었

『 』

『 』

다.²¹⁾

가도 문제였다. 19 0년대 내내 거의 해마다 가가 두 자리수여서 서민들이 주 살을 때가 없었지만, 19 9년에는 제2차 오일 로 당장 월 10일에 유제 이 59 , 전력요 이 35 나 라 다. 19 년부 부가가치세가 도 되어 중 상 인들 을 울게 했는데, 조세부 이 19 0년대 하반기에 계속 아 19 9년에는 1 .2 가 되었다.²²⁾ 주 보급 도 0년대 하반기에 60 만으로 지 않았고, 저 동자 들은 방살이도 들었다. 그 데 19 0년대 중반부 불어 투기가 19 년 정수 도 이전 로 불 었고, 19 8, 9년에는 광 이 되어 부 차를 한 더 감나게 했 다. 지가 이 19 8년에 무려 49 나 급등해²³⁾ 박정권은 급기 그해 8월 8일 이른바 8·8투기억제조치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산항쟁과 관 해 철은 유신독재 부 차로 유신말기에는 불을 당기기만 하면 폭발하게 되어 있었고, 폐, 기 민중의 사회적 불만이 여 있었다고 언했다.²⁴⁾ 그의 은 부마항쟁 여자 대부 이 감하고 있었던 문제였다.

유신쿠데타 다음해부 정력적으로 되어 산업의 구조를 바 은 중화학 업이 유신체제의 발목을 았다는 것도 아이러 하다. 재 의 도는 정경유 과 관계되 기도 했지만, 정부 보 으로 마나 큰 규모의 중화학 비를 위한 차관을 도 하 에 의해 가 났다. 대재 들은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어들여 중화학산업의 자기자본비 이 22 에 었는데,²⁵⁾ 과도한 중복투자로 문제가 심 해지자 19 9년 5월 투자규모의 약 30 나 투자보 또는 중지시 대규모 투자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 9,80년에 원 의 중화학 업가동 은 현저히 어 50 이었고, 현대양 의 대규모 장은 가동이 세계 대의 고라는 말까지 게 되었다.²⁶⁾

『 』
『 』
『 』
『 』

상가상으로 중화학 업계가 불에 이자 경기는 두박질치게 되었다. 가
 19 9년 말로 200억 달러를 어서 국 이 제기되었다. 19 6년 14.1 , 19 년
 12. 의 경제성장 이 19 8년에 9. 로 아 것도 상대적으로 불경기를 게 했
 는데, 19 9년에는 6.5 로 게 아지고, 그 다음해에는 마이 5.2 성장 을 보
 여 한국전쟁 이후 악의 사 를 맞았다.

의원제명이 부마항쟁을 발시키는데, 부산과 마산의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나 던 것도 부마항쟁에 민중을 적극 가 했다. 부산 주민의 생산 가 은
 19 6, 8년에 30.5 , 16. 로 전국 국민 생산 의 가 보다 월등 았는데,
 19 9년에는 5.6 로 국민 생산성장 보다 아²⁷⁾ 불 의 체감이 다. 지역
 차도 부산이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19 9년에 서울을 100.0으로 할 경우 4.3으로 전
 의 6 .6을 제 하면 하위였다.²⁸⁾ 같은 대도시 주민으로 서울에 대해 반발을 가질
 수 있는 요 였다. 부도 도 아주 아 19 9년에 전국의 2.4 , 서울의 3.0 였다. 부
 산은 수 에 의존하는 경제인데도 19 9년 가 이 10.2 로 전국 가 18.4 보다
 게 았다. 마산의 수 업 지는 저 을 대로 하고 있었다.²⁹⁾ 거기에다가
 19 9년 9월 현재 24 업체가 폐업에 들어 고, 5-6 명이 일자리를 았다.³⁰⁾
 대 규모의 중화학 업 지의 하나인 원 업지대에도 불 이 심했다. 마산항쟁과 관
 해 10월 18일 경 대시위를 주동한 정인권 등 여러 언자들이 동자의 저 등
 마· 지역의 암울한 경제 상 을 강조하였다.³¹⁾

경제적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요인이지만, 부산과 마산의 급 한 인구 가도 부마

『

』

『

』

『

』

『

』

항쟁의 경이었다.³²⁾ 유 인구는 동자 이 대 어려운 생 을 하는 사 이 았다.

4) 부마항쟁의 역사적 맥락

10월 18일 오후 3시 30 경³³⁾조 지나 교 이 발표된 이후 500여명의 학생들이 국제 발학과 2학년인 정인권이 선동하면서 경 대 시위는 시작되었다.³⁴⁾ 시위가 전 되었으나 교문을 고나가기가 어 자 학생들은 이 전 부산대학생들과 비 하게 시내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학생들은 3·15의거 에 모이기로 약속했다. 약속된 오후 5시경 학교를 나 학생들은 3·15의거 주변에 결했다. 마산항쟁의 거센 불 이 타 다.

한 나라나 지역에 역사적인 자부심을 가질만한 경 은 두고두고 기억되어 다시 역사에 살아 있게 된다. 마산학생·주민들이 3·15의거를 기억해내고 3·15의거 에서 시위를 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항쟁, 4월 11-13일에 제2차 마산항쟁이 없는 4월혁명은 생 하기 어 다. 히 제2차 마산항쟁은 4·19의 적인 도화선이었다. 이 두 항쟁을 마산사 들은 3·15의거로 거러 기억하고, 자신들이 마산사 인 것에 대해 한 자부심을 지 고 있었다.

부산사 들도 4월혁명에 자부심이 있었다. 2월 28일 대구 경 고 학생들의 시위에

『 』

『

』

『

』

『

』

서부 3·15에 이 기까지 시위는 고등학생 중심이었는데, 부산에서 어 지역보다도 은 고등학생들이 이 시기 데모에 여했다. 더 나아가 3·15마산항쟁 이후 3월말까지 부산의 고교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가장 이 여했다. 3·15의거 불 를 살 다고 수도 있었다. 4·19전 인 4월 18일 동래고생 1 여명의 시위는 고려대의 시위와 기억할만하다.

은 사 들이 4·19 하면 서울을 떠 리지 부산과 광주에서 의 화요일인 그 마나 한 투쟁이 전 되었는데를 지 못한다. 그 11시 조 지나 경 고생과 데 사여고생들의 시위로부 시작된 4·19부산시위는 비내리는 오후에 화 되었다. 부산 경 서 에서 수 명의 시위대가 투 을 하면서 방차와 경 지 차 를 어 고 불을 질 다. 경 이 데모대를 정면으로 겨 을 왔고, ,8명의 은이가 러졌다. 시위대에 업자 이 구두 이 등이 했다. 동 부산경 서에서도 기관 이 불을 었다. 오후 5시 계 이 선 되었다.³⁵⁾ 19년 의 부마항쟁과 비 한 점이 았다. 4·19항쟁으로 부산에서는 13명(4월 22일까지의 계)이, 광주에서는 경 관 1명을 해 6명이 사 했다.

4월혁명이 아 더라도 부산과 경 지방은 보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거 점이었다. 선거를 해서 그 점을 살펴보자. 1950년 5·30선거에서 이승만의 압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부산에서 바 이 불어 중도 민 주의자인 장 상과 성이 중 당선되었다. 로 선제로 치러 선거인 1952년 8·5정부 선거에서 이승만후보는 523만여표를, 차점자인 조봉암후보는 9만여표를 었다고 발표했다. 그 데 시수도였던 부산의 경우 이후보가 105,91 표, 조후보가 81,83표로 발표되어 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수 있다. 마산도 15, 50표, 11,262표로 큰 차이가 나 지 않았다.³⁶⁾ 1956년 5·15정부 선거에서는 이승만과 조봉암이 504만여표,

216만여표로 발표되어 차이가 어들었으나, 부산에서는 큰 차이가 컸은 심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³⁷⁾ 그 점은 이어 치러 지방자치선거에서 어느 정도 인해 다. 권력의 방해 작으로 히 부산·경 지역에서 당인 민주당원들은 후보하기조차 들어 부산의 경우 시의회의원에 3명 에 후보 등 을 하지 못했다.³⁸⁾

19 1년의 대 선거는 1956년의 정부 선거와 전의 연속이었고, 당 후보의 정 이나 약이 신했다. 19 1년 선거에서 부산은 당후보 선거바 이 불가 시작한 곳으로 의 가 있다. 대중후보는 부산을 쟁 중요 유세지로 정했다. 4월 10일 후보의 부산유세장에 16만 인 가 리면서 선거는 전에 전을 거듭했다. 선거 결과 부산에서 박정희후보가 후보를 8만여표 질러 5.6대 4.4의 비 을 보여, 과 호 전체를 하여 지방 이 가장 적었다.

부산시경에서 부마항쟁을 한 것 중 관심을 는 것이 있다. 부마항쟁의 간 원인으로 “서울 등 전국 대학가의 연 적인 요 사 급 ”과 “ 리적 작 에 의한 부산지역 대학가 요 유발의 장기억제(10·16 이전 사 전무)” 등을 고, 원인으로는 “국 대학으로서 체면유지 데모를 해 한다는 전체 학생들의 잠 재의식”과 “10·15 유신철폐 내 의 불 유인 살 ”를 제시했다.³⁹⁾ 무 한 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으나, 간 원인이 원인이 오 동 부산지역 대학가 에서 시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부마항쟁과 같은 큰 시위를 불러일으 다고 악하면 서, 그 점을 중시하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의감이 강한 학생들한 , 더구나 자신의 지역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일 의 전 으로 마음과 마음을 해 내려오고 있는 곳에서, 반독재투쟁이 없었을 경우 일반 학생들의 경우도 자괴감을 가질 수 있다. 반유신시위투쟁이 없었던 마산과 부산의 경우 히 가만히 있어서는 된다는 생 을 이 가졌을 수 있다. 부산

『 』
『 』
『 』

과 마산의 학생시위가 주동학생이 생 했던 것보다 폭발적으로 게 일어 하나의 요
인으로 이 점이 무시되어서는 것이다.

10월 18일 경 대 도서관 에 약 5 명의 학생이 모인 자리에서 정인권은 “우리
경 대학은 대학생연 에도 가 하지 못했고 경 대학생은 지 만 모였다는 을
고 있다”라고 말하여 학생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기 있게 나가는 것이 불명예를
는 이라고 역 했다.⁴⁰⁾ 이 학생들이 학교를 나와 3·15의거 에 모이자, 학
생들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서 “선 못 후 를 어 주 시오.
우 전국대학생들이 유신 철폐시위를 일 때 학교당국의 간으로 유신찬성 데
모를 해 못 후 들 다”라고 을 리고 그 자리에서 “독재타도” “박정권
은 러가라”는 구호를 다.⁴¹⁾ 당시 부산과 마산의 대학생들 사이에는 서울의 모모
여대에서 가위를 보냈다 , 면도 을 보냈다 하는 문이 나 았다. 10월 16일
부산대 시위에 여한 한 학생은 “서울에서 내려 구들로부 시위 식을 할 때
마다 유신대학이 오명에 대한 강한 모 감과 자괴심을 할 수 없었다. 대다수 학
생들이 고 있었던 된 감정이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10·16시위에서 학
생들의 을 결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언했다.⁴²⁾

에서 서울대문리대의 19 3년 10·2시위가 유신쿠데타 1년이 다 되도 이대로 가
만히 있는 것은 문리대 학생으로서 있을 수 없다는 감정이 작 했음을 기술한 바 있
다. 1960년 4·19도 유사점이 있었다. 대학생들은 제2차 마산항쟁에 해인대(경 대 전
신) 학생 50여명이 시위에 여한 것을 제 하면 4월 18일 전에는 데모에 나서지 않
았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언 들은 무 한다고 치기도 했다. 대학생들은 제2차
마산항쟁을 보고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된다고 마음을 다 고 있었다. 4월
18일 먼저 고려대 학생들이 뛰 나 고, 그 다음 아무도 그 게 큰 시위가 어질
을 지만, 이제 나서지 않으면 된다는 으로 을 나 다.

역사적으로 긍지를 가 지역에서 긴 시간 운동이 성화되지 못하다가 여 이 성 해 정치적 경제적 조 이 불을 당기면 일거에 타오 게 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불을 서서 당긴 매 체로서의 역할은 가를 해주어 한다. 부산대에서 10월 15일 유인 을 살 한 이 이나 신재식 , 10월 16일 부산대 교내시위를 선도한 정광민 등과, 10월 18일 경 대 학생시위를 불 이는데 역할을 한 정인권 등은 선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부산 기 등의 양서조 은 부산지역운동을 결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3. 민주화운동에서 차지하는 부마항쟁의 위상

1) 4월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

부마항쟁은 박정희 유신쿠데타가 일어 19 2년 10월 이래 대 규모의 유신철폐 시위였다. 박정희는 유신쿠데타를 일으키기 1년전 위수 으로 군대를 어 학원에 투 했고, 23 대학에서 1 명을 제적시켜 대부 을 군대에 고 다. 유신체제에 시위 로서 반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을 일치감치 철저히 제거한 것이었다.

유신권력은 철 성 강력해보였으나, 19 1년 10·15위수 발동 2년, 유신 계 선 1년 된 19 3년 10월 2일부 반유신투쟁이 화되었다. 그 지만 시위는 규모 가 큰 것이 아 었고, 대부 의 대학이 동 학과 시 거부 방 으로 싸웠다. 긴급조 치 1호 발동을 전후해서 전국 대학을 연결해 동시다발 시위를 전 해보고자 했으 나, 19 4년 긴급조치 4호 발동과 민 학 사 ·인혁당사 조작으로 큰 압을 았을 이었다. 19 5년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등 여러 대학에서 규모가 큰 학내 시위, 가두 시위가 전 되었지만, 어 것이나 19 9년 10·16 부산대 교내 시위의 규 모를 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19 5년 4월 인도차이나 사 이후 보수· 전세력의 위기의식과 결 해 양 의 보궐기대회가 일어나고 긴급조치 9호가 선 되어 박정희 유신권력은 다시 강고해 것으로 보였다. 19 5년 5월 22일 서울대에서 상 군 장례식 도식을 거 한 5 여명이 교문 을 나 으나 해산당했다. 그 19 6년 10월이 되어서 시위는 다 시 시작되었으나, 규모는 지 않았고, 은 시간에 봉 당했다.

중 정보부 요원, 경 정보 사, 전투경 대, 대학 원에 때로는 교수까지 동원되 어 19 0년대 후반에 시위를 한다는 것은 보 어려운 일이 아 었다. 학생들은 감 에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 라, 간까지 만이라도 면서 더 은 학생 을 모으기 위해 모 력을 기울였다. 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19 년 10월 연세대 에서 대강당 4 의 폐 된 박 관 유리 을 깨고 래 를 내려보내면서, 19 5년 이후 대의 시위가 전 되었다. 3,4 명이 투 전을 이 히 시위했다. 11월에는 서울대에서 규모가 큰 시위가 있었고, 다음해인 19 8년 에는 시위가 부 늘었 다. 이해 6월 26일에는 여러 대학교 학생 1 여명이 여하여 광화문에서 19 9년 10 월 16일 부산시위와 사하게 해산했다가 다시 결하는 방식으로 오후 6시 40 경부 10시반경까지 시위를 해 민주세력에게 로운 희 을 주었다. 그러나 10월 1 일의 광화문 연 시위는 권력의 압으로 되었다. 19 8년부 그 다음해 부마항쟁으로 유신정권이 할 때까지 전국 대학에서 유인 이 끊 없이 나 았고, 또 환 기 등을 이 해 시민들한 유인 을 살 하였고, 시위도 끊이지 않았다.

부마항쟁은 유신쿠데타 이후 대의 반유신 시위투쟁이었다. 유신체제라는 극 적 독재권력에 결정적 타 을 것이 부마항쟁이었다.

나아가 부마항쟁은 4월혁명 이후 대의 시위로 기 수 있다. 4월혁명 이후 유 신쿠데타에 이 기까지 가장 규모가 큰 시위는 1964년에 한일회 과 박정희정권에 반 대해서 일어 6·3사 었다. 6월 3일 서울의 주요 대학 학생들이 아 나 고, 경 서를 습 하고 군 을 하는 일도 있었다. 이 오후 늦게 게 이 선 되

었다. 그러나 10월 16, 1 일의 부산항쟁보다 규모가 작았다.

부마항쟁은 1960년 4·19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수일간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999년 10월 16일 10시 조 전부 시작된 부산대 교내 시위는 4 여명으로 불어났고, 이 부산 중요 거리의 간시위에는 5만여명이 여했다.⁴³⁾ 유신쿠데타 발발 주년이 되는 10월 1 일에도 한 시위가 계속되어 박정희는 18일 0시를 기해 계 을 선 했지만, 18일 저 에도 2 여명의 시위대가 시 으로 전 했다.

18일 오후 3시 반 경 대 교정에서부 시작된 마산시위는 에 1만여명의 인 가⁴⁴⁾ 한 시위를 여 다음 3시경까지 계속되었고, 군부대가 들어 19일에도 저 8시경부 히 시위가 전 되어 20일 까지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되었다. 20일 정오를 기해 박정희는 마· 지역에 위수 을 발동했다.

계기적으로 규모가 큰 시위가 전 된 것은 부마항쟁 이전에는 1960년 4월 25, 26일의 서울 시위와 제2차 마산항쟁이 있었다. 4월 25일 교수들이 오후 5시 50 경부 시위에 나서면서 시작된 서울시위는 일부가 광화문 일대의 위에까지 라 고, 다음 두시경까지 계속되었다. 26일 해제 시간이자 동 무 인 5시경부 오전 9시경에 3만인 가 광화문 일대를 가 웠고, 는 한 발사가 조 지 10시 20 경 계 사 부 선무반은 이승만 하 를 발표했다. 승리의 화요일이었다. 4월 11일부 시작된 제2차 마산항쟁은 제1차 3·15항쟁보다 규모가 오후 6시경에 약 3만명이 시위에 나 다. 다음 에도, 그 다음 에도 시위는 계속되었다.

부마항쟁 여러 에 투쟁이 계속된 것은 광주항쟁과 6월항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부마항쟁은 4월혁명, 광주항쟁, 6월항쟁과 민주화운동에서 중한 위치를 차지한다.

2) 소외층이 대거 참여한 민중항쟁

부마항쟁은 민()이 대거 여했고, 어 이 이후의 투쟁은 학생들이 주도했다고 보기가 어 다는 점이 중요한 이다. 이러한 민중항쟁적 성 의 시위투쟁은 부마항쟁 이전에는 사례가 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1960년 2월 28일부터 1990년대 까지 학생운동이 계속되었다. 보적이거나 민 적 동을 이와 같이 장기간에 학생들이 은 경우는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동서 양 으로 라 한 전체제의 한복 에서 민 주의적인 동이 쉽지 않았고, 그 전체제에서 극우반 주의가 이 을 다시 했기 때문에 보세력이 조봉암· 보당과 4월혁명 이후 1년 정도 동한 혁신 계를 제 하면, 6월항쟁 이전에는 정당 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19 0,80년대의 재 민주세력도 투쟁방식이 제한되어 있어 학생 이 시위투쟁을 주도했다.

1964년 3·24투쟁에서부 부마항쟁 이전까지는 거의 모 투쟁이 학생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반 시민이 가세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6·3사 의 경우 일부 시민과 불우한 년, 업자가 가 을 했지만, 대부 의 시민들은 호 하지 않았다.

2월 28일에서부 4월 26일까지 계속된 1960년 3,4월항쟁은 학생혁명이라고 불리울 만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다. 4월 19일 서울의 경우 오전 11시 50 경 학생 시위대가 중 으로 할 무 구두 이 이 신문 이 업자 마주이 등의 불우한 년, 년들이 같이 달려 지만, 경무대 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투쟁의 주역은 대학생에서부 등학생까지 가 한 학생 이었다. 이 광주는 학생 중심이었고, 부산의 경우 기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도했지만, 나중에 업자와 반() 등 이 다수가 했는데, 이 부 은 자 를 더 보해 할 필요가 있다. 제1차 마산항쟁의 경우 시위 발은 학생이 아 라 민주당 년당원이었고, 1만여명으로 산되는 저 · 시위에 시민들이 대거 가 했다. 3만명 이 여한 제2차 마산항쟁의 시위는 할아 지 할 로부 어 아이까지 다양했는데, 4월 12,13일의 시위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심이었다.

면밀히 비교 하여 봤지만, 부마항쟁, 그중에서도 마산에서 민들이 대거 여한 양상은 광주항쟁이나 6월항쟁에 민들이 여한 양상과 어 정도 차이가 있다. 광주항쟁의 경우 광주사회의 리더 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산 또는 중간계 도 다수가 여했다. 6월항쟁에서 시민 여는 주교 신교 불교 등의 성당 교회 사 등이 중요한 매 를 이루었고, 다수의 시민이 사전에 인지하고 여했다.

『부산민주운동사』에는 10월 16일의 부마항쟁 시위가 저 6시경까지는 학생들이 주도하였지만, 어 이 리면서 시위의 주도권이 점차 시민들에게로 어가고 시위 양상도 해 것으로 기술했다. 도심의 대로가 시위 인 로 던 시경 학생들은 수였고, 타이틀 의 회사원에서 동자, 상인, 업 의 업 원, 재수생, 교복 은 고교생 등이 연일체를 이루어 구호를 치고 투쟁했다는 것이다.⁴⁵⁾ 부마항쟁에는 시민들이 학생 시위를 적극 성원하고 호했으 , 학생과 더불어 싸웠고, 나중에는 시민이 시위대의 주 를 이루었다. 이 상 이어서 유와 지거리가 아지는 속에서 경 의 대 은 들었고, 심지어 경 작전차에 불 이 솟아 경 간부가 작전차를 구하기 위해 을 명 했는데, 경 이 지 않는 사 가 어졌다.⁴⁶⁾

부산시위와 마산시위의 여 은 마간 차이가 보이지만, 대체로 세상인, 세기 업 동자들과 반 업상 의 자유 동자, 구두 이, 식당 업원 등 업 사자. 상점 업원, 도시 부랑이나 무 자가 대 을 이루었고, 회사원 등 중간 시민들 도 상당수 호 한 비조 적 민중항쟁이었다.⁴⁷⁾ 그리하여 재 , 정경유 , 사 이 말해주는 비 리적 기업가. 있는 자들의 부동산투기, 들, 폐 산업과 문화가 한 으로, 다른 한 으로 고 가, 경제불 , 과다한 세 , 세 상인, 저 , 장시간 동, 악한 작업환경, 업, 방살이, 과 체 무력

감, 전도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생, 자신들의 고 인 의 폐 등이 대 을 이루고 있었고, 후자에는 극명한 부 차, 박정희 유신체제의 선(정), 비리, 부패와 억압, 제(), 장기 권과 정치적 폭주()가 거대한 구 리 있었다.

부마민중항쟁은 재규가 말한 대로 민 이나 봉기의 성 은 지 고 있었지만, 동 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시위 여자들은 유신독재의 주구라고 본 치 기관, 화당당사와 그 의 기관, 등의 언 기관, 차 등을 하고, 에 있는 박정희사 을 내동 이치고, 마산에서는 상 과 관 있는 자가 차나 고급 러운 간 · 에 대한 도 있었으나, 를 접거해도 무기고는 그대로 두었고 기도 지 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때 민간인의 재산이나 원 같은 시 은 을 대지 않았으 , 상점에서 을 약 하지도 않았다.

시민들은 학생들과 같이 유신철폐, 독재 타도, 제명 철회, 언 자유, 부가가치세 철폐 등의 구호를 다. 그것과 성 을 달리하는 급 적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 점에서 부마항쟁은 민주화운동이었다. 그와 여 을 때 박정희의 경제정 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한 투쟁이었다.

필자는 1985년에 발표된 한 문에서 일제강점기 국내 산주의자들은 제로는 부주아민주주의 을 위한 투쟁을 인 면이 다고 주장한 바 있다.⁴⁸⁾ 그 점은 제 철폐를 주장했던 일본 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6월항쟁시기 학생시위를 주도한 학생운동 리더 이나 일부 재 인사들은 급 적 정치이 을 주 했지만, 6월항쟁은 6·29선언으로 되었다. 4월혁명, 부마항쟁, 광주항쟁, 6월항쟁은 이승만정권 타도, 박정희 유신 철폐, 유신잔당인 전두환·신군부정권 타도 등을 해 자유민주주의 를 현하는 것이 당면한 대의 역사적 과제였다.

마산 간시위에서는 불을 라는 이 왔다. 을 고 나가면서 학생들은

「

」 『

』

“불을 주시요”하면서 상점과 민가에 조를 요 했고, 불을 지 않은 에 투 을 했다.⁴⁹⁾ 10대 후반 20대 반의 은이들이 은 일반 시위대도 마산 어시장과 극동 예식장 사이에서 불을 지 않는다고 2 유리 을 박살내는 등 등을 요구했다. 시위는 어 속에서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부마항쟁에 여한 시민은 거의 다 조 군중의 성 을 지 고 있었다. 부산시위에서 아 은 부산운동권이 고 , 산적 수 을 벗어나지 못해 민중항쟁을 이 어가기가 어려웠고, 항쟁은 주로 조 군중의 자발적이고도 폭발적인 여에 의존해서 폭되어 다.⁵⁰⁾ 조 제는 10월 16일 시위에서 부산 광복동과 동의 시민들이 광적으로 환 했으나, 그 다음 에는 를 내 고, 반면에 국제시장의 세상인들은 1 일에도 적극 지원했다고 기술했다.⁵¹⁾ 부유한 상인 은 명 히 비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마산시위에서 자동차 라이 도 게 하는 등 등을 요구한 것은 명성을 보장 으려는 위로, 군인 동 등 권 력이 거세게 나오면 시위가 더 지속되지 않을 가 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겠다.

4. 부마항쟁으로 인한 유신체제 붕괴의 의의

1) 부마항쟁과 김재규의 10·26거사

재규의 10·26거사가 없었더라면 유신체제 붕괴는 늦 어졌거나 없었을 것이라는 가 는 력이 있다. 4월혁명과 비교해보면 그 점이 명하다. 4월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은 85세로서 아무리 권력 이 강했다 하더라도 현상이 있어 한계가 있었다. 그 반면 박정희는 부마항쟁이 일어났을 때 62세로 권력의 이 원기 성할 때였다. 박정희는 군사정권 부 중 정보부라는 권력을 지 해주는 강한 정보·사 기 관인 중 정보부를 고 있었으나 이승만은 그 지 못했다. 4월 19일 게 이 선 된

이후 군은 이승만의 명 지시에 무조 복 하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움 인 면이 있었고 중 을 지 다. 그러나 유신말기에도 박정희는 군을 고히 장악했다. 박정희가 키운 하나회는 성을 다 했고, 다른 부대도 그의 명 에 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박정희는 하에 자신이 명 할 수 있는 수 전 과 같이 압 을 목적으로 한, 큰 규모의 수부대를 거 리고 있었으나, 이승만은 그 지 않았다.

이승만정권의 제2인자인 이기붕은 유약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아 였고, 군부대로 신하다가 일가 이 자살했다. 그 지만 재규를 제치고 제2인자 을 했던 경호 장 차지철은 박정희를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는 음을 고히 가지고 있는 박정희 신도로서 반박정희운동에 호한 도를 지하고 있었다. 언 또한 이승만에게 대 히 비 적이어서 데모를 게 보도했는데, 부마항쟁에 대한 언 보도가 말해주는 바 그대로 긴급조치 9호 등에 여 언 은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 다만 국이 4·19 이후 이승만정권을 지지하지 않은 것과 비 하게 박정희정권에 대 해 비 적이었다. 그 지만 이승만정권에 비해 박정희 유신정권은 국에 대해 더 은 자 권을 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 을 비교해 때 10·26이 없었더라면 유신체제 붕괴는 늦 어졌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4·19와 같은 시위의 존재였다. 이승만한 후의 타 을 것은 교수 데모와 그것에 이어 발생한 4월 25, 26일의 시위였지만, 4·19로 이승만은 결정적인 타 을 었다고 할 것이다. 4·19 이후 1주일만에 4·26이 있었는데, 부마항쟁이 있는 지 6, 일만에 10·26이 발생했다.

6월항쟁이 없는 우의 6·29선언은 있을 수 없다. 비 하게 부마항쟁 없는 10·26은 상정하기 어 다.

재규는 19 9년 5월말 신민당 당권경쟁에서 연 상 에 있는 대중이 할 수 있게 해주어 당원들에게 을 지원하도 말할 수 있게 했다. 박정희의 명 을 어

긴 것으로 중 정보부장으로 있을 수 없는 위였지만, 그것에서 재규의 유신체제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재 당선은 박정희의 의원 제명을 고와 부마항쟁을 발했는데, 재규는 부마항쟁을 유신권력의 장에서 보지 않았다.

부마항쟁은 10·26거사의 적인 계기였다. 재규는 부산지역에 계 을 선한 18일 0시가 조 지 에 부산계 사 부에 도 해 보고를 았다. 재규는 년 동 유신체제의 억압이 계속되는 사이에 유신체제의 폭압에 대한 적된 불만이 해졌다고 했는데, 결국 부마항쟁 같은 국민적 항거라는 우려했던 사 가 현로 나타났음을 인했다.⁵²⁾ 그는 서울로 라와 박정희에게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가고에 대한 반발과 조세에 대한 저항에다가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민중봉기 다. 불 세력은 없습 다”라고 보고했으나 박정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10월 26일 저 에도 부산사 는 신민당이 했다고 말하면서 - 여기서 광주사 에 대중이 했다는 전두환·신군부의 주장이 상기 것이다 - 부산사 에는 아무 것도 모 는 식당 이나 마 들이 이 가 했다고 억지를 다.⁵³⁾

재규는 부산에 다 와서 도가 달라 표정이 어 있었다. 그가 유신의 심장을 지 않을 수 없다고 결심한 것은 부산에 다와 박정희에게 보고한 후로 보인다. 재규가 10월 24일 이후 을 만났을 때 지나치는 말로 “제가 해치우겠습 다”라고 말한 것이나, 재규가 존경했고, 재규 요 으로 유정희 속 의원을 떠 았던 이 찬장군이 더 이상 유정희의원을 못해 겠다고 하 연하자 “조 만 기다려주 시요”라고 말한 것도⁵⁴⁾ 생 이 있어서였다.

2) 대참극의 예방

재규가 유신의 심장을 기로 결심한 것은 부마항쟁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무나

도 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부마사 같은 민 이 5대 도시로 산 거라고 이자, 박정희가 화를 내면서 “ 으로 부산 같은 사 가 생기면 자유 당에는 인규나 주가 발 명 을 하여 사 당하였지만, 내가 발 명 을 하면 대 인 나를 가 사 시키겠는가”라고 말했고, 같은 자리에 있던 차지철은 “ 보 아에서는 3 만명 정도를 이고도 까 없었는데, 우리도 데모대원 1-2 만명 인다고 까 있겠습 까”라고 큰 리 다.⁵⁵⁾ 차지철이 과장하여 말했을 수 있지만, 대 극이 일어 가 성은 있었다. 10월 26일 정동 회식에서도 재규가 신민당이 강경으로 아서서 작이 수 로 아 다고 말하자 차지철은 “까불면 어 리겠 다”고 내 었다.⁵⁶⁾

재규는 박정희에게 보고할 때 민 비 한 시위가 5대 도시로 산 것으로 생 했는데, 10월 23일 신민당 주의원에게도 “ 국을 수습 못하면 광화문 거리가 바다가 다”라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⁵⁷⁾ 대 사가 어질 것으로 악하고 있었 다.

부마사 가 일어 정치적 계기나 경제적 동 은 부산 마산만의 현상이 아 고 전 국적인 현상으로 다른 지방도 비 했다. 부 차가 심했고, 재 의 , 비 리적 기 업주, 부동산 투기 위, 산업, 들도 그 고 세상인의 어려움, 저 , 악 한 동환경, 방살이, 과 무력감, 전도가 보이지 않는 암 한 생 을 하고 있는 의 광 위한 존재도 그 다. 또 서울에서는 반유신투쟁이 발히 전 되고 있었고, 지방에 급되고 있었다. 무 보다도 19 9년 5월 신민당 전당대회 이후 계속된 정치적 이 더 심 한 양상으로 수 있었다. 그 데 박정희와 차지철은 전두환·신군부 와도 달 다. 성 도 차이가 나지만, 명 계 도 화되어 있었다.

박정희는 일본군인의 기()와 비 한 성 , 한다고 했으면 하는 성 이 있었

다. 그는 의회정치를 어하고 의 극대화를 주장한 일본 군국주의 장교들이 일으
1936년 2·26쿠데타에 심 되어 있었다. 여 사 후 군 이 전 되었을 때
로당 치였던 그가 살아 온 것은 사 동기생 등의 치 관계 정보를 제 했기
때문으로 려 있다. 19 1년 오치성내무장관 해 으로 유발된 10·2항명 동에서
화당 중 이자 그의 둘째 동지였던 성 과 오랜 이었던 재호가 중 정보
부에 려가 특히 당한 것은 그가 마나 무서운 사 인가를 인지시 다. 그 점은
중 정보부장을 가장 오래했던 의 음에서도 작된다. 위 인혁당재 위원회
사 으로 19 5년 4월 9일 8명이 된 것은 유신체제 보위를 위해서라면 무 짓이
지 할 것이라는 것을 고히 보여 살()이었다.

박정희는 유신체제 말기에 정신적으로 리고 있었고, 력에 이상 후가 있었
다. 에서 의 의원 제명이 마나 비정상적인 인가를 지적했지만, 그는
을 구속까지 시키려 하였다.

부마항쟁 리과정도 문제가 있었다. 부산지역이 되는 2관구사 관 장성만 장
은 구 여 군 동원을 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고 다. 부마사 를 고 있는
구자 내무장관, 재현 국방장관, 박찬현 문교장관도 반대했는데, 박정희가 독 으로
계 을 선 했다. 박정희는 위수 발동 이전에 두 이나 계 사 관에게 마
산사 를 도와주라고 전화해서 부산에 내려 2 수 전사 여 중 1 여 이 마
산에 급 되었다. 장성만 장의 발언에 대해 차지철은 화를 냈다. 차지철은 국방장관
이나 군 모 장과 사전 상의 없이 월권으로 18일 에 서울지역 수여 을 부산
으로 수하고 군수사 관 박찬궁중장에게 계 선 계 사 관 명을 음
고했다.⁵⁸⁾ 비정상적인 권력 었다.

차지철의 월권 위, 권력 에 대한 박정희의 도도 마나 위 하게 국정을 운
하는가를 보여주었다. 차지철은 재규의 역을 하는 것을 서 지 않았다. 군

장급 중장을 경호 차장에게, 차장보에는 사 장 급 장을 다. 유 군사 관과 군 모 장에게 경호 에 사 력을 치할 것을 요구하다가 와 기, 중화기를 30경비 4 대대를 하에 두는 등 국군지 체계와 정치 체계를 문했다. 장관이나 모 장에게도 하무인 이었다. 이 시기 차지철과 재규가 심한 등관계를 가질 수 에 없다는 것을 박정희는 모른 체 했다.

박정희의 여자 관계도 비정상적이었고, 유신말기에는 대 히 부자연 러웠다. 자 여자관계를 는 사도 문제가 있지만, 정보부장, 비서 장, 경호 장이 동 하는 대 사는 정상적인 여자관계라고 보기 어 다. 조 있다가 위를 할 여자를 에 고 국사 등을 주고 을 수 있을까. 유신체제 말기에 사와 대 사의 도가 매우 아서 사 만에 한 로 정동 가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⁵⁹⁾ 말 았던 구국여성봉사 과 관 된 장 와 민에 대한 재규의 조사보고에 대한 박정희의 조치도 상 를 벗어 위였다.⁶⁰⁾

차지철도 그 지만, 박정희는 자신의 위에 관한 중대한 사 에 대해 다른 사 의 의 을 는 성 이 아 었다. 만 아 라, 중대한 사 에 대한 결정 과정이 유신정 권 말기는 한 더 화되었다.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은 자신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 은 호도 할 수 없으 호히 대 하겠다는 기나 결기가 간적으로 발동되어 극 적인 강경 명 을 내리는 상 이 래 수 있었다.

정치적 과 급 히 나 지고 있던 경제적 상 , 유신체제에 대한 반감의 급 한 가, 반유신운동의 치 등을 때 부마항쟁과 같은 사 가 나타 가 성은 연 성이 았다. 박정희와 차지철의 성 과 권력 를 때, 히 유신말기에 보여 비정상적인 면을 때, 부마항쟁과 같은 민중항쟁이 나타 경우 대 극이 일어 가 성이 있었다. 그 점에서 부마항쟁으로 인한 10·26은 역사적 의 가 다고 아

할 수 없다.

계 이 선 된 이후 들어 수부대의 위는 광주항쟁에서의 그것을 상기시
다는 점도 생 할 필요가 있다. 18일 시위에 수부대가 대 은 으로 시위대를
으 치는 대로 을 돌 다. 방지다고 지나가던 사 이 리 으로 맞아
수술을 았다. 부산항쟁으로 발생한 11명의 중상자중 5명이 18일 에 해를 었
다. 경 도 수부대원 10여명으로부터 어맞았다.⁶¹⁾

부마항쟁에서 사 자가 나지 않았던 이유도 해 필요가 있다. 10월 16일 부산
대 교내 시위에 대해 경 은 하게 대 했을 아 라, 거리에서의 민간인이 세
한 시위는 음 보는 것이어서 제대로 대 를 하지 못했다. 10월 18일 마산의 시위도
경 력이 부 했고, 적 한 대 도 하지 못했다. 학생들이 시위하고 지는 게 라식
방 으로 시위를 했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경 은 을
지 못했다. 경 은 1960년 3·15마산시위 때와는 달리 학생·시민항쟁에 잔 하게
대 하지 않았다. 마산의 이 간 시위에서 체 된 500여명은 가장 감하게 싸운 사
이 아 고, 상당수가 전에서 체 되었다는 지적은⁶²⁾ 시사하는 바가 다. 가장 중요
한 것은 시위대가 군과 정면으로 하거나 대결한 경우가 광주에서와는 달리 반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압되었다는 점이다.

3) 서울의 봄, 그리고 6월항쟁으로

필자는 4월혁명으로 로운 사고, 로운 기 이 작되어 게 모 게 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⁶³⁾ 수구 전적인 사고가 한 극우반 정권이 무
지면 적 이와 같은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없다. 10·26이후부 광주항쟁에 이

는 과정은 한 구교수가 발표하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서는 가지만 간히 언급하려고 한다.

학생들은 1980년 서울의 을 맞아 점차 기를 었고, 5월에 들어서자 서울대에 서 1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 회를 는 등 규모가 큰 회와 시위가 달았다. 5월 14일 전국에서 6만여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가두투쟁을 었고, 5월 15일에는 서울 역 에 10여만명의 학생과 시민이 결했다. 광주에서는 5월 14일부 규모가 큰 학생 회·시위가 일어나 16일에는 9 대에서 3만여명이 결했다. 시위가 끝 학생 들은 한 일이 발생하면 다음 아 전 대 교문 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5·1 쿠데타가 발생하자 18일 전 대 교문 에서부 광주항쟁이 시작되었다. 비 살 음을 는 것 같은 서울의 이었지만, 박정희유신체제와 전두환·신군부의 유 신잔당 에 대한 항거는 부마항쟁-10·26-서울의 -광주항쟁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다시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 그리하여 6월항쟁으로 계승되었다.

부마항쟁-10·26-서울의 은 동운동을 했다. 동조 결성, 어 동조 반 대, 동조 의 민주화운동이 어졌다. 은 사업장에서 인상과 동조 선을 요구하는 투쟁도 전 되었다. 서울의 마지 시기에는 한국 에 대해 민주화 요 구가 일어났다.⁶⁴⁾ 이중 4월 하 에 발생한 사 사 는 폭발적으로 할 것 같은 유 신말기의 상 과 서울의 이 결 되어 일어 일 의 봉기였다.

10·26이 일반 대중들에게 민주화에 대한 기대를 게 한 점도 과 가하는 것은 문제다.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서울의 으로 생하는 했지만, 12·12쿠데타로 군 의 권을 장악한 전두환·신군부는 5·1 쿠데타를 일으키자, 일반 대중은 일 그것 에 하거나 체 상 었다. 그러나 10·26으로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강 했던 광주 지역에서 항쟁이 일어났고, 그후 일반 대중도 2·12 선에서 상당수가 선명 당을 지 지했으 , 6월항쟁에 나 다.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6월항쟁으로 전된 것이었다.

『

』

부마항쟁-10·26-서울의 이 는 역사적 의 는 박정희유신정권과 전두환·신군부 정권의 차이에서도 러 다. 박정희 유신정권을 전두환정권이 계승했다고 수 있지만, 국의 압력과 4월혁명의 이 작 해 5·16군사정권이 민정이양을 하겠다고 할 수 없었던 것과 비 하게, 부마항쟁-10·26-서울의 -광주항쟁과 사회여 변화 등으로 양자는 명히 차이가 있다.

우선 대 의 기와 선 방 , 대 의 권한이 달 다. 또 박정희는 긴급조치를 9호까지 선 했지만, 전두환은 비상사 도 내리지 못했다. 박정희는 일주체국민회의라는 주권적 수 기관을 지우지했지만, 전두환은 그 것이 없었다. 국회의원 선 방식도 달 다. 12·12 선과 5·30전당대회 이후 에 대한 를 때 박정희는 2·12 선과 그 이후의 사 를 과했을까. 박정희는 하면 계 위수 으로 군을 동시 지만, 전두환은 1981년 이후 군을 동시키기가 어려웠다. 민주화 운동에는 언 의 보도 도가 중요한데 그 점도 달 다.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보도는 비 했지만, 유신말기의 부마항쟁은 계 이전에도 보도를 하지 못했으나, 전두환정권 말기에 일어 6월항쟁에 대해 전두환정권은 보도 제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정권 보와 결된 반 ·반 교 도 박정희유신정권과 전두환정권은 비교가 정도로 전자가 심했다.

부마항쟁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서 광주항쟁 6월항쟁으로 이어졌지만, 부산지역에서의 과정을 보더라도 2·12 선을 거 6월항쟁으로 계승되었다. 전두환정권을 경 으로 고간 1985년 2·12 선에서, 바 이 작 한 것이지만, 부산은 서울보다 도 월등 신민당후보와 다른 당후보를 이 당선시 다. 서울에서는 민정당후보가 13명, 신민당후보가 14명, 민한당후보가 1명 당선되었는데, 부산에서는 민정당후보를 3명만 당선시 반면 신민당후보를 그 두 인 6명, 기타 다른 당 후보를 3명 당선시 다.

6월항쟁이 발발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한 19 9년 1월 14일 박 철고문사 사 으로

2· 국민 도회가 을 때, 박 철의 고 인 부산은 서울과 시위대 규모가 가장 다. 6월항쟁에서 부산지역은 항쟁을 대, 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6월 12일부 시위가 가 되기 시작해 18일에는 수 만명의 인 가 중심가를 가 왔다.⁶⁵⁾ 부산의 기 적인 대시위는 바로 전국에 려 6월항쟁을 고조시키는데 강력한 이 되었다.

5. 맺음말

굴 은 있지만 6월항쟁 이후 민주주의를 게 된 것은 이승만정권 박정희유신정권 전두환·신군부정권에 맞서 끊임 없이 민주화운동을 전 했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에서 4월혁명 부마항쟁 광주항쟁 6월항쟁은 히 중한 위치에 있다. 그 지만 부마항쟁의 경우 발발했을 때에도 보도 제로 다른 지방에 려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려 있다.

부마항쟁은 박정희 유신체제에서 다른 반유신시위와 비교가 되게 규모가 고 폭발적이었으 , 1960년 4월혁명 이후로 보더라도 대 규모의 시위였다. 부마항쟁은 그 이전의 다른 시위와 달리 19 9년 10월 16일에서부 10월 20일 까지 규모가 큰 시위가 여러 에 히 계속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비 한 지역에서 여러 에 시위가 계속된 것은 1960년 4월 11일에서부 13일까지 있었던 제 2차 마산항쟁을 제 하면 박정희 유신체제가 붕괴 때까지 없었으 , 그 이후에 광주항쟁과 6월항쟁이 있을 이다.

「 『 』
『 』
『 』

부산과 마산에서의 항쟁은 학생들이 선도했지만, 보다 더 큰 규모로 전개된 간투쟁은 두 지역 모두다 일반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가한 민중항쟁의 성을 고 있었다. 회사원 등 중간 시민들도 여했지만, 세 상인, 중 기업이나 대기업 동자, 식당·업·상점 업원, 반, 부랑자, 업자 등 박정희 유신체제에서 사회적으로 시 당했던 이 왔다. 4월혁명 이후 시위는 학생들의 전유 이다 시 했는데, 1999년 10월 부산과 마산 시위는 그 지 않았다. 이 점에서도 부마항쟁은 광주항쟁 6월항쟁과 중요한 의 를 는다.

부마항쟁은 유신말기에 학생 만 아 라 일반 대중들의 유신체제에 대한 반감이나 비 의식이 마나 는가를 극명히 보여 다. 부산과 마산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규모로 시민과 학생들이 일체가 되어 음부 끝까지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것 은 박정희가 신민당 당수인 의 의원 을 박 한 것이 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유신체제에 대한 반감이 작 하였다. 그와 부 차, 경제 악화, 세 가중, 투기, 폐 조, 비리·부조리가 저 동자, 계 의 심한 반발을 래한 것이 기본 동인이었다. 민간인 여 은 부 차를 화시 박정희의 경제정 에 게 반발했다. 또한 마산은 4월혁명의 발상지였고, 부산도 4월혁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박정희의 유신쿠데타 이후 반유신 시위투쟁을 이지 못한 것 도 부마항쟁을 화시 경이었다.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에 심대한 타 을 고, 재규 10·26거사의 적 동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다. 6월항쟁 없는 6·29선언을 생 하기 어려운 곳 과 비 하게 부마항쟁 없는 10·26은 생 하기 어 다. 재규는 부산에 내려가 부마 사 를 보고 고 자신이 우려하던 사 가 다고 감했다. 그가 박정희에게 보고했을 때 보인 박정희와 차지철의 반 은 결국 유신의 심장을 는 에 없다는 결심을 하게 했다.

부마항쟁으로 인한 10·26은 대규모 유 극을 방지하는데 기여했다. 유신말기의

정치적 폭주와 독재, 장기 권, 경제 악화, 부 차 등으로 박정희 유신정권에 대한 반발은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사 의 악화에 라서 제2의 학생·민중항쟁이 일어 가 성이 다 히 있었다. 그 데 박정희는 전두환·신군부보다 강한 권력을 가 졌고, 박정희와 차지철은 유신체제를 보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 극이라도 불사 하겠다는 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독재자일수 자제력을 가지고 하게 현 을 악해 할 인데, 유신 말기 박정희와 차지철은 력에서 문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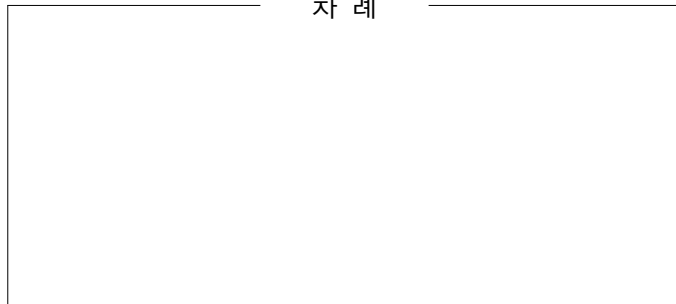
부마항쟁으로 인한 10·26은 민주화에 대한 기대를 게 했고, 그것은 살 음 비 했지만 서울의 으로 상 되었다. 학생운동도 동운동도 기가 있었다. 전두환·신군부의 5·1 쿠데타로 민주화의 기대는 무 히 깨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1985년 2·12 선에 부 적으로 표 되었고, 6월항쟁으로 전하였다.

부마항쟁 광주항쟁 6월항쟁은 연속성이 강했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차 정 과 정치 적 생명을 위 한 박해로 10·26 이후 민주화와 대중에 대한 기대가 던 광주지역 은 전두환·신군부가 5·1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정지역을 업고 유신체제를 부 하려 하자 거센 항쟁을 진 했다. 부마항쟁에서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다면, 광 주항쟁에서는 “유신잔당 타도”, “유신잔당 전두환 러가라”가 주된 구호였다. 유신체제 와 같은 독재권력을 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양자는 일치했고, 그것은 광주항쟁 이 후 민주화운동으로, 그리고 6월항쟁으로 계승되었다.

귀향-혁명의 시원을 찾아서 부끄러움에 대하여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차 례



귀향-혁명의 시원을 찾아서

부끄러움에 대하여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1. 간단한 소묘

부마항쟁이 무 인가 역사적 사 이 문제라면 이 음에 대한 대답은 어 지 않
다.¹⁾ 19 9년 10월 16일 오전 10시, 19 5년 이후 한 의 데모도 일어나지 않아 유
신대학이라 조 았던 부산대학에서 학생들이 데모를 시작했다. (꽤의 반복) 음
명에 지나지 않았던 학생들은 경 들이 대학구내로 그차를 세우고
하자 세 수 명으로 붙어났다. 그리고 오랜 가 으로 말 던 저수지에 폭우가 아
이 가 차면 자연히 을 어 학생들은 학교 장을 어 부산 시
내 도심지로 아 들어 다. 그 식을 고 시내에서 가까운 동아대학과 고려신학
대학의 학생들까지 세해 시내에서는 경 과 학생들의 고 기는 바 질이 계속
되었다. 경 은 늘 그 이 루 과 봉으로 학생들을 제압하려 하였으나, 학생들
은 경 이 아오면 거 이어 목 로 어졌다 경 이 다른 곳으로 가면
다시 도로로 밀려 나 다. 거의 이 년 만에 음 보는 이 회 한 경기를 지켜
보던 거리의 시민들은 압도적으로 학생들을 원했고, 그 중 다수는 학생들과 시
위에 여했다. 그리하여 수만 명으로 붙어 시위대는 부산시내 중심가를 결
독재타도와 유신철폐를 다. 그것은 유신 에 대한 반대는 이고 정
이나 폐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일을 보도하는 것조차 지했던 긴급

조치 9호 아래서 상상할 수 없었던 저항의 목 리였다. 그 구호 사이로 국가와 선구자와 우리의 원 같은 래들이 이어졌다. 박한 래였으나, 또한 모두가 부를 수 있는 래였다. 부산대 학생들은 “치 학문의 자유, 이곳이 우리들의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로 끝나는 교가를 부 시울을 다. 그것은 학생들 자신이 언제부 인가 “치 음주의 자유, 이곳이 우리들의 부산대학교”로 자조적으로 사 하여 부 던 바로 그 래였다. 지된 자유를 되찾기 위해 자기를 고 저항 으로 그들은 한 음주의 자유가 아 라 학문의 자유에 당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그 게 목이 지게 독재타도를 치면서 기는 동 하루가 저 어, 시위대도 경 도 지 시위는 강상 에 이른 것 보였다. 그러자 경 은 수의 력만 겨 철수하고 학생들 역시 이제 아가는 것 보였다. 그 데 동 부 극장 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 은이들에게 일일이 음 수를 라주자 연 그들이 일어나 국가 를 부 더 , 을 은 다시 구호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치 음 다시 의 시위가 대규모로 그리고 더 하게 시작되었다. 이제 시위대는 히 구호를 치면서 이리저리 지 않았다. 수만 명 시위대가 마치 리 시민들이 바 유 감 을 했 이 부산 시 을 해 나아가자 경 은 보다 더 광 하게 시위대를 했다. 그것이 시위대의 에 기 을 었다. 그들은 먼저 지 까지 거짓과 보도를 일 아 동양방 차 에게 이를 던지더 , 이어서 동 를 시작으로 들을 하고 괴했다. 이 저 에만 11곳 가 괴되었다.

이 게 시작된 부마항쟁은 1 일에도 이어졌다. 이 은 교 이 내 부산대학교와 는 달리 정상수업이 이루어 동아대학교에서 먼저 학생들이 를 지어 아 내려 다. 그러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위를 이 것은 학생들이 아 라 시민들이었다. 이 의 시위는 전 보다 더 하여 시민들은 세무서와 방 국을 하고 역시 를 했다. 그로 인해 이 모두 21 의 가 되거나 불 으 기독교방 국을 제 한 모 언 사가 시위대의 을 았다.

박정희는 18일 0시를 기해 부산지역에 게 을 선 했다. 다음 부산의 주요 거리 에는 5 에 한 사 군인들이 을 들고 지키고 있었다.²⁾ 산발적인 저항이 있었

으나, 그 저항이 음을 뛰어 지는 못했으 , 부산은 다시 강요된 속으로 들었다. 하지만 같은 마산의 학생들이 시위의 바 을 이어 았다. 경 대와 마산 대 학생들이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치 시위하자 3·15의거의 도시 마산 시민들은 히 그에 호 했다. 시위대는 이 에도 를 괴하고, 경 서와 시 세무 서 그리고 방 국들을 했다. 마산의 시위는 음부 한 양상을 었는데, 19 일 정부는 원의 39사 속 1 대대와 부산에서 보 수부대 1 여 으로 시 위를 압하려 하였으나 시민들은 굴하지 않고 항쟁을 이어 다. 급기 20일 정오를 기해 박정희는 마산과 원에 위수 을 내리고 다시 를 세운 수부대를 투 해 시위를 강경 압했다.

부산에서 마산으로 16일에서 20일까지 이어 이른바 부마항쟁은 이 게 끝이 났 다. 하지만 아 에필로그가 아 있었다. 4·19 이후 아 5·16으로 권력을 찬 한 음 맞는 로운 봉기에 면해 박정희는 어 식으로 대 을 생 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이 로 전제군주가 되어 독재자에게 타자적인 것에 리적으 로 대 할 수 있는 력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박정희는 부마항쟁의 수습 을 의하기 위해 부하들과 한 술자리에서 다음에 같은 일이 어지면 로 발 명 을 내리겠다고 대군주답게 호언했다. 그 간 동 했던 당시 중 정보 부장이었던 재규는 으로 나와 을 들고 들어와 박정희를 해 방아 를 당 다. 이로 광기의 시대가 을 내 다. 대 이것이 우리가 거 게 요약해본 부마항쟁의 전말이다.

2. 물음

부마항쟁은 한 시대를 끝내고 로운 시대를 연 사 이었다. 4·19를 해 이승만

의 독재가 을 내 이, 부마항쟁을 해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말을 고했다. 하지만 그 지 않다 하더라도 부마항쟁의 의의와 중요성이 반감되는 것은 아 다. 중요한 것은 부마항쟁이 그 자체로서 어 성과를 았 하는 것이 아 다. 다시 말해 박정희가 을 당한 것이 부마항쟁의 적인 결과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일 이 아 다. 박정희가 재규의 에 그 게 지 않았더라도 일 부마항쟁이 일어 만 저항은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이 , 어 식으로 유신체제는 말을 맞거나 아 면 본적인 변화를 아래로부 강요당했을 것이다. 명한 것은 독재권력에 대한 본 적인 민중적 저항의 발이 부마항쟁이었다는 것이다. 부마항쟁은 다음해 광주 5·18로 이어지고 8년 전국적으로 6월항쟁으로 매듭지어지는 항쟁의 역사에 서 이지를 장식한다. 6월항쟁을 민주화를 이 시민혁명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부마항쟁은 그 혁명의 시원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 려 사 에 대해 게 그것이 무 이 는 음을 던지는 것은 그 시원으로 아가기 위해서이다. 그 때 다시 시작하기 위해 과연 30년 전에 하나의 역사가 어 게 시작되었는지를 으려 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부마항쟁이 무 인가라는 음은 다시 어 하는 까 은 히 오늘 우리의 장에서 그 사 을 회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만은 아 다. 도리어 이 음이 다시 어 하는 까 은 오늘에 이 도 이 음이 전히 대답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아 어 면 이 음은 대답되지 않았을 만 아 라 전히 어지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위에서 거 게 요약했 이 우리는 부마항쟁이라는 이 아래 되는 사 들을 고 있다. 하지만 어 사 에 속하는 의 사 들이 그 사 이 무 인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오 그 여러 사 들이 하나의 원리로부 이해 때 에만 비로 우리는 그것이 무 인지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원리 여 러 차원에서 이해된다. 먼저 부마항쟁이라는 사 자체가 어 의 로 고유성과 정 체성을 지닌 하나의 사 으로 이해되어 하 , 다음으로 그 사 이 역사의 체성 속 에서 규정 수 있어 하고, 마지 으로 오늘 나 또는 우리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해 수 있어 한다. 그 때 우리는 비로 하나의 역사적 사 으로서 부마항쟁의

의 또는 을 전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것들은 사 자체가 말해주지는 않는 것이 , 러 사 에 감 어 사 의 을 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이 게 을 는 것은 한 사변을 위한 것이 아 라, 사 자체를 전혀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사 자체가 러내지 않는 사 의 을 기 위해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 해명해 할 과제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어 게 박정희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가 했는가 둘째 그 사 이 부산에서 시작되었는가 셋째 그 사 이 졌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세 음을 다시 하나의 지 속에서 매 할 수 있어 할 것이다.

먼저 첫째 음에 관해서 보자면, 생 하기에 라서는 이 음 자체가 무의 한 것 보인다. 부마항쟁은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저항해서 일어났던 봉기였으 박정희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었던 것은 동어반복 당연하고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부마항쟁이 박정희와 모 대당관계 또는 상호부정관계에 있다는 것이 말로 부마항쟁만이 지 고 있는 고유한 의 이다. 이것은 우리가 부마항쟁을 광주항쟁과 비교하면 명히 수 있다. 광주항쟁과 모 대당관계에 있는 것은 전두환과 신군부 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5·18을 긍정하면 전두환은 부정 수 에 없는 것이 , 반대로 군가 전두환을 긍정한다면, 5·18을 부정 수 에 없다. 그러나 5·18은 박정희와의 관계에서는 적인 모 대당관계에 있지 않다. 이는 6월항쟁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5·18이나 6월항쟁을 해서는 박정희를 정면으로 부정할 수 있는 점을 보할 수 없다. 그리하여 만약 우리가 5·18과 6월항쟁만을 기억하고 기 하면서 부마항쟁을 어 다면, 박정희를 필연적으로 부정해 만 할 까 을 어 리게 된다. 그리고 제로 이것이 오늘 박정희가 다시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 우리가 부마항쟁을 지 않을 때에만 우리는 박정희가 부정되어 하는지를 명 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부정되어 했는가 우리가 이 음을 지하게 지 않으면

되는 까 은 그가 지 까지 한국의 역대 대 들 가운데서 가장 한 대 으
 로서 되는 인 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만약 우리가 이 음에 대해 지하고도
 력 있는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부마항쟁이 가장 한 지도자의 위대 을
 아보지 못하고 그에 반항했던 철없는 학생들과 폭도들의 동에 지나지 않았다고
 가된다 하더라도 아무 항변할 말이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일이 지 제로 부산에
 서 일어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부마항쟁을 긍정한다면 박정희는 부정 수 에 없
 다. 반대로 우리가 박정희를 긍정한다면, 부마항쟁은 부정되어 할 역사일 것이다. 그
 러 로 부마항쟁의 의 를 전히 이해하고 그 가치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부정
 했던 박정희체제의 정체가 무 인지를 먼저 고 그것이 부정되어 만 했는가를 해
 명하지 않으면 된다.

더 나아가 부마항쟁과 박정희의 대 을 러내 하는 까 은 그 대 이 우리 역사
 에서 반복되는 어 본적인 대 이기 때문이다. 그 대 은 박정희가 권력을 찬 하
 기 전부 한국사를 규정해 으 지 도 계속되고 있는 대 이다. 이 대 에서
 박정희는 한 대 향이 인 적으로 체화된 것과 같다. 우리 역사에서 박정희는 역
 사적 인 일 만 아 라 보 화되고 이 화된 존재로서 적 의 의 이상()인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오늘 한국사회에서 가장 지 적인 이상이다.(중권, 2003,
 341) 이를 면 이인제 가 대 후보 시 박정희를 기 위해 (주관적으로) 고
 다 다는 것은 러 일이거 와, 현재 대 인 이명박 또한 관적으로 박정
 희의 복제 인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마항쟁 역시 히 일회적인 사 이 아 라 전부 반복
 되어 박정희라는 이상에 대항하는 대 적 이 의 나타 이다. 박정희가 히 이른
 바 발독재 시대의 대 이 아 라 그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적
 이 을 표상하는 존재라면, 박정희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서 부마항쟁 역시 히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한 일어났다 끝 적 사 이 아 라 지 도 여전히 이
 어지는 대항이 의 가장 수한 표 인 것이다. 그러 로 우리가 부마항쟁과 박정희의

대 을 해명하는 것은 부마항쟁을 우리 역사의 어 체성으로부 해명한다는 것을 의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역사적 사 의 을 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역사 의 체성으로부 이해해 할 만 아 라 동시에 그 사 의 고유성으로부 도 이해 할 수 있어 만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어 할 것이 바로 두 짜 질문, 하 필 그 일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지 까지 부마항 쟁에 관해 적 사 들 사이의 인과관계만을 고 하는 역사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을 가장 괴 음이었을 것이다. 하면 유신체제 하에서 부산과 마산의 대학생 들은 부마항쟁 대규모 반독재투쟁의 불 을 우기 전반적으로 무도 조 했기 때문이다. 오 하면 당시 부산대학은 유신대학이라 불 으 , 경 대학에서는 유신찬 성데모까지 일어

반대로 우리가 이 음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면 부마항쟁이 지 가는 것을 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무 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박정희의 에 저항할 수 있는 역사적 점을 어 다는 것을 의 한다. 같은 것을 이 게 말해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사 들이 부마항쟁을 더 이상 기억하 지 않는 까 은 그들이 박정희를 하기 때문이다. 박정희와 부마항쟁은 모 대당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를 긍정하면 반 시 다른 것을 부정할 수 에 없다. 그 다면 우리 시대에 박정희는 다시 살고 부마항쟁은 것일까 부마항쟁의 을 생 하는 것은 마지 으로 이 음에 대답하는 것을 의 한다. 만약 우리가 이 음에 대답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다시 부마항쟁의 정신을 되살리고 이어가는 을 받 할 수도 있을 것이 , 그 을 라 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은 그 시작을 위한 회 이 , 이다.

3. 국가의 내적 모순과 식민지 백성의 곤경

우리의 쟁 과제는 박정희와 부마항쟁 사이의 모 대 의 본질을 러내는 일 이다. 식 리적으로 보자면 모 이 하나의 주어에 대해 서로 존할 수 없이 대 하는 술어가 속할 때 발생한다. 박정희와 부마항쟁의 모 대 에서 하나의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 국가이다. 박정희와 부마항쟁이 국가에 대한 모 된 두 가지 술어이 다. 그 술어들은 현 속에서는 으로 나타 다. 국가가 사 적 성체가 아 라 인 적 동체인 한에서, 그 은 본에서 보자면 적 의지이다. 그 의지가 적 으로 표상 때 그것이 국가의 이 이다. 그러 로 국가를 둘러 모 은 본에서 보 자면 이 과 이 의 이 의지와 의지의 인 것이다. 이는 부마항쟁과 박정희 의 모 대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 로 부마항쟁과 박정희 사이의 모 대 을 해명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국가가 무 이 , 무 때문에 국가의 으로부터 모 대 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를 어 한다.

그 다면 국가는 무 인가 아리 에 면, “국가는 자 적이지만 예상 는 자 적이지 않다.”(정치학, 1291 10) 여기서 아리 는 서양에서 가장 오래 원적인 국가이해를 정식화하는데, 그에 면 국가의 본질은 자 성이다. 자 성의 의 는 두 가지이다. 한 에서 그것은 예상 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자유를 의 한다. 이 장에 라 여기서 그는 국가를 예상 와 대 시 다. 예상 의 국가는 국가일 수 없으 예들의 동체 역시 국가일 수 없다. 국가는 오로지 자유인들의 동체로서 그 자신 자유로운 한에서만 국가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의 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군대이다. 하지만 자 성은 예상 의 반대말인 것 또한 결 상 의 반대이기도 하다. 이 의 에서 자 성이 인간의 을 위해 필요한 모 도구적 재화의 조달을 해 현된다. 국가는 이 의 의 자 성을 현 하기 위해 부와 기술자와 상인과 체 동자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과연 저 두 가지 의 의 자 성이 양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이 아리 자신에게서부 문제가 되었다. 예상 가 아닌 자유는 동적이고 자발적 인 동에 존 하는 것이지만, 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동은 밀하게 말하자면 자연적 필연성에 의해 강제된 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 산 다는 것, 또는 을 고 을 지어 위와 더위를 해 한다는 것이 생존을 위해 어 수 없는 일인 한에서, 그 것들을 위한 동은 강제된 동, 수동적 동인 것이다.

인으로서 국가로서 인간의 에는 본질적으로 동성과 수동성이 속한다. 인간은 자유 고 동적인 을 구하지만 생존의 필연성에 의해 강제된 수동성 역시 우리가 할 수 없이 떠 아 하는 의 일부이다. 그 데 수동성과 동성은 그 자체로서는 양 할 수 없는 대 이 , 그 둘이 인간의 에 속한다는 것으로부 모 이 일어 다. 그리고 이 모 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방식이 국가의 상이한 를 는다.

고대 그리 국가들은 자유인들이 이 모 을 어 식으로 해결했는지 그 전 을 보 여 다. 자유를 이 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인간존재의 수동성을 타자에게 전가시 으로 수동성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수동성에 매인 존재 그들이 예이다. 그들은 타인의 강제에 수동적으로 떠밀려 타인의 수동성을 떠 은 존재이다. 그들의 동은 오로지 수동성을 시키기 위해 수동적으로 강제된 동이다. 그 게 자신의 수동성 을 타인에게 전가시 에 자유인들은 수한 동성으로서의 자유를 로 유하려 한다. 아리 는 이 의 에서 국가를 수한 자유인들의 동체로서 유지하 기 위해 그 게 수동적 동에 사하는 사 들을 시민에서 제하고 어 했다.(정치 학, 12 33 아래) 국가를 위해서는 수한 자유인 이 에 수동적 동에 사하 는 사 들이 반 시 있어 만 한다. 그러나 아리 는 “국가를 위해 없어서는 사 들을 모두 시민으로 을 수는 없다”고(같은 , 12 8 2) 생 했다. 그리하 여 오늘 로 말하자면 동자들은 국가를 위해 반 시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자유와 시 민권은 지 못한 예상 에 이게 되고, 자유로운 시민들은 자신들의 수동성을 모두 예에게 전가시 로 수한 자유를 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고대 예제 사회의 본질이다. 하지만 그 다면 가 한 나라 에서 예 가 되는가 그리 와 로마인들의 사회에서 예는 원 적으로 이방인이었다. 원적으 로 보자면 전쟁 로로 러 자들이 예였던 것이다. 그리 까 이방인을 예로 아 자기들의 자유를 지 것이 유 의 정치적 전 이었다. 이 원 이 현 속에 서 언제나 동일하게 관철된 것은 아 다. 먼저 그것은 유 사회가 로마에 의해 하 나의 제국으로 되면서 굴 을 게 된다. 그 이후 중세와 대 기에 이 기까지 유 인들 역시 어 수 없이 동성과 수동성을 내재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예 동을 자기 내부의 약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자기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타자에게 존재의 수동성을 전가시키는 것은 서양나라들의 요한 정 치적 전 으로서, 제국주의적 은 그 전 이 대적 로 부 한 것이다.

한국인은 바로 그 제국주의적 으로 예상 로 전 한 상 에서 대국가를

음으로 경 하게 된다. 우리에게 국가의 시원적 체 이 식민지 예상 에서 시작 되었던 것이다. 예로서의 , 의로서의 이 말로 우리의 대적 의 발이었 으 , 우리의 대적 국가는 식민지 국가에서 시작되었다. 그 데 국가 일반이 본질적 으로 내 하는 동성과 수동성 사이의 모 대 을 자유인은 수동성을 타자에게 전가 으로 지양하지만, 전면적인 수동성 속에 사로 식민지 성은 그 식으로 의 내적 모 을 해 하지 못한다. 도리어 그들은 수동성 속에서 자유를 기하고 지 아 면 자유를 위해 생존을 기하는 것 사이에서 이 수도 저 수도 없는 경에 하게 된다. 그들은 목 을 고 자유를 위해 투쟁하거나 아 면 수동성 속 에서 생존을 선 해 하는 상 에 이는 것이다.

자유인들은 존재의 수동성을 타자에게 전가 으로 자신은 수한 동성 속에 무 거나, 아 면 자유의지 아래 의 필연성을 으로 자유와 필연성의 대 을 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음부 필연성의 예로서 존재하는 식민지 인민들은 존재 하기 위해서는 수한 수동성을 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그들이 동적 주체로서 자기를 일으키는 간 그들에 음이 있을 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수동적 과 동적 음 사이에서 양자 일을 해 한다는 것, 이것이 말로 식민지 민 의 경 이다.

자유인이 수한 동성을 의식할 때 그가 는 것이 긍지이다. 그것은 필연성을 극복한 정신의 자기긍정의 감정인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예가 자신이 한 경을 인식할 때 그가 는 것은 만해가 당신을 보았습 다에서 표현했 이 “에게 대한 ”과 “ 로의 ”이다.(한 운, 1996, 49) 그 의 내 은 다른 무 보다 부 러움으로 나타 다. 그것은 필연성에 굴복할 수 에 없는 정신의 자기비하의 감정이다. 우리는 식민지 시대 이 나라 시인들의 시에서 그 자기비하의 본 정조를 어 서나 어 지 않게 찾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마 가장 선명한 표현은 서정주 의 그 유명한 시 자화상일 것이다.

애비는 종이였다. 밤이 기퍼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 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짙은 애미의 아들.
 갑오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도라오지 않는다 하는 외
 할아버지의 숯많은 머리털과
 그 크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스물새햇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 하드라
 어떤이는 내눈에서 죄인을 읽고가고
 어떤이는 내입에서 천치를 읽고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란다.

찰란히 티워오는 어느아침에도
 이마우에 언친 시의 이슬에는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서꺼있어
 이거나 그늘이거나 햇바닥 느러트린
 병든 수캐만양 혈덕어리며 나는 왔다.(서정주)

여기서 시인은 자기가 의 아들 을 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히 인사를 말
 하는 것은 아 었을 것이다. 그 시대 이 의 모 사 들이 나 할 것 없이 이민
 의 예였기 때문이다. 그 그가 말하는 부 러움 역시 그 자신 만 아 라 우리
 모두의 것이었다. 더러는 시인의 할아 지 오년에 동학 민군으로 봉기했다
 꽤 하여 서 해 에 어 있는 으로 어들어가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끝내 살아
 서 아오지 못했다. 시인은 그 할아 지를 았지만, 할아 지 봉기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살아 있는 한 그에 인으로, 치료 살아 수 에 없는 예
 의 을 벗어 수 있는 은 없으 그 의 끝에서 이 시인이 동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우치지 않으리라는 결 이었다. 밀하게 말하자면 우
 은 오로지 자유인에게만 가 한 도 적 정 이다. 구도 자유 지 못한 상 에서 강
 제적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 도 적인 을 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
 일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부 러 할 일도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부 러

움도 우 도 벗어 시인은 이제 시의 찬 한 빛 속에서 구원을 으려 한다. 하지만 부 러움과 우 을 도 수 언제나 자국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예적 의 비극이다.

하지만 모두가 그 게 부 러움을 것은 아 었다. 같은 시대, “ 는 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 이 없기를” 바 던 동주는 끝까지 그 부 러움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러다 본 “하늘은 부 게 ” 고(, 동주, 1999, 11), 을 우는 도 “부 러운 이 을 하는 까 ”(는 , 동주, 1999, 119)이었다. 서정주는 그 부 러움을 시로 으려 하였으나, 동주의 경우에는 그조차 가 한 일 이 아 었다. 하면 “인생은 살기 어 다는데 시가 이 게 쉽게 어지는 것은 부 러운 일”이었기(쉽게 어 시, 동주, 1999, 125) 때문이다. 그러 시를 는 것조차 그에 부 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부 러움을 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로운 에 대한 의지를 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다. 자유인만이 부 러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식민지 에에게 되는 일은 아 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후쿠오 의 무 에서 을 마감할 수 에 없었다.

4. 박정희의 독재와 국가의 내적 모순

우리의 불 은 해방이 된 에도 식민지 시대의 정신적 경으로부 벗어 수 없 었다는 데 있다. 그 경의 내 은 화했다. 하지만 해방이 된 에도 한국인들이 전히 식민지 시대와 다 없이 자유 긴 살아 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정신적 경이 이어졌던 것이다. 히 박정희는 자유 없는 독재국가를 성하고 이를 해 지 까지도 이어지는 해방 후 대한민국이 나라의 어 본질적인 내적 모 을 정 한 사 이다.

그 모 의 시원은 박정희가 아 다. 이켜보면 이 수 년 동 이 에서

국가는 모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극수지 계급에 의해 사사로이 점유된 수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수의지 계급이 국가 구성원 대다수를 예상에 어둡고로 국가의 주인을 해 것이 이 나라의 역사였던 것이다. 이 사정은 해방이 된에도 전 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다수 국민을 예화하려는 국가 권력과 그에 저항하는 민중이 지속적으로 서로 대하고 하면서 어 역사가 한국의 현대사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은 끊임 없이 자기를 대화하려 하고 민중은 그에 맞서 자기를 자유게 해방하려 하는데, 박정희는 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성적으로 자기의 대 권력을 구 했던 독재자였다. 그의 권기간 동안 국가권력은 음 쿠데타에 의해 시민 권력으로부터 찬 된 이래 3선 과 유신독재 그리고 그도 모자라 긴급조치 등을 해 점점 더 극 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된 권력이 되어 다. 그리하여 박정희 치 말기에 이 면 국가권력은 조 폭력과 하등 다를 것이 없이 되었던 것이다.

그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를 지지하는 이 있었고 이를 해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고히 할 수 있었다. 히 쿠데타 후 그리고 60년대에 그는 비교적 보 혁적인 사 들에게도 광 위한 지지를 기까지 했다. 그가 음 쿠데타를 일으 을 때, 그의 정체를 어보고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비 한 사 은 이 의 모 지식인 가운데서 오 한 사 에 없었다. 대다수 학생과 지식인들은 민주당정권의 부패와 무 에 을 군인들이 그들을 권 에서 방한 것을 차라리 속 시원히 여 기 때문이다. 그것은 박정희에 운이었다. 하면 이로 그는 아무 저어 없이 폭력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이를 해 선거에서 승리하여 대 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그의 치의 역사는 점차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대화해나가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위 기는 했으나 언제나 대중들로부터 무시하지 못할 지지를 어냈으 ,3) 사 한지 수 년이 지 오늘 에도 압도적 차이로 가장전고전선수방사늘늘다강전다전

#;

대 으로 아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똑같은 국가폭력이라도 식민지 국가폭력과 박정희의 국가폭력이 구 되는 지점이다. 치호 같은 일 조차 일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이 없었기 때문에 어 수 없이 굴 했던 것이다.⁴⁾ 그 이 식민지 권력에 하는 것은 이 의 대다수 인민들에게는 어 수 없는 굴이었을 이다. 하지만 박정희의 경우는 달 다. 게다가 그는 이승만 세를 등에 업고 권력의 정상에 오른 사 도 아 었다. 그는 주도면밀하게 하여 제 으로 국가권력을 찬 하고 그 이후에도 언제나 세가 아 라 자기중심적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사했다. 그러 로 은 사 들이 그를 민 주의자라고 한 것도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 다. 또한 그는 무 을 해 대중을 하고 무 을 해 박하 무 을 해 지지를 이 어 지 히 이해하고 있었던 게 월한 마키아 리적 인간이었다. 그리고 박에 의해서 에 의해서 제로 그는 어 정도의 지지를 어냈으 , 지 은 다시 압도적인 지지를 고 있다. 그러 로 박정희는 우리 자신의 정신적 으로부터 생겨 지속적 구의 현 이다.(중 권, 2003, 340 아래)

그 다면 우리 속의 어 이 박정희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던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사회과학자들 게 자를 가지고 이 음에 대답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박정희를 일관되게 지지했고 그의 요 에 라 국민교 장을 기 했으 말년에는 대 보 관을 지냈던 철학자 박 이 긴 을 해 어 구가 박정희를 앓 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원한 것은 한 마 로 말하자면 이었다. “ 는 의 이 ”(전 , 410), “현 적인 ”(전 , 131, 368)이 말로 그가 식민지 시대부 시 작해 을 마 때까지 늘 가 에 고 있었던 구의 대상이었다. 이 없어 고 았으 을 러 한다는 것이 말로 박정희를 지지한 사 들이 었던 된 이었다.

하지만 박정희에 대한 이 식의 감은 지 그에게 부여했던 일부 지식인이나 조 제 같은 극우인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 다. 본질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오늘 대다수 한국인들이 유하는 정서이기도 하다. 보적인 사 들조차 박정희 시대를 발독재시대라 규정한다. 이 규정 속에는 그가 발을 위해 독재를 했다는 선이해가 감 어 있다. 발을 위해 반 시 독재가 필요했던 것은 아 로 그가 독재를 했다는 것은 과오에 속하겠지만, 적어도 발을 하려 했다는 그 선의 자체는 인정할만 하다거나 그 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 에서 독재적 지 가 불가 했다는 것이 은 자들의 가이다.⁵⁾ 더러는 유신 이전과 이후를 구 하면서 유신 이전의 박정희는 긍정적이지만 이후의 박정희는 부정적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 들도 있다. 이 은 “한국의 박정희 발독재체제는 전례가 없는 은 아 국가민 주의 이 으로 무장한 선산업화 후민주화의 패권국 라 기 모 이라는 점에 서 비 마 의 독일, 이지 일본을 전 으로 하는 19세기 후발 발독재의 아들이” 라고(이 , 2003, 61) 주장한다.

이 경제를 성장시 다는 이유로 이 박정희의 독재를 두 하기 시작하면 세 상에 비 을 독재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모 독재자들은 자유를 억압하는 대신 언 제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게 마 이다. 하면 그것만이 그들 권력에 정당 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은 “독재만 하고 경제성장을 못 이 독재자가 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에서와 같은 극적인 성장을 이 한 일은 더 이나 다는 점에 서” 박정희의 을 인정해 한다고 주장하지만,(, 2005, 293) 이는 그다지 당 한 주장은 아 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무 게나 국경선을 그어 만 그 국가가 아 라, 대적 국민국가 또는 민 국가로서 한의 역사적 리와 국가적 정체성을 지 닌 나라치고 독재자가 등장해 경제발전을 시키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 의 이광요, 대만의 장 , 이 의 비, 의 체 , 아 나의

에리, 인의 량,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오늘 러시아의 푸틴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와 독재정치가 결합한 나라에서 경제가 후퇴하거나 정체에 이른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예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나라의 독재자들과는 달리 가봉의 봉고나 우간다의 이디아민이 경제발전에 열을 세우지 못한 까닭이 한 가지 있다면, 독재자들 자신의 유과무과를 자기보다는 나라의 역사와 자연환경 그리고 국민의 교수과 교문화 등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더 과학적인 도일 것이다.

하지만 밀하게 말하자면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은 사들이 독재의 이마치 자명한 인 것 한 가지 으로 지만, 독재정치는 한 가지 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 독재가 나 것도 아니다. 그것은 고대 로마의 화정 시대에 적인 독재관 제도가 있었던 것만 보아도 수 있다. 일인독재 또는 일당독재 자체가 무조 나 일이라 할 수 없는 까 은 구를 위한 독재 에 라 가가 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면 고대 그리 의 주들 가운데 다수는 기 민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부유 의 과두적 지 를 철폐했다. 그들의 독재는 민중을 위한 독재였으 , 아 의 경우 급 적 민주주의를 위한 발 이 되기도 했다. 이는 오늘 수 라의 차 의 경우나 호치민 또는 일 의 산당 지 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서, 어 경우에도 히 지 체제가 일인지 또는 일당지 라 해서 그것이 무조 나 다는 등식은 성 되지 않는다. 문제는 한 사 이 지 하 여 이 지 하 아 면 모두가 지 하 , 나라가 모두를 위해 적으로 운 되는 화국이 아 하는 것인데, 일인지 체제라 해서 화적으로 치되지 말라는 은 어 예도 없다. 도리어 는 된 화국은 오 한 사 이 지 하는 군주국가에서만 가 하다고 생 했던 것이다.(, 구 화)

그러 로 우리는 박정희 체제가 일인지 체제였다는 것을 두 할 필요도, 비 할 필요도 없다. 그가 일인 독재를 했 아 가 아 라 그가 무 을 위해 그리고 구 를 위해 장기 권을 했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이다. 다시 말해 그의 치가 정한 에 라 모두의 을 위해 (화적으로) 이루어졌 아 면 자기와

수의 지 세력의 이 을 위해 적, 폭력적으로 이루어졌 하는 것만이 문제인 것이다. 만약 그의 치가 모두를 위한 것이었고 모두에게 정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를 독재자라고 비 할 까 이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만약 그의 치가 차 의 경우 다수의 민중에게 호의적이고, 이 의 기 권자들에게 도리어 억압적인 것이었다면, 마치 은 사 들이 차 의 대중독재를 긍정적으로 가하 이 우리 또한 박정희의 치를 긍정적으로 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식의 가정이 부질없다는 것은 박정희의 치를 두 하는 사 이라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에 없을 것이다. 박정희는 모두를 위해 치한 적이 없었다. 그는 음부 오 자기 자신을 위해 대 권력을 구했다. 다시 말해 그가 구했던 것은 박 이 그 해마지 않았던 수하고도 대적인 그 자체였다. 하지만 산된 은 이 아 다. 오 모 이 자기에게 속하는 한에서만 그것은 수하고 대적인 것이다. 그 까 에 권 기부 그는 어 경쟁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당은 이고 여당 내에서조차 어 반대자도 하지 않았다. 19 1년 성 을 비 한 화당 국회의원들의 항명 동에서 보 , 그는 자기에게 반대하거나 항거하는 것에 대해 오 잔 한 폭력으로 답했다.

이 그에게 권력의 본질은 정의나 성이 아 라 오 , 폭력이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중 정보부를 만 일이었다는 것은 그가 음부 이 아 라 음모와 폭력으로 치하려 했다는 것을 명한다. 만약 그가 음이라 어 수 없이 그래 만 했다면, 그의 치가 로 수 자유로 졌을 것이지만, 우리가 고 있 이 그의 치는 수 적이 되었 고 수 폭력적이 되었을 이다.

하지만 루 가 말했 이(사회계약) 구도 자기 자 모두를 지 할 수 있을 만 강할 수는 없으 로, 그 역시 그의 지지자들이 그를 지지하고 지 해주는 한에서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 까 에 그는 경쟁자를 하지

않는 대신 그의 권력기반이 되는 군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성했다. 만약 그가 300년 전에 어났더라면 그것으로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거를 해 권력을 승인 아 했으 로 정치자 을 마 하지 않으면 되었다. 하지만 군인은 을 비할 지는 못한다. 그러 로 음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약 하는 것 에 없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약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본가들과 결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대권력자로서 재 기업에 를 주고 그들에게서 필요한 것 을 어냈다. 이 게 군대와 자본을 장악한 에 나 지 은 때로는 으로 때로는 주 으로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박정희의 치였다.

이것이 전부는 아 다. 그는 히 에 을 이기 위해 권력을 했던 부 의 인간도 아 고, 재 에게 를 주고 이나 아 기는 달도 아 었다. 그가 수하고 대적인 권력을 구했던 까 은 다시 박 이 구했던 대로 현 을 조하기 위해서였다.(박) 보다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박정희는 한 마키 아 리적 인간이었을 만 아 라 체적 인이기도 했다. 그는 마치 예술가 정 력적으로 자기의 국가를 동적으로 성하고 조했다. 그는 산에 나무를 심고 도로 를 고 항만을 하고 과 원자력 발전 를 짓고 정유 장, 철강 장을 세우고 마 지 에는 무기까지 만들려 했다. 이 일들은 그 시 에는 모두 기업이 할 수 없고 오 국가적 계 에 라서만 현 수 있었던 것들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 었다. 그는 국가를 조하 국민을 조하려 했다. 그는 군인이 되기 전에 교사였다. 이 68년에 그는 국민교 장을 만들어 모 한국인에게 “민 중 의 역사적 사명”을 부여하려 했다. 그것은 박정희의 인적 광기가 어 까지 는지를 보여주는 거이다. 사명이 어 경우에도 적으로 명 수 없는 의 을 표현하는 말로서 오 인의 내면성에 속하는 일이다. 본질적으로 말 하자면 그것은 의 교적 차원에 속하는 일인 것이다. 그가 민 중 의 사명을 국민에게 주 하려 했다는 것은 그가 국가 교의 교주로 등극했다는 것을 의 한다. 그것은 적으로 광기라고 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대적 군인으로

서 모두를 자기의 명 아래 지 하려 하면서 동시에 대적 교사로서 모두의 내면을
제하려 하였다. 그가 부여한 내면적 사명과 면적 에 라 당시 모 국민은
한 으로는 감한 군인이 되어 했고 다른 으로는 면한 동자가 되어 했다.
학생은 교 , 업하면 군대, 제대하면 예비군, 그 민방위까지 전 국민이 사가
되었고 전국가가 이 되었다. 오후 다 시 나라에 국가가 올리면, 가던
사 들은 모두 부동자세로 서서 국기에 예를 표해 했다. 나라가 이었고 어
서나 마을운동이었다. 예비군이 가사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것이
로운 인간의 전 이었다.

그 폭력적인 조의 광기는 지 국가 만 아 라 모 국민을 조의 대상으로 사
화 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국민 대중의 구와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그 모 폭력과 광기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언제나 자신의
과 조적 위가 국가와 민 을 위한 것이라고 장했고 이를 해 언제나 일정한 지
지를 어 수 있었다. 그리하여 박정희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라는 상반된 가가 언
제나 존하게 되는데, 이것은 히 한 인이나 체제에 대한 주관적인 호불호의 표
현이 아 라 박정희가 당대에 정 하고 후세에 긴 대한민국이 국가의 어 본질적
인 내적 경의 표현이다.

그 경이 인간의 에 본질적으로 속하는 수동성을 부의 타자가 아 라 내
부의 타자에게 전가하는 국가의 내적 경이다. 이 조시대부 이 나라는 예를
내부에서 정 해 나라이다. 오 동 이 나라는 수의 지 세력이 다수를 예상
에서 하고 지 하는 것이 정치적 전 이 된 나라인 것이다. 이를 해 수의 지
계급 양반계급은 의 수동성을 내부의 타자에게 전가시 자신은 수한
동성 속에 무를 수 있었다. 이 사정은 해방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식적으로
는 민주적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질적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가 아 라 그들
의 나라였던 것이다. 박정희는 여기서 한 음 더 나아가 국가를 전히 자기 인의
사적 점유 로 만들어 다. 이것은 그가 수한 동성의 로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 한다. 이 점에서 그는 국가에 대해 하나의 수한 이상과 원 을 조해 사 이었다. 그것은 박정희라는 인이 로 주권자가 된 국가, 하게 로주체성의 현 가 된 국가였다.

이 로 주체로서 군 하면서 모 타자들을 예측된 체로 으려 할 때 저항 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하면 자유는 인간에게 고유한 가장 본질적인 구이기 때문이다. 그 까 에 그는 권했던 기간 내내 끊 없는 저항에 면해 만 했다. 그 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 들이 언제나 있었던 까 은 그의 치를 해 이 을 는 사 들이 그만 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 이 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해방 후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한 지역 어 에서나 불어 던 우 의 비 내나는 학살극에서 우 에 서서 학살을 자 했던 가해자들이 박 정희의 철저한 반 주의로부 었을 양심의 과 심리적 도 그리고 현 적 전 이다. 우리는 이 점에 관해 4·19가 일어 민간인 학살에 대한 보상문제가

나 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민주화운동기 사업회 연구 , 2008, 2 0 아 래) 그것은 4·19 이후 아래로부 일어 가장 중요한 과거 산운동이었다. 학살극이 다 끝 지 10년도 되지 않은 1960년에 나 해자들의 기세등등한 의 목 리가 가해자들에게 마나 심 한 현 적 위 이었겠는지 작하는 것은 조 도 어려운 일이 아 다. 박정희의 폭력적인 반 주의는 그들에게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해주고 동시에 현 적인 전을 고하게 보장해주는 것이었으 , 우리는 다른 무 보다 이들이 말로 박정희의 치에 대한 무조 적인 지지자들이었으리라 해 도 을 것이다. 박정희가 권기간 내내 결정적인 간에 언제나 보를 내세 정권 의 위기를 하려 했던 것은 까 없는 일이 아 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 이었다면 박정희의 치는 결 지속적인 지지를 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의 치를 지속적으로 가 하게 만들어 또 다른 지지 거는 박정희가 약 속하고 현해주었던 경제적 이 이다. 박정희가 자신의 권력을 고히 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지원했던 군부와 재 그리고 그에 경제적으로 속하는 중간계 은 말할 것

도 없고, 동자들조차 박정희가 약속하는 이 , 조국 대화의 주술로부 자유
지 못했다.⁶⁾ 그리하여 은 사 들이 박정희가 선 과 유신 을 해 적인
독재의 을 는 것을 히 보면서도 그가 약속하는 과 요를 기대하고 기 이
리바이어던적인 대권력 에 자신의 자유와 주체성을 양도했던 것이다.

그 식민지 국가 아래서 이 의 민중에게 주어 내적 경이 자유와 생존 사
이에서의 양자 일이었다면, 박정희가 정 한 국가의 내적 경 내적 대 이 자
유와 이 의 상호 대 이다. 박정희는 국민에게 언제나 박하 이 저 들 사이의 양자
일을 강요했다. 자유와 이 이, 정의와 리가 반 시 대 되는 것은 아 다. 그러나
박정희가 조한 대한민국이 국가에서는 자유와 이 이 결 같이 구 수 없었
다. 박정희는 하나의 국가 를 극 까지 밀어 여 해방 후 오늘 까지 이어지는 대
한민국의 국가체제에 본질적 식을 부여했는데, 그 식에 면 자유와 이 은 결
양 할 수 없는 상호모 적 가치이다.

그 까 은 박정희가 약속하고 현해 경제적 이 과 이 내부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해서 어 여가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제국주의 국가들 다른 민
또는 다른 국가에서 여가치를 약 할 수 없는 후발자본주의국가인 동시에 그 지
않아도 수 지 계급이 다수의 민중을 억압하고 수 하는 것이 치의 습속으로 어
국가의 대 권력자가 선 한 (그리고 어 경제학자들에 면 한국에서 기 자
본주의적 산업화를 위한 본원적 적을 위해서는 불가 하기도 했다고 하는) 경제 발
전 이었다. 하지만 그 게 내부에서 여를 약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 시 억압,
자유 의 억압이 필요하다. 자유의 억압을 보 적인 국가 식으로 정 할 때에만
적으로 국가권력을 동원한 약 이 자 수 있는 것이다. 그러 로 박정희가 조

한 국가에서 이 과 에 여하기 위해서는 반 시 자기의 자유를 기하고 억압의 원리를 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이것이 박정희가 정 한 리바이어던적 국가의 비밀이다. 그것은 자연상 에 있는 등한 인간들 사이의 전쟁상 를 식시키기 위해서가 아 라, 강자가 약자를 적으로 수 하고 하기 위해 한 사 의 주권자 박정희에게 자기의 자유를 양도하고 그 대신 의 이 을 시 로서 는 국가이다. 그리고 이 국가에서 자유와 이 사이에서 양자 일을 할 수 에 없는 것이 말로 국민의 내적 경인 것이다.

5. 부마항쟁과 김영삼

부마항쟁은 이 내적 경이 극 적으로 예화 된 결과 일어 봉기였다. 부마항쟁은 박정희가 상 하는 경제적 이 과 자유의 이 이 한 사 이었던 것이다. 그 데 부마항쟁이 일어나던 해, 박정희 국가의 내적 경을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도 예하게 러 사 이 바로 이었다. 유신 독재 기간 전반적으로 당은 민중에게 아무 희 을 주지 못했다. 대중은 일본에서 치되어 한국으로 아와 가 연 과 투 을 반복하면서 일체의 정치 동을 지당하고 있었고, 제도 당이었던 신민당은 중도 을 내세웠던 이철승과 선명 당의 기치를 내 었던 사이에서 오 가 하고 있었다. 사 상 유신독재가 그리도 강고히 여러 해 동 계속 수 있 었던 것은 당이 아무 투쟁도 하지 않고 방조했기 때문에 가 한 일이었다. 그 시 이 의 재 세력이 그 게 비 한 당에 마나 하고 있었는지 아래의 질의서는 보여 다.

김지하와 이땅의 많은 지식인, 종교인, 청년학생 그리고 당신들의 일부 동료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르짖을 때, 그리하여 감옥으로 끌려갈 때, 이 땅의 제1야당 신민당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금, 체포되고 있는지 당신들은 아는가. 그런데 당신들이 하는 짓은 고작 독재에의 굴종과 타협이 아닌가. 당신들은 독재의 편인가, 민주주의의 편인가. 인권이 외

래품인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절대지상의 가치가 그것을 억압하는 독재체제와 중도통합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도시빈민과 농민과 노동자가 살던 집, 살던 고향, 일하던 작업장으로부터 쫓겨나 울며 거리를 헤맬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가.(김정남, 2005, 299)

그 때 신민당이 중도를 내세운 이철승 재에 의해 인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12월 선에서 이의 유권자들은 신민당에게 표수에서 1.1 퍼센트 정도의 승리를 가져 주었다. 그것은 더 이상 유신 독재에 타 하지 말라는 무언의 요구와도 같았다. 그 후 1989년 3월 1일, 보선과 그리고 88년 12월 정지로 방된 대중이 동의장이 되어 민주주의와 민 일을 위한 국민연 을 발 하고 그 선언문에서 민주정부에 대한 요구를 명 히 표현하였다. 같은 해 5월 30일에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은 방해 작에도 불구하고 이 이철승을 고 재에 당선되었다. 그는 재에 당선되자마자 “ 화당 정권은 이 선에서 국민으로부터 불신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존 할 력도 명 도 없다.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에 정권을 화적으로 이양할 비를 하라”면서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같은 , 303) 생 하면 이 도발은 서 긴급조치 9호 아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의 표현이었다.

은 계속해서 구속인사 방을 요구하고, 일성과의 면 의를 히는가 하면, 월 23일에는 급기 국회본회의 대표질의에서 화적 정권교체의 을 라고 요구했다. 박정희는 했으나 당 재를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하지는 못했다.

사 은 바로 그 가운데 일어 일이었다. 그 해 8월 9일, 가발 장이었던 무역이 장문을 고 기 사에서 잡자던 여 을 내 자 곳 없는 여 들이 마 에 있던 신민당사로 찾아가 성을 시작했다. 그것은 0년대를 이 방당한 동자가 음으로 당 당사를 도 인 동시에 투쟁의 거점으로 선 한 사 이었다. 만약 당시

신민당 재가 박정희 정권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동자들은 결 신민당사에 려와 도움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의 신민당이 대 권력에 맞서 정면으로 대항하는 기를 보였을 때, 비로 동자들은 당을 자기들의 동지로 인정하고 당 당사를 투쟁의 거점으로 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는 이 계 동자가 학생과 교계 만 아 라 당과 연대하는 상 을 인하지 않았
다. 성을 시작한지 이 이 지나기 전에 경 이 신민당사를 했고, 그 와중에서
동자 경 이 졌다. 유신독재 아래 다른 의 저항이 일체 보도되지 못했지
만 이 사 까지 보도를 지할 수는 없었다.

박정희는 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하지는 못하고 그 대신 8월 13일 신민당
내 반대 를 사주하여 재 무정지가 신 을 원에 내게 만들었다. 당시
부산의 국제신문 기자였던 조 제의 회고에 면, “ 은 당할수 게 반발하
는 성 대로 동했다.”(조 제, 200 , 259) 그는 박정희가 을수 굴하지 않고 자기
을 다. 8월 2 일 그는 일당의 양일동 당수와 만나 양당 당을 선언했다. 9월 8
일 서울민사지 은 가 신 을 아들이 신민당 재 무정지가 결정을 내
다. 의 재 은 정지되고 원에 의해 정운 이 재 무대 으로 지명되었
다. 그러자 9월 10일 은 투쟁의 수위를 한 계 더 여 “민주회복을 바라는 모
계 의 국민적 역 을 결하여 국민적 항쟁을 할 것이 , 이 항쟁을 하여 박
정권 타도운동을 할 것 을 선언한다. 또한 여기 박정희 대 의 하 를 강력히 요구
한다”면서(정 , 2005, 299) 박정희와의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위기의식에 사로 박정희는 10월 4일 국회에서 여당 독으로 아에 의 의
원 제명 계를 전 적으로 리했다. 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나를 국회에서
하고 감 에 가 다 해도 민주투쟁을 위한 나의 신과 시국관까지 바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계속적인 투쟁을 선언했다.(같은 , 304아래) 이로 은 긴급조치
9호를 질적으로 무력화시켜 다. 그리고 이를 해 유신체제 역시 말에 이른
것이나 마찬가지로였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는 가장 로운 대중 라마이다. 하지만 유신 시대에는 그
라마를 고 주연 우가 없거나 무대 에 있었다. 그 상 에서 등장한
이라는 정치가는 로운 라마를 이 고 주인 이 되기에 모자 이 없었다.

전 일이 지식인을 은 곳으로 불 다면, 은 당시의 대중과 기 민중들을 투쟁으로 불 던 이었다. 부마항쟁을 발시 던 학생들이 의 국회의원 제명 때문에 봉기를 게 하지 않았던 것은 명하다. 하지만 『전환시대의 리』도 『올의 리』도 지 못한 부산과 마산의 대중들과 동자들이 학생들의 봉기에 적으로 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고 보았던 의 기와 부 이 아 었다면 결 쉽게 일어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는 부마항쟁을 위한 마지 관이었다. 그를 해 동자와 학생과 교계의 연대에 이어 이제 정치권이 결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부마항쟁을 위한 모 조 이 하게 되었던 것이다.

박정희가 대중을 치하고 가 연 하고 또 투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은 히 만적인 폭력어기는 하였으나 표면적으로는 자기의 정적()인 한 인에 대한 박해였다. 그리고 그 박해에 당이 방관적 도를 하는 한에서 그 박해는 성적인 과를 거둘 수도 있었다. 그것은 모 당정치인들에게 무언의 박의 과를 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세하자 상 이 달라졌다. 박정희가 선 할 수 있는 대 은 을 대중 투 하 다른 방식으로 인적으로 리하거나, 아 면 제도나 을 해 당을 제하는 것이었다. 의 방 에 부 을 박정희 는 으로는 을 투 할 수 있다고 박하긴 하였으나, 적인 방식으로 신민당내 반대 를 사주하여 원을 해 재 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 의 의원 을 제명하는 방 을 했다. 그러나 으로는 의 을 이 조치들은 박정희의 국가에서 부와 사 부는 당조차 모두 박정희 한 인의 대 권 력에 하게 속되어 한다는 것을 의 한다는 점에서 말기적 후라 할 수 에 없는 것이었다.

생 하면 이 국가가 재로 권력자 한 사 의 수중에 사적으로 전유되어 한 다는 것은 리는 5·16에서부 가까이는 10월유신에서부 이 정 된 박정희 국 가의 본질이었다. 그 국가에서는 오 한 사 만이 주권자요, 한 사 만이 자유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한 에서는 국가의 위기상 을 자하여 다른 한 에서

는 경제발전이라는 환상을 이 하여 그 본질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유신 마지 해 이 박정희 독재와 정면승부를 하기 전까지는 박정희 국가가 독재국가라는 것 은 아 대중들에게 명 하게 대자적으로 의식되어 있지 않았다. 은 사 들이 대 은 박정희만 하는 것인 았다고 생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가치 은 유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의 투쟁은 박정희의 국가가 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을 폭로 으로 , 그것이 더도 도 아 고 독재국가라는 것, 그 나라에서는 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 , 오 굴 만이 이라는 사 을 선명 하게 러내고 대중들로 하여 그 사 을 대자적으로 의식하게 만들었다.

국가보 에 대한 무관심이 말해주 , 대중은 권력의 억압과 박해가 예 적인 일이라고 생 하는 한, 그에 대해 관 을 보인다. 하면 그것은 아 나의 일이 아 기 때문이다. 오 억압과 박해가 예 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에 저항하기 시작 하는 것이다. 하면 억압이 예 가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의 에서 유신기간 동 이 의 대다수 민중이 수 은 민주인사들의 수 에 그 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 일이 러지지 않았던 까 도 있지만 아 그 일이 자기와 상관없는 히 모 사 들의 수 이라는 의식도 있었을 것이 다. 하지만 의 경우는 달 다. 그는 일거수일투 이 신문과 방 에 중계되는 연 예인과 다 없는 정치인이었다.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의 재가 정부와 다른 목 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은 등학교만 나 사 이라면 구라 도 아는 상식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이 이철승과 달리 자기에게 정면으로 반대 의 목 리를 내는 것을 할 수 없었다. 박정희의 국가에서 당은 여당에 반대하는 것이 아 라 박정희가 그어 은 한계 내에서 여당을 보 하는 한에서만 수 있 었던 것이다. 하지만 은 그 한계를 어 으로 박정희의 국가에서 어 구도 박정희에게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대중들이 명 하게 인식하게 만 들었다.

의 선명한 반독재투쟁의 의 는 이를 해 박정희가 한 국가의 내적

경을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데 있다. 그는 우리에게 (산주의로부 의) 전과 을 약속한다. 하지만 그의 국가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반 시 우리의 자유를 그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 로 서 말했 이 우리는 자유를 양도하고 그의 국가에서 가 복 하면서 그가 주는 양식으로 살 지, 아 면 자유를 위해 모 것을 고 투쟁하 지 양자 일 할 수 에 없는 경에 하게 된다. 이 경은 음에는 명하게 러나지 않았으나 유신 말기로 오면 수 예해졌으 , 의 정면투쟁은 이 경을 모두에게 명 하게 폭로했던 것이다. 그 폭로는 모두에게 심 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했다. 과연 자유를 저당 히고 된 일 속에서 비굴하게 살아 하는가, 아 면 궁지 은 자유인으로서 자기의 모 것을 고 싸 하는가 그 음에 대답이라도 하 , 대학에서는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가 무 게 데모가 다른 해보다도 거세게 일어났다. 9월 3일에는 강원대생 800여 명, 9월 4일에는 대구 계명대생 1500여 명, 9월 11일에는 서울대생 1500여 명, 9월 20일에는 다시 서울대생 1000여 명, 그리고 9월 26일에는 이대생 3000여 명이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데모를 했다. 생 하면 의 지역구는 부산이고 그의 고 은 경 이었다. 하지만 에서 는 아무 식도 들리지 않았다.

6. 부끄러움의 힘

우리가 부마항쟁을 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정희가 만 국가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의 경을 살펴보지 않으면 된다. 그것은 내부의 예로서 약 당하는 자들의 고 과 이다. 약 의 수 자들이 자유와 이 사이에서 정신의 경에 할 때, 약 당하는 약자는 식민지 시대 예 상 에 사로 민 이 했던 것과 동일한 경에 여전히 러 있게 된다. 그들이 바로 박정희의 국가의 민과 동자들이다. 그들은 식민지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와 생존 사이에서 양자 일해 하는 경에 해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 국가의 수 자들이 자유를 양도한 대신 이 을 었 던 것과는 달리 이들은 자유를 기고도 아무 이 도 지 못했다. 자유를 박 당

하고 그들이 은 대가는 수한 생존 이었다. 하지만 그 생존은 도구화된 생존으로서 그들은 오로지 당하기 위해서만 생존을 은 예들이었다. 그들이 자유를 기 위해 을 일으키는 간 그들에 오 음만이 있을 이었다. 그들에게 은 오 일 이었다. 그 으로부터 벗어나는 은 오 음 에 없었다. 전 일의 신은 바로 그 비극이 현 적으로 한 사 이었다.

하지만 전 일의 신은 박정희 국가의 내적 모 을 선명하게 리내어, 박정희 독재의 말을 리는 서 이기도 했다. 하면 그의 희생을 해 0년대 동자와 학생 지식인과 교계의 연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전 일이 일했던 화시장은 으로는 동국대, 으로는 성 관대와 서울 문리대 대 의대 그리고 동 으로는 서울사대를 지 에 두고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으나 60년대 내내 그들 대학생들과 화시장 동자는 만나지 못했다. 그리하여 전 일은 “대학생 구가 하나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 (조 래, 1991, 14) 자 동 을 들고 하다 속에서 자신의 에 발유를 고 산화했던 것이다.

체로 박정희가 권했던 60년대에는 0년대에 비해 더 하게 대규모 학생 데모가 일어났지만, 동자나 민의 고 에서 비 된 것은 한 도 없었다.(이재 오, 1984, 401아래) 그것은 모두 한일회 반대, 성밀수규 , 부정선거규 , 3선 반대 등 언제나 정치적 이유에서 비 되었던 것이다. 간 히 말해 그때까지 학생운동은 인간이 구체적으로 당하는 고 에 대한 답이 아 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 일의 신은 그때까지 상적 대의에 하여 전 되던 학생운동을 일거에 민중의 고 에 대한 답으로 전환시 다. 0년대 학생운동은 표면적인 사 을 두고 보면 어 시기보다 위 된 상 에 있었다. 유신 이 발 된 이후 그리고 긴급조치가 선 된 이후 모 동이 불 화된 것을 생 하면 이는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0년대는 학생운동이 가장 은 곳을 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한 시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였다.

전 일은 그 불 를 당긴 쟁 이었다. 그 불 은 적으로 학생운동으로 옮겨 였고, 그 이후 동운동과 학생운동은 하나의 으로 하면서 겨 의 자 기해방의 역사를 같이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0년대 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매 했던 교계가 있었다. 이 학생운동이 은 곳을 한 것은 다른 무 보다 학의 산을 해 표현되었다. 그것은 결 급 적인 운동도 아 였고 적 으로 보더라도 유신독재에 대해 아무 정치적 타 도 가하지 못했으나 다가 봉기의 정한 양을 마 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시 학은 대학생과 동자가 만나는 장 , 이 의 지식계급이 시대의 가장 큰 고 과 만나는 장 였다. 학을 해 동자들은 자신의 고 의 원인을 자 하고 시대의 모 을 관적으로 의식하기 시작하였으 , 대학생들은 그들이 지 못했던 인간의 고 을 대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만 을 해 학생운동과 동운동 모두가 상호 고 에서 벗어나 연대할 수 있었고 그 연대가 이후 4·19와 같은 보 적 봉기의 바 이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시 은 학이 교회나 성당 내에 있었는데, 이 점에서도 당시 보적 교계는 대학생 지식인과 동자 민들의 만 을 매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중부교회의 사례에서 보 부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학생과 동자 그리고 교계는 0년대 보적 사회 운동의 가장 중요 한 세 이었다.

부마항쟁은 게 보자면 이 전 일에 의해 발된 0년대 학생과 동자 그리 고 교계의 연대에 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마항쟁은 0년대 에 이 로이 조성된 민중적 연대로부 한 화산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 이 어 게 가 했던지 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전 일 한 사 의 희생이 그 적이고도 다 반 을 불러 까 을 먼저 어 한다. 하면 동자 한 사 의 신이 그 큰 반 과 적인 답을 불러 다는 것은, 적어도 그 이전의 학생운동의 문 을 고려한다면 결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 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는 그가 로기 수를 치 신을 했던 사 그 자체가 적이 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큰 반 을 불러 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 그것 이라면 그 반 의 정체 무 이겠는가 그것은 동정심 이 아무 것도 아
 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정심은 어 경우에도 지속적인 운동의 동력이 수는 없
 다. 하면 이 가 말했 이 동정심은 수동적인 정 이어서, 자극이 사라지면
 같이 아들 수 에 없기 때문이다.(, 도 이상학의 기) 동정심은 타자의
 고 에 대한 감수성으로서 그것이 없다면 또한 타자의 고 에 대한 답도 있을 수 없
 다. 하지만 그 답이 지속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동정심 이상의 도 적 동기가 필
 요하다.

전 일의 신이 그 고도 지속적인 반 을 불러일으 던 까 은 그의 신이
 히 고 는 동자의 의 표현이 아 라 한 도 적 요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요구의 정체가 무 인가 그가 긴 마지 말은 내 음을 되이 하지 말
 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자기를 라는 부 이고 명 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 권리로 우리에게 그 게 요구했던 것인가 아 우리는 그 부 에 답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가 비나 (.)는 약자가 그 대적 약 과 무기력
 으로 우리에게 명 한다고 장광 을 늘어 은 적이 있었다.(비나) 하지만 전
 일은 명히 이 사회의 가장 은 곳에 한 적 약자였으나 그 다고 해서 비나
 가 말하는 식의 무기력한 타자, 그리하여 우리가 할 타자는 결 아 었
 다. 도리어 그는 우리에게 자기를 지고 고 에서 구해 달라고 동정을 구 한 것이
 아 라, 우리에 서 동의 주체로서 동적으로 로 투쟁하는 타자였고 우리 모
 두에게 자기의 투쟁에 동 하라고 부 고 치는 타자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부
 에 답했던 것이다.

그 다면 무 이 당시의 대학생들로 하여 그 게 적으로 그의 부 에 답하
 게 했던가 그것은 그의 부 자체가 또한 타자의 고 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목 까지 내어 을 정도로 자기의 전 존재를 고 싸웠던 싸움은 히 자기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아 라 자기보다 더 약한 동자의 고 에 대한 답이었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조영래, 1991, 238아래)

자신의 음을 예감하면서 이 에서 전 일은 자기의 마음의 고 이 이상이 바로 화시장의 어 여 들 을 고 한다. 그 자신이 이 사회에서 가장 고 는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 자기보다 더 약한 인간을 위해 바 이었다. 내 음을 되이 말라던 그의 은 그 의 에서 우리 모두에게 타인의 고 에 답하라는 명 이었던 것이다. 만약 그의 과 음이 히 자기의 권리를 위한 투쟁 이었다면, 우리는 그의 명 을 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구에게도 도 적 감동을 불러일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부 , 그의 명 을 면할 수 없었던 까 은 그가 모 을 보여 약자의 고 에 대한 선구적 답 에서 우리 모두가 부 러움을 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 러움의 자 이 말로 전 일이 긴 선 이었다. 80년대의 운동이 5·18이 불러일으 에서 시작되었다면 전 일이 우리에게 불러일으 이 부 러움이 말로 0년대 학생운동이 었던 가장 중요한 정신적 동기였다고 말해도 을 것이다. 그러 로 부마항쟁을 생시 본적 동인이 된 시대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 러움의 정체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0년대를 지 했던 이 부 러움은 식민지 시대 시인들에게서 원 적으로 표현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과 같은 것은 아 다. 우리는 20세기 한국의 정신사에서 전승되어 유서 은 부 러움이 0년대에 이 러 어 게 변모되어 나타나는지를 다른 구보다 신경 시인의 0년대 시들에서 발 할 수 있다. 0년대 간된 그의 시 두 권은 0년대 민중시의 가장 빛나는 성과이다. 그러나 그의 시는 고한 민중성을 지하하면서도 지하의 시 를 하거나, 고은의 시 명 하고 선동하는 것을 해 민중성을 러내지는 않는다. 도리어 그는 한 운과 월 그리고 동주에서 수 있는 내면성의 전 에 게 리박음으로 우리에게 그 시대 깨어 있는 정신의 내면적 경을 가장 이 러내 보여 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을 긴 두 으로 무 의 상 두 의 으로 지켜보는 것(같은 , 45) 그리고 대 “속으로 조 히 울고 있는 것” 이었다.(같은 , 69) 그리하여 인간의 고 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시인은 부 러움에 에 이는 바 에도 괴로 했던 동주 “싸늘한 저 이 에도 하 보 달 에도 우리는 부 러웠다”고(같은 , 29) 고 한다. 두려움과 부 러움은 시인의 자의 식을 이 언제나 같이 괴 다.7) 끝내 시인은 “살아 있는 것이 부 러 내 모습은 해간다”고(같은 , 89) 고 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서정주의 부 러움이 그를 자유를 한 결 으로 인도하지 않았 이 『 무』에 표현된 부 러움 역시 아 시인을 보고 는 것 에 더 이상의 동적 결 이나 위로 이 지 않는다. 다만 그는 “ 오는 에 나는 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 구들이 치고 다시 서 을 때 철로 위를 굴러가는 기 리만 들을 것인가 아무 게나 살아 것인가”하고(같은 , 59 아래) 제 자신에게 을 이다. 하지만 그 게 “ 하고 우치고 다시 세하지 만” 결국 시인이 아오는 곳은 “ ”일(같은 , 58) 이다. 그리하여 『 무』에서 표현된 부 러움은 아무 적극적인 규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정, “아 다”로 을 이다.

우리가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은

질척이는 골목의 비린내만이 아니다
 너절한 옥지거리와 싸움질만이 아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이 깊은 가난만이 아니다
 좀체 걸히지 않는 어둠만이 아니다

(중략)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이 쓸개 빠진 헛웃음만이 아니다

『 』 「 」

겉에 질려 야윈 두 주먹만이 아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서로 속이고 속는 난장만이 아니다
하늘까지 덮은 저 어둠만이 아니다

그리하여 끝없이 우치고 부러 하면서도 그 부러움의 정체를 로 지 못하는 시인은 부러움으로부터 어 로도 나아 방 을 찾지 못하고 다만 지나간 봉기를 역할 이다.(같은 , 96아래)

하지만 이 양상은 9년 된 『재』에서는 연히 달라 다. 이 시 에는 시 에서 한 도 이지 않았던 말이 둘 등장한다. 그것은 “사랑”과 “기”이다. 서른두 의 시 가운데 한 등장하는 저 말은 두 제 시 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가장 두 러지게 러 다. 여기서도 여전히 신은 하고 시인은 두려 하 사는 것을 부 러 한다. 하지만 그 모 것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어 간 “강과 산에서 내가 마주치는 것은 음이요 되살아 오는 것은 음의 얘기 이었지만 나는 문 음이 두 지 않았다”는(같은 , 138) 비약을 경 한다.

무 이 시인에게 음이 두 지 않은 기를 것일까 그것은 그가 보는 모습과 는 리가 히 무기력하게 희생당하는 자들의 적인 음만은 아 었기 때문이다. 그가 본 것은 “어 속에서 일어서는 그들”이었다.(같은 , 129) 시인은 그들의 짓으로부터 “구 사이로 내비치는 빛을 보았다.”(같은 곳) 여전히 구 은 두 게 빛을 가리고 모 폭 이 다시 아 다. 그러나 시인은 더 이상 속에 잠하지 않는다.

용기 있는 자들은 이 들판에 내어쫓겨
여기 억눌린 자와 어깨를 끼고 섰다.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섰다.
저것이 비록 죽음의 종소리일지라도

한 사람의 노래는 백사람의 노래가 되고

천 사람의 아우성은 만 사람의 울음이 된다.
이제 저 노랫소리는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어깨를 끼고 섰다.(같은 책, 130)

내어 과 억 과 음이 그리고 아우성과 울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나, 그것들은 더 이상 시인을 과 의 나 에 리지 못한다. 하면 음도 울음도 이제는 나와 구 되는 “희들만의 것이 아”기 때문이다. 그것은 와 내가 같이 속하는 “우리”의 일이 된 것이다. 기는 바로 이 만 사 의 우리 에 존 하는 것이다.

그 데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 시(「성」)에는 과거와 현재가 여 있다. 음에 시인이 과거 으로 회상하는 “어 속에서 일어서는 그들”이 의 문 으로 때 의심의 여지없이 4·19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그 데 시인은 후반부에서는 “이제”라는 현재시제로 “기 있는 자들”에 대해 말한다. 그러 로 4·19의 경 이 회 의 거가 되는 것이다. 그 데 같은 시 에 「4월 19일, 시 에 와서」라는 시에서 시인은 “어 어 그 의 성을 생”하면서, “다시 그 의 리가 들리리라고 아무도 지 않는 은 어두웠다”고(같은 , 112) 래했었다. 하지만 「성」에서는 “사 들은 거리를 우고 이제 이 에 이 원하리라 했으나” 그 회 을 반하고 “모 폭 이 다시 아 을 때”를 기억하면서도 결 “은 체 아오지 않았다”는 비관으로 시를 끝내지 않는다. 이는 0년대 후반부에 시인에게 급 한 역사의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 다면 무 이 시인으로 하여 동일한 역사적 사 에 대해 전 다른 방식으로 의 를 부여하도 만 것이었을까 그것은 그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대는 구”의(같은 , 131) 부 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울의 리』 간 주년을 기 하여 시에서 시인은 이 게 시를 끝 었다.

오직 절망하고
절망하고 뉘우치고

다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을 때

친구여 너는 부르짖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어두운
거리에 깔리는 저 아우성을
들으라고

친구여 한밤에도 눈을 부릅뜨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외쳐대는 친구여(같은 책, 132)

그 시인의 내면적 전환은 그 모 부 에 대한 답이었다. 하지만 『무』에서도 그는 끊임 없이 자기를 부 는 리를 지 않았던가 그리하여 거기서 시인은 “그들의 성을 는다”거나(같은 , 35) “그가 “ 오는 에 나를 찾아”와 “ 속에서 내 이 을 부른다”거나(같은 , 40) “그들이 “성 목 리로 나를 부른다”거나(같은 , 46) 나아가 “억울한 자여 을 라 짓 자여 을 라”고 래하는 “ 리를 들었다”는(같은 , 6) 것은 모두 자기를 부 는 부 을 들었다는 것이 아 었던가 하지만 그는 거기서는 아무 답도 하지 못했던가 그 까 은 그 모 부 이 은 자의 부 이었기 때문이다. 산자들에게서 그가 는 것은 다만 식과 한 과 과 주정 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답하고 어도 구에게도 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을의 리는 은 자의 원한 식이 아 었다. 그것은 시 게 살아 있는 사 이 한 중에도 을 부 고 깨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대 자기를 부 는 리였다. 그 까 에 그 부 은 시인이 오 하고 우치고 다시 술에 해 러 있을 때 그를 그 무기력한 의 나 에서 구해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살아있는 만 이 말로 시인의 고 된 정신을 역사로 불러 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히 시인 자신만이 아 라 그 시대를 살았던 모 깨어 있는 정신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히 살아 있는 만 이라는 것만으로는 그 만 의 의 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 만 이 시인의 정신을 어 게 변화시 으 그것이 어 게 그를 로운 동성으로 이 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0년대를 본질적으로 규정했던 또다른 만 을 반 시 이해해 한다. 그 만 은 시인을 부 게 했던 어 이

들과의 만 이었다. 「나는 부 러웠다 어 이 」라는 시는 그 만

변화이다. 이전에 시인의 부러움은 자기에 대한 것이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자기의 비과 두려움에 대한 부러움이었다. 그 한에서 그것은 자폐적인 것으로서, 그 식에서 보자면 로주체적인 자기관계였던 것이다. 그러나 로주체성 속에서 주체는 타자와의 만으로 나아가는, 역사로 나아가는 을 발 할 수는 없다. 거기서도 그의 부러움은 역사와 현 로부 비 되는 것이기는 했으나 그것은 명적인 현 이거나 아 면 이 과거의 어 속에 가라 아 더 이상 그가 다가 수 없는 결된 역사일 이었기 때문이다. 그러 로 그의 부러움은 그를 부의 현 로 나아가게 만들지 못하고 다만 자기 자신 속에 잠하게 만들 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9년 『재』에서 시인은 더 이상 히 내면적인 자기성 속에서 자기의 비 을 부 러 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의 부러움은 고 된 자기성 이 아 라 살아 있는 “어 이”와의 만 에서 비 된다.

모두 두 연으로 이루어 이 시의 전반부에서 시인은 먼저 어 이의 “가 ”과 “ 의 ”과 “ 의 어려움” 에서 자기를 부 러 한다. 이 부러움은 동정심이나 연민이라기보다는 도 적 가 이나 우 에 더 가까운 것인데, 그 까 은 시인이 살아가는 거리와 도시가 그들의 으로 살 가고 그들의 으로 기 가기 때문이다. 그러 로 어 이의 고 에 대해 시인 역시 이라 할 수 있다. 0년대 급속한 산업화가 가 다 의 요는 “라면봉지와 그리 비” 에서 “ 의 ”을 키던 어 이들의 가 이 아 면 불가 한 것이었다. 그 데도 세상은 오히려 오 가 만이 악이라고 그들을 조 하고 박한다. 이 에 대해 시인이 같이 하기 전에 먼저 부러움을 는 것은 그 또한 이의 가 에 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생 하면 시인이 여기서 보 적으로 상화해주고 있는 이 부러움, 이 가 이 말 로 적 0년대 은 대학생들을 사로 왔던 된 시대정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식민지 시대 시인들에게서 시원적으로 나타났던 부러움에 리박고 있기는 하지만 똑같은 것은 아 다. 역사 속에서 부러움도 자 기 때문이다. 0년대 우

리가 던 부 러움은 지고 있음의 의식이 은 부 러움이다. 우리가 0년대 학생운동과 민중운동의 정점으로서 부마항쟁을 이해하기 위해 이 의 부 러움을 먼저 이해해 하는 까 은 지고 있음의 의식이 말로 가장 강력한 의무감의 원이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어 시대도 학생운동이 전혀 된 시대가 없었지만, 0년대 그것이 박하고도 강 한 의무감에 의해 동된 시대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 의무감을 어 게 가하 지간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 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의무감은 어 서 비 되는가 는 의무감을 가장 중요한 도 성의 원 으로 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 서 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했다. 그리하여 의무감이 정신의 수한 동성과 자유의 표현이라 하면서도 그 자유를 문 없는 상성 속에 가두어 던 것이다. 그러나 의무감은 결 아무 거 없이 발생하는 정 이 아 다. 그것은 반 시 선 적인 지고 있음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만 발생하는 일 의 답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구에게도 아무 것도 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 에 대해서도 의무감을 까 이 없었을 것이다. 그 경우에도 타인을 위한 희생이나 신이 가 하겠지만, 그것은 내가 반 시 해 만 한다는 의무감에 른 것이 아 라, 연민과 동정심의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에서도 말했 이 연민과 동정심은 수동적인 정 인 까 에 그것만으로는 결 지속적인 기의 원 이 수 없다. 오 의무감만이 연민과 결 할 때, 그것은 지속적인 위 거가 되는 것이다. 연민은 타인의 고 에 대한 감이지만, 의무감은 그 고 이 자기 때문이 , 자기를 위한 것 을 깨달을 때 발생하는 정 이다. 타인의 고 에 나의 복이 지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는 가 과 부 러움이 말로 우리에게 그 을 으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인이 상화하는 부 러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시의 둘째 연에서 시인이 고 하는 부 러움은 어 이들에게서 본 내일의 빛 에서 그가 는 부 러움이다. 그 빛은 시인이 4·19 이후 고 있었던 희 의 빛이다. “다시 그 의 리가 들리리라고 아무도 지 않는 ”을 깨치고 시인이 내일의 빛에 대한 을 발 한 것은 바로 어 이들이 “ 러지고 짓 히고 다시 일어 때”였다. 19 8년에

있었던 동일방 사 을 암시하는 이 시는 전 일 신 이후 점점 더 발해지고 있었던 여성 동자들의 민주 조운동이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어 을 주었던지를 언 하는 고 이다. 에서 인 한 시 「 성」에서 “한 사 의 래는 사 의 래가 되고 사 의 아우성은 만 사 의 울음이 된다”고 시인이 래했을 때 그 한 사 이 전 일이었다면 사 은 동일방 여 들이었다고 생 해도 을 것이다. 한 사 의 희생은 사 의 신을 부 고 사 의 기는 다시 만 사 의 기를 부 는 것이 역사이다. 무기력한 희생과 에 질 민중들 사이에서 과 에 사로 있었던 시인을 부 게 만 것은 어 이들이었다. 가장 약하고 어 이들이 굴 을 거부하고 러지고 짓 도 다시 일어서는데, “우리들 두려 굴 이고 시 장바 목에 박 그 한 겨우내 술 음”으로 했 말인가 시인의 그 부 러움은 그 시대 모 깨어있는 지식인의 부 러움이기도 했으 , 은 을수 그 작은 들은 더 더 히 빛나 우리 모두를 부 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부마항쟁 역시 그 부 러움이 불 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간 히 말하자면, 역사는 인간의 부 과 답을 해 생성된다. 다시 신경 시인의 표 현에 기대자면 그것은 이 것이다.

나는 안다 많은 형제들의 피와 눈물이
 내 등 뒤에서 이렇게 아우성이 되어
 내 몸을 밀어대고 있는 것을(같은 책, 117)

인간의 은 위가 구조에 의해 규정되고 그때그때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부마항쟁과 같은 역사적 사 까지 그 원 으로 명하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하면 그것은 자기희생을 수반하는 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에 른 위가 문제라면 우리는 어 구조가 어 환경적 원인이 인간을 정한 위로 떠밀었는지를 구하는 것만으로 한 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 적 희생을 수반하는 위가 문제라면 그것은 사 적 원인이나 관적 구조를 해 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하면 사 적 원인도 관적 구조도 도 적 결 과는 전 다른 에 속하는 존재인 까 에 그 둘 사이에

인과성을 상징하는 것은 다른 로의 비약()이기 때문이다. 그러 로 우리는 도 적 결 과 위에 관해서는 오 정신적 원인을 해 정신적 결 과를 명할 수 있을 이다. 이 의 에서 시인은 “내 을 밀어대고 있는 것”은 구조도 환경도 아 고 제들의 아우성이라 표현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마항쟁을 발시 대학생들의 동기 역시 신경 시인이 던 바로 그 아우성 에서 는 부 러움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로 시위를 게 했던 이 은 지하나 양성우와 신경 시인의 된 시 을 었다고 고 하고 있거 와(민주화운동기 사업회 구술자), 이 그의 시를 지 았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대학생들은 “ 제들의 와 이 내 등 에서 이 게 아우성이 되어 내 을 밀어대고 있는 것을” 지 았을 수 없었다. 항쟁 여 학생 하나가 언했 이 당시 “대학생들에게 유신은 큰 의식이었고 자가”였던 것이다.(부마민주항쟁기 사업회, 1989,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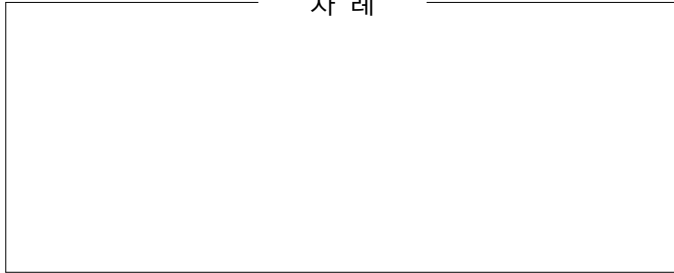
하지만 그 일이 하필 가장 조 했던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던 것인가 우리의 대답은 이것이다. 그것은 그 도시가 가장 조 했었기 때문이다. 그 사 이 부산과 마산의 대학생들에게 더 큰 부 러움을 불러일으 기 때문이다. 히 부산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자기 학교가 유신대학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마나 큰 자괴감을 고 있었는지는 지 았은 언이지만 히 려 있다. 하지만 인적인 언보다 도 리어 더 강 하게 우리에게 그 자괴감을 언해주는 것은 사 자체이다. , 그것은 봉기가 패한 학생들의 기다 이다. 마치 고도를 기다리 이 오지 았는 시위 주 동자를 수 명의 학생들이 선언문에서 모이라고 적 있는 도서관 에서 한 시간 짓 타까운 마음으로 기다 던 것이다. 그 모습은 유신 시대 어 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희 한 광경이었다. 그 기다 은 군가 그 고도 치 을 깨 려 주기를 간 히 바라는 의 표현이었으 , 군가의 부 에 언제라도 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 의지의 저에는 무 오 동 시대 의 아우성에 아무 답 없이 했다는 부 러움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

만 그 예도 불구하고 끝내 고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부산대학생들의 마음에 다시 한 마나 큰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언들을 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히 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 폭된 부 러움이 말로 다음 수 은 학생들이 나가자는 부 에 그 적으로 주저 없이 답한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부마항쟁의 주체세력과 성격

정태석 (전북대 사회교육학부)

차 례



부마항쟁의 주체세력과 성격

정태석 (전북대 사회교육학부)

1.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부마항쟁

19 9년 10월 16일부 20일에 거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는 대규모의 항쟁이 발생하였다. 대학생의 시위를 계기로 다양한 민중들이 여하여 박정희 유신체제의 억압에 항거하였고 또 경제적 불만을 하게 표 하였는데, 이러한 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위수 발동을 해 강제로 압되었다. 부마항쟁이라 불리는 이 항쟁은 극적으로 10.26정변을 한 박정희 정권과 유신독재체제의 말을 불러일으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게 기여한 중요한 역사적 사 으로 기 되고 있다. 그 데 기간에 압되고 또 투쟁의 중요한 목표였던 박정희 정권이 이어 붕괴되면서 현 적인 정치적 관심에서 어 다는 점에서 그 의 와 의의가 히 러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항쟁의 성 에 대해서도 이 이 존재하고 있어 보다 심 究수

할 정도로 다양한 역에서 심 적인 들이 이루어 다. 그래서 비 로운 자 들이나 생생한 언들이 여 다고 하더라도 로운 연구가 기존 의의 에서 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지만 역사학자 (. .)의 말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한다면, 과거의 역사적 사 들은 현재적 관심과 관점을 해 다양하게 해 수 있으 이를 해 현재의 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역사를 게 해 해내려는 력은 지속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조 과 상 을 무시하고 역사적 사 을 하려는 것이 아 라, 하나의 사 을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속에서 다 양한 시 으로 하고 해 으로 역사적 의 를 부하게 만 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제로 부마항쟁에 대한 자 들이 발굴되고 연구가 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 양한 해 들이 생겨났고 또 고 작은 쟁들이 성되어 다. 이러한 쟁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는 것은 아마도 부마항쟁의 성 과 관 된 것일 것이다. 여기서 중심적 인 쟁점은 부마항쟁이 민주항쟁이 , 민중항쟁이 , 아 면 도시봉기 하는 것이다. 이 쟁점은 무 보다도 부마항쟁의 여주체가 구이 , 어 동기와 목표로 저항하였 고, 어 게 저항하였는가 하는 점들과 관 되어 있다. 의 관점들은 여주체가 은 의 의 민중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구체적 성 과 여 동기 목표에서는 서로 다른 목 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 에서는 부마항쟁의 주체에 대한 기존의 쟁을 으로 부마항쟁 의 성 에 대한 대 적 해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규모 항쟁들에 는 내적으로 다양한 요구들, 목표들을 지닌 다양한 주체들이 여했으 이들이 화 되거나 되는 방식에 라 항쟁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 되어 다. 항쟁의 구 체적 상 에서 지 세력의 대 방식 등 다양한 변수들이 을 치지만, 사회의 화정도와 구조적 성 에 른 사회적 적대들, 등들, 불만들의 다원화는 항쟁주체들 의 다양성을 을 수 에 없다. 그래서 부마항쟁을 역사적 과 시대적 경을

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원적 적대들의 화와 이라는 관점에서 부마항쟁의 성 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해서 항쟁의 역사적 의 와 현재적 의의를 적 히 내고자 한다.

2. 부마항쟁의 주체들과 성격 논쟁

부마항쟁은 일반적으로 19 0년대 박정희 정권, 히 유신체제 하에서 이루어 민주 화운동 과정의 한 사 으로 이해되어 다. 그 데 부마항쟁을 주도하거나 여한 주 체들 또는 세력들의 성 , 그리고 항쟁의 동기들, 목표들, 방식들 등에 대한 구체적 연 구가 되면서 부마항쟁이 지 고 있던 다양한 성 들이 러나게 되었고 기존의 해 을 어서는 다양한 해 들이 등장하고 있다. 차성환은 까지 이루어 연구들을 하면서 부마항쟁 해 의 관점들을 게 세 으로 나 고 있는데, 그것들은 민 주항쟁 , 민중항쟁 , 도시봉기 등이다(차성환, 2009 3-6).

일반적으로 동 또는 사회운동의 성 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주체의 성 과 규모, 여 동기, 운동의 목표와 요구, 조 화의 와 정도, 운동방식 등을 살펴 필요가 있다. 부마항쟁 역시 이러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으로 그 성 을 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데 부마항쟁을 명하는 세 가지 관점은 의 항목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 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 의 차이는 부마항쟁을 규정하는 세 이 의 명 에서도 러 다. 민주항쟁은 항쟁의 목표나 요구를 강조하고 있는 반 면에, 민중항쟁과 도시봉기는 항쟁의 주체를 강조하면서 암 적으로 항쟁의 목표나 요구를 하고 있다. 명 의 차이에서 러나는 강조점의 차이는 세 이 의 시 차이를 어 정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명 의 차이를 하여 이러한 해 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해명 하는 것은 부마항쟁의 성 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발점이 수 있으 , 히 여

주체의 성에 대한 해의 차이는 전체적인 해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거가 것이다.

부마항쟁을 해 하는 세이를 의 항목에 라 정리해보면 표 1 과 같다. 여기서 항목 차이를 해 쟁점을 찾아 수 있다. 항쟁 주체와 관 하여 살펴보면, 민주항쟁 과 민중항쟁 은 모두 민중이 항쟁의 주체였다고 말한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민주항쟁 이 기 지도세력인 대학생의 역할에 더 큰 의 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민중항쟁 은 기에 대학생이 지 고 있던 주도권이 항쟁이 화되면서 바로 민중으로 이전되었고 이후 민중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쟁하면서 항쟁을 주도 했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 데 여기서 민중은 대학생과 구 되기는 하지만 폭 은 인데, 대체로 도시 민 위주의 기 민중에 중간 시민을 하는 것이라고 수 있다.

한 도시봉기 에서는 민중이라는 모호한 을 사 할 것이 아 라 보다 구체적 인 주체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도시하 민이 항쟁의 주체였다고 말한다. 도시하 민은 도시 동자, 도시 민, 업자, 도시하 서비 업 사자 등을 하는 이질적이고 비 질적인 이 , 상대적으로 일적이 질적인 을 규정하는 민중, 대중, 계급 등의 으로는 항쟁의 성 을 제대로 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원, 2006 424). 이에 대해 차성환은 도시봉기 이 도 시하는 중간 시민이 항 쟁의 주체로서 여한 것이 관적 사 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시봉기 의 한계를 비 하고 있다(차성환, 2009 41).

이러한 을 해 러나는 것은 부마항쟁을 민주화운동, 민중운동, 도시봉기 등 정한 운동사의 에서 일 적으로 악하려는 시도는 적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다. 부마항쟁이 발생했던 19 9년은 정치적으로 유신독재에 의한 억압이 강화되었으 면서 경제적으로 국가의 자본주의 발전전 과 경제정 에 른 서민 의 불만이 했던 시기였다. 게다가 이러한 불만들을 정 지역으로 중시키는 상 들과 조 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 로 다양한 등과 저항의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부마항쟁의 주체들의 다양성과 항쟁의 복 적인 성 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 부마항쟁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¹⁾

		민주항쟁론	민중항쟁론	도시봉기론
항쟁 주체	지도	학생(초기) → 민중	민중	도시하층민
	참여	학생, 기층 민중, 중간층 시민	민중	도시하층민
항쟁 주체 및 조직화의 성격		자발성	자연발생적 봉기, 폭동	비균질적 도시하층민의 자연발생적 봉기, 이질적, 분산적 참여
항쟁 동기/원인		독재와 억압에 대한 저항	독재와 억압에 대한 저항 (연속론) 경제적 궁핍과 억압에 대한 반발(단절론)	도시하층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 경제적 양극화, 조세저항
항쟁 목표/요구		민주화(독재타도, 민주회복)	민주화(연속론) 경제적 불만 해결(단절론)	국가와 부유층에 대한 투쟁, 정치경제적 변화 추구
항쟁 방식		집회, 시위, 대응 폭력	적대적, 폭력적	폭력적 파괴

항쟁의 주체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항쟁의 발생 원인과 동기, 목표와 요구도 다양하다는 것을 한다. 민주항쟁 은 유신정권의 독재와 억압에 대한 저항이 동기였다고 보 , 민중항쟁 은 정치적 억압에 대한 반발과 경제적 불만이 저항의 복 적인 동기였다고 본다. 민중항쟁 은 장에 라 연속 과 으 로 나 어 수 있다. 연속 은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항쟁 주체가 민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에, 은 항쟁의 주체가 민중이었을 만 아 라 항쟁의 동기에서도 경제적 불만과 저항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차성환, 2009 29). 연속 이 부마항쟁을 민중이

주체가 된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반면에, []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경제적 문제 해결을 요구한 민중운동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 도시봉기 []은 도시하 민에 대한 차 과 제,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불만 등이 저항의 중심적인 동기였다고 본다. 경제적 양극화는 도시하 민에 대한 차 과 제의 성 을 고 있었고 이에 라 타났 다는 것이다(원, 2006).

이러한 원인이나 동기에 대한 차 적 해 은 여 주체에 대한 강조점과 성 규정에서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항쟁 은 대학생의 역할과 중간 시민들의 여에 보다 주목하 , 이러한 해 은 정치적 억압으로부 의 자유를 구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들과 중간 시민들의 []에 보다 주목하도 한다. 민주항쟁 은 항쟁의 발과정에서 대학생들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본 적인 항쟁 과정에서 강한 경제적 불만을 지 고 있던 기 민중들의 여를 보다 강조한다. 그 데 연속 에서는 기 민중들 역시 경제적 으로 인해 불만을 지 면서도 대학생, 중간 시민들과 더불어 반독재 민주화와 자유를 구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에서 부마항쟁은 반독재 민주항쟁 으로 규정된다(정광민, 1989 330-333). 반면에 []은 당시의 경인지역 중심의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사이에 현 적 연계가 없었으 , 부마항쟁은 부산, 마산 지역의 기 민중을 중심으로 경제적 불만을 표 한 민주항쟁 이었다는 점을 강조 한다.

도시봉기 은 경제적 불만이 항쟁의 동기였다는 점에서 민주항쟁 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항쟁 주체로서의 민중의 구체적인 성 이 어떠했는가 하는 점에서 다른 해 을 제시한다. 도시하 민들은 도시 [], 업 동자, 세상인, 반 업상 자유 동자, 무 자, 구두 이, 식당 업원, 상점 업원, 고교생 등 이질적이고 상이한 사 들로 구성되어 있었으 , 이로 인해 저항이 산적이었다는 것이다(원, 2006 435).

지 까지 부마항쟁의 여 주체, 동기 원인, 목표 등을 중심으로 세 가지 해 들 - 민주항쟁 , 민주항쟁 , 도시봉기 - 을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비교를 해 가지

쟁점이 제기 수 있다. 쟁, 세 이 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항쟁 주체로서의 (도시 하 민을 하는) 민중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 되고 있는가 민중은 반독재의 민주화운동의 주체인가, 아 면 경제적 에 저항한 민중운동의 주체인가 민중은 민중운동의 일적 인가, 아 면 도시봉기의 산적, 이질적 수자들인가 둘쎄, 부마항쟁을 경제적 에 저항한 민중운동 또는 계급운동으로 본다면, 자연발생적이고 조 화되지 않은 저항의 성 을 어 게 이해할 것인가 쟁, 부마항쟁의 복 적인 성 을 하나의 시 에서 하려는 시도는 적 한 것인가 그 지 않다면, 어떠한 대 적 해 이 가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명은 아마도 부마항쟁의 주체와 성 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히 하는 데 도움을 것이다. 기존 이 들의 한계를 어서기 위해 이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 보기로 하자.

3. 부마항쟁과 민중

기 민중이라고 부 도시하 민이라고 부 부마항쟁의 중심적인 주체는 은 의 에서의 민중이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민중이 항쟁에 여하였고, 무 을 요구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여한 민중은 일적이고 적인 존재였는가, 아 면 이질적, 산적 존재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 쟁점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의 사회구조적 조 들이 민중들을 어떠한 상 에 해있도 했는지를 살펴보아 한다. 이러한 조 들은 히 민중들의 관적 존재조 들만을 의 하는 것이 아 라 그들의 의식, 가치, 정서, 이데 로기 등을 성하는 데 을 사회적 조 들, 상 들을 하는 것이다.

부마항쟁이 발생했던 당시의 시대상 을 본다면,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유신독재 체 제가 지속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대 의존적 발독재를 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달 하고 있었다. 이데 로기적으로는 반 주의 보 리, 성장주의가 강력한 치 이데

로기로 작동하고 있었는데, 반 주의는 한국전쟁의 경 에 기반하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고 성장주의는 경제발전에 라 대중들이 대 적 에서 벗어 수 있도 으로 또 다른 정당성의 기반으로 작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이고 일주의적인 위기 속에서 정부에 의한 문화적 감시와 제가 강화되고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치적으로는 수 지 적, 대 의존적 경제 발 과정에서 19 0년대 에 발생한 경제위기와 국민대중의 생 고에 른 민심이반에 라 정권 재 의 위기 상 에서 박정희 정권이 유신 의 제정을 해 유신 독재체제를 성하고 있었다. 그 데 박정희 정권은 유신독재체제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 세력들과 당 세력을 긴급조치권을 해 압하는 과정에서 선명 선을 내세운 당 재 을 제명하면서 의 정치적 고 인 부산, 마산 지역의 국민들을 자극하게 되었고 이것이 부마항쟁을 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 주한 군 철수와 자주국방 등을 둘러 국 정부와의 불화와 등도 박정희 정권의 위상을 어 러 유신체제를 위기로 아가는 데 간 적인 을 다고 할 수 있다(호철, 2003).

경제적으로는 19 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19 3년 1월 중화학 업 화를 선언한 이후 국가주도의 중화학 업 중투자와 기업 성이 이루어지고, 19 0년대 말에 재 과 독점자본의 적극적인 여 속에서 중복, 과 투자가 이루어졌다. 1960 년대의 경 업과 마찬가지로 19 0년대 중화학 업 역시 자도 에 의한 수 지 적 업화의 성 을 벗어 수 없었으 , 이로 인해 대 의존성의 심화와 독점강화가 지속되었다. , 생산기술, 시 재, 상 시장 등 투자, 생산, 매의 전반적 과정에서 대 의존이 심화되었고 여의 유 이 이루어지면서 동 수 적 적구조가 심화되었 던 것이다. 국내 산업의 업연관이 약하고 국내 수요시장이 성되지 못한 상 에서 이루어 대 의존적 경제성장은 대 무의 적과 무역수지 적자의 대로 이어 졌고, 투자의 지원과 수 정 에서 된 구조적 인 이 의 대는 급 한 가상승을 가 와 한국경제가 의존해 던 저 장시간 동체제가 지속되기 어 게

만들었다. 게다가 1970년대 후반 제2차 유동으로 인한 세계적 불과 고리시대의 도래는 자도에 기반한 수지적 경제에 심한 타격을 가하게 되었다(부마민주항쟁기 사업회, 1989: 226-231).

경제위기로 인한 가상승과 해고, 수의하 등 동시장의 약성은 수지적, 동약적 경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고 있던 부산, 마산에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주었다. 부산의 인구는 1960년 116만 명에서, 1970년 205만 명, 1979년 31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광업의 일자리 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장표정, 2003: 108). 부산지역은 저에 바를 수지적, 동약적 경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고 있었는데, 1981년 기준으로 보면 유, 의복, 가제조업에서 2.9%, 화학·관제조업에서 55.6%를 여성동력이 차지하고 있었다(이봉, 2003: 16-1). 부산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세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의 비중이 있었는데, 1979년 기준으로 업원 수는 전국대비 16.6%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부가가치는 전국대비 12.9%를 차지하는 데 그다. 이러한 부산경제의 현은 동자들이 은과 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저의 생활을 강요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불에 따른 하과 해고의 고을 더 강하게 수에 없다는 것을 의한다. 또한 동자들의 비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도시세민, 민들의 역시 더 들어졌다는 것을 의한다(부마민주항쟁기 사업회, 1989: 236-245).

문화적으로 보면 박정희 유신체제 하에서 보리에 바를 반주의 이데로기와 군사주의 문화의 산, 언에 대한 제와 대중문화에 대한 감시의 강화, 지식인, 여성 동자, 도시 민들에 대한 억압과 제 등은 대중들을 상로아다. 그지만 이러한 억압과 제는 동시에 대학생, 지식인, 동자, 도시 민 등 지 대중들의 저항의 잠재력을 성하였고, 지속적인 저항운동, 민주화운동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3).

부마항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조 들과 상 들을 살펴보면, 민중들은 1960- 0 년대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산업 , 계급 화가 이루어지면서 민, 생산 동자, 사무 동자, 세자 업자, 서비 동자, 도시 민 등으로 다양 화되어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자들이 수적으로 대하면서 생존권 요구가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점차 조 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게 본다면 부산이 나 마산과 같은 업도시 지역의 민중은 도시적 성으로 인해 산적, 이질적 수자 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일적 이 수 있는 조 도 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로 중요한 것은 부마항쟁의 동기와 목표가 무 이었고, 이것들이 민중을 조 화할 수 있는 이 이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기에 대학생들 이 주도한 부마항쟁의 동기는 우선적으로 유신독재체제의 철폐를 요구하는 민주화운동 이었다. 그 데 조 화된 항쟁이 아닌 상 에서 광 한 민중들의 자발적 여는 항쟁 과정에서 다양한 불만과 요구의 표 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히 당시 부 산과 마산지역의 수성을 고려하면 동자들, 도시하 민들 등 기 민중들의 경제적 불만이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고 하겠다. 유신독재체제가 히 정치적 자 유를 억압한 것만이 아 라 기 민중들에게 경제적 위기에 른 경제적 고 을 겨 주었기 때문에 부마항쟁에 여한 민중의 동기나 요구를 민주화라는 정한 내 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불가 한 것이었다. 그래서 민중은 독재와 억압에 대한 불만을 표 하는 동시에 경제적 불만을 표 하였고, 항쟁의 조 적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 에 이질적 민중들이 산적으로 투쟁할 수 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부마항쟁에 여한 민중들은 유신독재체제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위기에 른 생 상의 고 으로 다양한 불만을 지 고 있던 존재들이었고, 이들은 대학생을 중심으 로 한 민주화운동으로 시작된 부마항쟁에 여하면서 자신들의 존재조 에 른 다양 한 불만과 요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부산과 마산이라는 도시의 민중 은 그 자체로 산적이고 이질적인 존재였다고 할 수 있으 , 유신독재체제에 대한 반 대에는 한 목 리를 내면서도 경제적 불만에 른 산적, 이질적 목 리, 를 표 하였다고 하겠다. 게다가 대학생이 지속적으로 항쟁의 조 적 중심이 되었던 것도

아 있고 동운동도 조화된 것이 아 었다. 이 점에서 부마항쟁은 도시봉기적 성
을 지 고 있었지만, 그 다고 해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 로 부마항쟁은 복 적인 민중항쟁 이라고 보아 할 것이다.

한 도시봉기 을 주장하는 원은 대중독재 과 민중운동 이 동일한 문제 의
거울상으로서 도시하 민을 타자로 겨 다고 비 한다. 민중이라는 어가 “당대
생산자 - 아마도 저항적 지식인 - 이 로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정체성을 지닌 타자들을 무차 적으로 - 제하려는 일 의 정치적 기 가
운데 하나”라는 시 에 동의하면서, 대중 또는 민중이라는 명명 자체가 “매우 이질적
이 상이한 주체들을 독재에 모한 대중 또는 민주화운동 은 민중운동이라고
부 는 언어 구조 자체가 부산과 마산에 존재했던 이질적인 도시하 민을 타자로
겨두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의식적 의 산 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부산과 마산의
도시봉기의 주체인 도시하 민은 대중, 민중이나 계급으로 회수불가 한 주체라고 주
장한다(원, 2006 449-451). 민중에 대한 일적 이 지를 부여하거나 조 화
된 저항의 주체로 규정하려는 생 은 적 하지 않다. 그 지만 민중운동 자체가 도시
하 민을 제했다거나 도시하 민이 민중이나 계급으로 회수불가 하다는 주장은 적
해 보이지 않는다. 화되고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민중은 자연 게 산적,
이질적이 된다. 이러한 현 적 조 속에서 발생한 항쟁 또는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여자들의 일성은 쟁점이나 목표의 일성, 생 간이나 동 간의 성과 상호
작 의 정도, 항쟁의 전 과정과 조 화의 정도 등에 라 성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 항쟁이나 사회운동은 산적이고 이
질적이라는 주장에서 한 음도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4. 사회적 적대들의 분화와 응축으로서의 부마항쟁

서 보았 이 부마항쟁은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한 민주화운동의 성 과 경제적 불

만의 해결을 요구한 민중운동의 성 을 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데 부마항쟁이 경제적 에 저항한 민중운동 또는 계급운동의 성 을 지 고 있다고 한다면, 그의 를 보다 명 히 하기 위해 그 한계가 무 이 이후의 상 에 이 무 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필요가 있다.

『부산민주운동사』는 부마항쟁이 자유민주주의를 구한 반독재 민주항쟁이 중심이 되었지만 기 민중의 경제적, 계급적 요구가 잠재되어 있었다고 보면서, 항쟁의 주체와 목표 사이에 구현상이 있었다고 본다(부산민주운동사 찬위원회, 1998 428 차성환, 2009 23-24). 이에 대해 차성환은 “민중의 정치의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는 해도 구현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 한다(차성환, 2009 44). 그 데 여기서 구라는 가가 계급적 목표를 기 으로 주체의 한계를 하는 과도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현 적으로는 양자가 동일한 사고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시의 동자들이 동자계급이라는 관적 존재조 에 맞은 계급의식을 성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항쟁 자체는 자본주의 경제의 계급적 성 으로 인한 경제적 에 대해 불만을 표 하면서 저항한 것이었지만, 동자들이 로 자본주의 경제의 계급적인 성 에 대한 이해와 이를 한 계급적 연대를 해 저항한 것은 아 었던 것이다. 그러 로 항쟁의 여자들이 관적으로 동자계급에 속한다고 해서 항쟁이 계급운동 또는 동운동이었다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에서 보면, 부마항쟁을 한국사회 로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운동이라는 규정하는 것(호철, 2006 , 2006)은 사후적, 결과 적 해 일 수는 있지만, 당시의 사회적 상 과 동자를 비 한 기 민중들의 의식수 을 고려한 관적 명이라고 보기는 어 다. 당시 도시하 민들이 경제위기 상 에서 조세에 대한 불만을 표 하고 항쟁 과정에서 시 과 부유 에 대해 을 하였지만, 이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에 기 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경제적 불만의 자생적 표 이었다고 보아 할 것이다. 당시 동자들의 항쟁 여를 보면 동조 과 같은 조 화된 로 이루어 것이 아 라 적, 산적인 로 이루어졌다.

이 부마항쟁은 도시의 이질적, 산적 대중들이 정치적 민주화의 요구와 경제적 불만을 동기로 하여 적으로 표 한 복 적인 항쟁이자 사회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조 과 상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민주주의 적대와 계급 적대가 복 적으로 표 된 사 이었다. 유신독재체제에 대한 저항은 민주주의 적대가 표 되도 하였다면,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른 경제적 불 과 은 계급 적대가 표 되도 하였다. 계급 적대는 서 보았 이 자연발생적, 조 적, 산적 성 을 고 있었지만 이것은 이후 계급 적대의 발전에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로 부마항쟁의 복 적 성 을 하나의 시 에서 재 하려는 시도는 적 하지 않으 , 부마항쟁의 복 성을 사고할 수 있는 대 적 해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적대, 등, 긴장 들이 존재한다. 사회적 조 들, 상 들의 사회적 구조와 역사적 변화는 적대나 등의 다양성과 정도를 변화시 다. 예를 들어 환경 적대는 산업화 이전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 성 차 은 예전부 존재하고 있었지만 등과 적대로 표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현대 사회가 발전해 오면서 로운 사회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기존에 존재했던 문제들이 등과 적대의 로 표 되기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데 이 다양한 사회적 적대들이 화되어 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적대나 등 들이 어 방식으로 표 되는가 하는 것은 정한 시기의 정한 사회구조적 조 들에 의존한다. 말하자면 다양한 사회적 적대나 등 들이 서로 산되어 표 수 도 있고, 서로 되어 표 수도 있다. 198 년 6월 항쟁의 발생과 이후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화과정을 보면 이러한 점들을 이해할 수 있다. “6월 항쟁은 다수 적 이고 복 적인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생겨 다양한 적대, 등, 긴장 들이 민주주의 적대를 중심으로 되어가고, 이러한 적대관계 속에서 속적, 저항적 위치에 있었던 위자들이 정한 발요인에 의해 사회운동에 적으로 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 , 2002 252). 한 “민주화운동에는 동운동, 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지역주민운동 등 다양한 민중운동의 세력들이 여하였지만, 군사정권이라는 상 과 국가의 비민주적, 억압적 제정 으로 인해 계급적대를 비 한 다양한 적대들은

민주주의 적대의 속에 되어 있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적 에 내재해 있던 잠재적 은 6월 항쟁이 일정한 제도적 민주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 적 로 나타났다”(정 , 2002 251-252).

이러한 다원적 적대들의 화와 이라는 사고는 부마항쟁의 복 성을 명하는 데에도 적 히 적 수 있다. 19 0년대에는 유신독재체제 하에서의 민주주의 적대의 성, 급속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계급 적대의 성, 그리고 했지만 업화에 른 장주변 환경오 으로 인한 환경 적대, 여성교 의 대와 성 등의 식의 산에 른 성 적대 등 다원적 적대들이 성되었거나 성되어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 , 이러한 다양한 적대들이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민주주의 적대를 중심으로 되는 경 이 있었다고 하겠다. 그 지만 다양한 적대들, 히 계급 적대의 상대적 자 성은 민주주의 적대로 전히 되지 않았으 , 이러한 성 이 부마항쟁의 복 성으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한 박정희 정권의 위수 발동으로 부마항쟁이 압되었지만, 부마항쟁은 간 적 으로 10.26정변의 발생에 을 으로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부마항쟁에서 민주주의 적대와 계급 적대의 복 적 표 은 10.26정변과 이후 신군부의 쿠데타 1980년 5월 광주항쟁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적대 중심의 으로 나아 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을 비교해 본다면, 광주항쟁은 부마항쟁에 비해 민주화운동의 성 이 보다 강하다. 하면 광주항쟁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쿠데타와 정치적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동기와 민주화라는 목표가 한 항쟁이었으 , 전 과정에서 저항의 대상과 요구가 보다 명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항쟁에 여한 다양한 민중들은 신군부의 폭력적 압에 조 적으로 대항하였는데, 군사력을 동원한 신군부의 압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되어 항쟁은 결국 민주주의를 쟁 하는 데 성 하지 못했다. 그 지만 광주항쟁은 이후 민주화운동의 전 과정에서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과 의 잠재력이 되어 198 년 6월 항쟁의 성 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광주

항쟁은 민주화운동의 속에 보다 명하게 위치지울 수 있다면, 부마항쟁은 민주화운동의 속에만 위치지울 수 없는 복 성을 지 고 있다고 하겠다.

부마항쟁과 6월 항쟁을 비교해 보면, 6월 항쟁 역시 민주화운동의 에 위치지울 수 있지만 항쟁 여세력들이나 요구들은 광주항쟁보다 복 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 , 이러한 성 은 이후 -8월 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점에서 부마항쟁의 복 성은 6월 항쟁의 복 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마항쟁은 민주화의 성 로 이어지지 못 으로 복 성의 표 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중들 또는 지 대중들은 사회구조적 화와 다원화, 국가권력의 성 , 자본주의 경제의 성 등에 라 다양한 불만과 저항을 표 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적대들을 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적대들이 사회운동이나 항쟁으로 때 다양한 사회적 적대들은 하나의 적대 또는 목표로 되기도 하고 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화와 은 사회적 조 들, 여자들의 성 , 항쟁 대상과 목표의 성 , 항쟁의 전 과정 등에 라 다양한 를 게 된다. 부마항쟁 역시 산업화와 도시화, 유신독재체제와 19 0년대 말의 경제위기 등의 상 속에서 민주주의 적대와 계급 적대의 복 적 표 로 나타났고, 이 점에서 당시의 정치적 억압의 상 속에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사회운동의 화를 예고한 복 적 민중항쟁이었다고 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부마항쟁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자

은 의 에서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모 들, 적대들, 등들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력의 과정이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는 차적 민주주의를 요구해 민주화운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부마항쟁의 복 성을 인정한다면, 그 의 를 민주화운동, 민중운동, 도시봉기 등 정한 하나의 속에 고정시키려는

시 은 불필요하다. 말하자면 부마항쟁을 한국사회의 다원적인 민주주의 발전의 과정 속에서 복 적인 위치를 지 던 사회운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 를 위한 것이었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민주주의, 적 정의를 구한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다원적, 복 적인 사회적 에서 부마항쟁이 지 고 있었던 한계들을 이해 으로 , 현재에 되는 다양한 사회적 등들, 적대들을 심 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마항쟁을 민주주의 발전의 시 으로 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석준(2003). 「부마민주항쟁의 사회·문화적 배경」,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민주공원.
 김 원(2006).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 『정신문화연구』 제29권 2호.
 김진영(2003). 「부마민주항쟁과 양서협동조합」,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민주공원.
 박철규(2003). 「부마민주항쟁과 동」,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민주공원.
 부마민주항쟁| 사 회 원회/부마민주항쟁 주 기 사 회 과(989).
 『부마민주항쟁 0주 기 『, 부마민주항쟁| 사 회/부마민주항쟁 주 기 사 회.
 부 민주 동사 원회(998). 『부 민주 동사』, 부 : 부 시사 원회.
 호철(2003). 「부마민주항쟁의 정 적 배경」,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민주공원.
 호철(2006). 「 979 부마항쟁의 지 주 ` 정 적 배경 의 」, 『, 60 의 정 『, 서 ` 진.
 지 (2003). 「부마민주항쟁과 부 사회의 화」,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민주공 원.
 영(2006). 『 사 회 마 코 주의 『, 공 .
 (2003). 「부마민주항쟁의 『, 『 사적 의의」,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민주공원.
 정 민(989). 「부마항쟁 0 사적 의 『, 『사 회 사 『 제 5 호.

- 정주신(2003). 「부마민주항쟁과 5·8 민 항쟁」,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민주공원.
- 정 석(2002). 『사회 의 구 』, .
- 정 석(2007). 『시민사회의 원적 적 과 민주주의』, 마 .
- 주 ▣ (2003). 「부마민주항쟁과 동 동」,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민주공원.
- (2003). 「부마민주항쟁과 부 정 의 화」,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민주공
원.
- (2009). 동 서 부마항쟁 의 주 , 부 원 정
과 박사 논문.
- 정 /정 (2003). 「부마민주항쟁의 경제적 배경」,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민주공
원.

발제 3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차 례



- 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의 비교연구 -

한흥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1. 머리말

부산민주 원이라는 이 이 중 원으로 바 해에 우리는 부마항쟁 30주년을 맞는다. 박정희가 고 30년이 된 해 2009년, 우리는 무현 대 과 대중 대 을 떠나보냈다. 30년이라면 한 세대가 른 것이기도 하지만, 두 대 의 서 거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시작된 질 도와 같았던 민주화의 시대 가 마무리되었음을 상기시켜 다. 들게 한 발 한 발 이 민주주의가 이 도 지 않게 고속으로 역주 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민주화의 시대를 한 변화의 시기 의 문을 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 부마항쟁과 그 변화의 부 이 장 부마고의마항쟁과 부1쟁과역고다사조지 · 를다지는를.사강항쟁지는를.사은마고의마..사했지5를9의

기간을 우리는 히 서울의 이라 부른다. 철 성 같던 유신체제가 자기 리를
고 때 국민들은 한 으로는 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에, 다른 한 으로는 정치,
경제 상 에 대한 체적인 불 감에 싸인 같지 않은 을 보내고 있었다. 서울
의 은 부산에서 시작되어 서울에서 불 한 을 우고 광주에서 하게 마무리
되었다. 부마항쟁이 19 9년에서 1980년에 한국 사회의 권력 재 기의 서 을 연
것이었다면, 5·18민주항쟁은 이 권력재 의 마무리 계에 발생한 사 이었다.

12·12군사반 에서 5·1 계 대조치까지가 세계에서 가장 긴 쿠데타 였다면, 부
마항쟁의 시작에서 광주항쟁의 장 한 패 까지는 민주주의를 한 하나의 운동기간으
로 자리매 되어 한다. 한 세대가 지 오늘의 장에서 본다면 부마항쟁에서 5·18
민주항쟁까지의 기간은 하나의 전환기이고, 이 기였다. 그 데 198 년 이후 현 의
정치에서 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은 불 하게도 서로 경 하는 위치에 이 했다.

려 바와 같이 지 20여 년 간 한국정치는 극심한 지역감정에 의해 우되어
다. 권자의 신지역에 라 국가나 시민사회가 어 사 을 기억하고 기 하는
방식에서도 명 도차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이 연속
성을 는 사 에도 불구하고 호 지역감정의 악화 속에서 민주화운동 내에
서조차 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을 같은 도에서 보지 않고 경쟁관계 또는 우 관계
인 것 생 하는 경 이 일부이지만 있다는 사 을 부인할 수 없다. 부마항쟁 당시
전라도 군인들이 와서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을 마구 패 다는 유언비어가 졌고, 광
주에서는 경사도 군인들이 와서 전라도 사 들을 다 인다라는 유언비어가 리 졌
다. 이 유언비어는 국민의 군대여 하는 국군이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두
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 을 나 대로 리적으로 명해보려는 의도에서 나
것이었지만, 그 이후의 현 정치에 음 한 규정력을 지 게 되었다. 민주화를 한 역
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역으로 라 상 은 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이
동일한 도에 인 연속적인 사 이 , 서로 래 수 없는 사 이라는 점을
하게 만들었다. 민 수 의 대규모 시위에 대한 지 권력의 유 극을 불사하는
강경 압을 아보려는 재규 중 정보부장의 10·26사 거사 동기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의 명적 연결고리였다.

본고는 부마항쟁의 발발에서 5·18민주항쟁의 압에 이르는 기간을 하나의 이기로 보는 전제 하에, 이 기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두 사을 비교해보려고 한다. 이 두 사은 명 동일한 도상에 여있으나, 사된 폭력의 강도, 군부와 시민의 대, 사을 은 사들의 대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본고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에 대한 권 의 상 인식과 대 양 를 할 것이다. 이를 해 두 항쟁에 대하여 어 정도의 폭력이 사되었으, 두 지역의 시민들은 자신들에게 가해 국가폭력에 대하여 어 게 서로 다 게 대 하였는지 할 것이다. 또한 항쟁을 발하고 발전시켜 나간 변수로서 두 지역이 한 유력한 정치인인 의 제명과 대중의 체 가 과 항쟁 발발 이전에 지역의 민주역 이 어 정도 성 했는지를 살펴 것이다. 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의 비교연구는 한국 사회의 한 권력재 기에 발생한 민중항쟁의 점과 차이점을 으로 역사적 전환기의 성 과 그 전환기에 적되고 성 해 간 민중역 의 한계와 가 성을 히는 시도라는 의 를 지낸다.

2. 집권 블록의 대응

1) 부마항쟁과 10·26 사건 이후 집권 블록의 대응

부마항쟁이나 5·18민주항쟁에 대한 은 연구들은 항쟁의 사회경제적 경 등을 해 항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에 없었다고 명하는 경 이 있다. 이 사후적 인 명은 사 발생 당시에 항쟁의 당사자나 항거의 대상이 된 권 모두 항쟁 이 이 게 폭발적으로 하게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었다는 사 과는 맞아 어 지지 않는다. 5년 동 한 도 데모가 일어나지 않았던 부산대학에서 발생한 시위 가 와 세무서의 습 이라는 과 한 양상으로 지고, 거기에 수만 명의 시민이

가세하였다는 사실은 유신정권에게는 큰 이아 수 없었다. 음 학내 시위를 주도했던 사 들이나 시내에서의 가두시위에 적극적으로 가 했던 사 들 모두 시위가 폭발적으로 간 데 대해 라움을 하지 못했다.¹⁾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 이라는 강경 조치를 한 것은 또 한 사 들을 라게 만 는 일이었다. 당시의 계 은 “비상계 은 전쟁 또는 전쟁에 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위 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 된 지역에 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²⁾ 부산의 상 은 적 인 일이긴 했지만, 계 이 정한 비상계 의 선 요 과는 무나 거리가 있었다. 박정희 정권이 부산에서의 데모에 대해 아주 신속하게 과 대 을 한 바 예는 일 의 강박관 이 자리 고 있었다.³⁾ 유신체제는 일체의 비 을 하지 않는 극도로 경 된 체제로 모 비 을 철저히 제하려 하였다. 유신체제가 무나 쉽게 무 비 밀은 바로 그 경 성에 있었다. 유신체제라는 대 권력은 권력에 대한 비 에 대해 아무 내성을 지 못했기에 작은 도 질 못했다.

박정희는 또다시 군을 동원하였다. 19 2년 10월의 유신 위쿠데타 이후 음으로 년 만에 군을 동원한 것이다. 사 박정희는 하게 군을 동원했다. 1964년 6·3사 당시의 계 , 1965년의 한·일 회 반대시위에 대한 위수 , 19 1년의 교 반대 시위에 대한 위수 , 19 2년의 유신 쿠데타를 위한 계 등에서 보 박정희는 위기 상 이 치면 군을 동원하거나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박정희가 동원한 부대는 수부 대와 해 대였다.

수부대와 해 대는 무자비한 압작전을 다. 군이 투 되기 이전에 , 세 무서, 언 사 등에 대해 습 과 괴, 방화 등 대 히 과 한 동을 하던 시위대는 군의 강경 압 작전에 어지고 말았다. 부산과 마산에서 수부대 등이 대 히 강력한 폭력을 사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압군의 폭력성은 당시의 부상자 계에서 나타 다. (부상자 000명 중 명이 두부 부상 군인들에게 맞아 다

시민들의 80 이상이 리에 상 를 었다. 다 시민들의 명을 늘어 으면
 군인들이 어 게 두들겨 는지를 수 있을 것이다. 자 , 상, , 전두
 부 상, 후두부 , 면 , 면부내부 , 전신타박상, 경 상 . 조 제
 , 부마사 와 재규) 부산에서 “대 을 은 -16을 두 루 을 아대는
 수부대의 무자비한 압에 시위대는 깨어지고 무수한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부
 산 시내에는 다시 강요된 으로 들었다.”⁴⁾

부산과 마산에서 계 과 위수 을 선 하고 수부대와 해 대를 투 한 강경
 조치로 시위의 불 은 일 히는 했다. 유신 정권은 부산과 마산에서 사 압
 에 성 으로 일시적으로 강상 에 들어가게 되었다. 부산과 마산에서는 일 시
 위가 잠잠해졌지만, 계 의 속에서도 시위의 불 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었다. 10월 19일에는 서울대에서 학생운동 관 학생들을 강제로 학시키는 지도
 학제 시에 항의하는 데모가 있었고, 10월 22일에는 경 대학교가, 10월 23일에는
 대학교가 교에 들어 다. 10월 24일에는 국어대학교, 25일에는 전대학
 교에 반정부 유인 이 살 되었다. 10월 25일에는 대구 계명대생 2 명이 데모를
 였다.⁵⁾ 1960년의 4월혁명이 대구 2·28사 과 마산 3·15의거를 거치 서서히
 산되었 이, 반유신투쟁의 불 도 지지 않은 지고 있었다. 이 상 을 가장 정
 히 고 있었던 것은 중 정보부장 재규였다. 박정희의 권 기관을 어 중
 정보부는 체제유지의 가장 중요한 목이었다. 부마항쟁이 발발하자 재규는 10월
 18일 2시 부산으로 아가 부산의 민심을 보고 고, 서울로 아와 박정희
 에게 상 을 보고했다. 부마항쟁에 대한 재규와 박정희의 서로 다른 상 인식과 대
 은 10·26사 의 적인 동기가 되었다. 조 지만, 재규 자신의 명을 들어
 보자.

“부마사태는 그 진상이 일반 국민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본
 인이 확인한 바로는 불순세력이나 정치세력의 배후 조종이나 사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일반 시민에 의한 민중봉기로서 시민이 데모대원에게 음료수와 맥주를 날라다 주고 피신처를 제공하는 등 데모하는 사람과 시민이 완전히 의기투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고, 수십 대의 경찰차와 수십 개소의 파출소를 파괴하였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부산에 다녀오면서 바로 박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김계원, 차지철 실장이 동석하여 저녁식사를 막 끝낸 식당에서였습니다. 부산사태는 체제저항과 정책 불신 및 물가고에 대한 반발에 조세저항까지 겹친 민란이라는 것과 전국 5대 도시로 확산될 것이라는 것 및 따라서 정부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는 것 등 본인이 직접 시찰하고 판단한 대로 솔직하게 보고를 드렸음은 물론입니다. 그랬더니 박대통령은 버럭 화를 내더니 앞으로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 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명령을 하여 사형을 당하였지만 내가 직접 발포명령을 하면 대통령인 나를 누가 사형하겠느냐'고 역정을 내셨고, 같은 자리에 있던 차실장은 이 말 끝에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이고도 까딱없었는데 우리도 데모대원 1, 2백만 명 정도 죽인다고 까딱 있겠습니까' 하는 무시무시한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대통령의 이와 같은 반응은 절대로 말 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었습니다. 박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압니다. (...) 이승만 대통령과 여러 모로 비교도 하여 보았지만 박대통령은 이박사와는 달라서 물러설 줄을 모르고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기필코 방어해내고 말 분입니다. 4·19와 같은 사태가 오면 국민과 정부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은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될 것인지 상상하기에 어렵지 아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19와 같은 사태는 눈앞에 다가왔고 아니 부산에게 이미 4·19와 같은 사태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6)

부산과 마산에서 군을 동원하여 일시적으로 사 를 정시 지만, 국내 의 정보를 하는 재규의 장에서 때 민 의 전국적 산을 할 수는 없었다. 재규 는 이 현 을 있는 그대로 박정희에게 보고했지만, 박정희는 본적인 대 을 세우는 대신 자신이 발 명 을 내리겠다고 호언했고, 와대 경호 장 차지철은 보 아의 필 를 들 이 “우리도 데모대원 1, 2 만 명 정도 인다고 까 있 겠습 까”라 강경 을 부 다. 재규가 던 박정희를 수의 심정 으로 수 에 없었던 이유는 필연적으로 산 반체제시위에 대한 강경유 압을 해보려는 것이었다. 부마항쟁의 은 유신체제를 사시 것은 아 었지만, 유신 체제는 그 을 감당하지 못하고 에 정점부 무 지기 시작한 것이다.

재규는 박정희를 사살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무너져 구 없이 군본부로
 다가 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민주혁명을 떠난 재규의 거사는 그의 체포로
 폐로 돌아다. 유신잔당들은 유신체제의 리는 어지만 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것은 1960년 4월혁명 당시 이승만의 하 후의 상 과
 는 다른 것이었다. 이승만의 하 는 이승만 체제 자체의 이 수 없는 이었지
 만, 10·26사 은 자연인 박정희의 음으로 수도 있는 것이었다. 4월혁명 당
 시는 이승만 체제가 시민들과 학생들이 로 들었다면, 10·26 후의 상 은
 이와는 달 다. 부마항쟁에서 수부대의 폭력이 무했지만, 사 이 은 것은 아
 었다. 10·26사 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인명 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민중들이 를 리지 않은 상 에서 독재자가 먼저 를 것이었다. 때문에 상
 은 유통적이었다. 민주화로 것인가 아 면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가 지속 것
 인가 과연 당이나 민주화운동 이 권할 수 있을 것인가 아 면 유신체제 내부
 의 정 이나 인이 리 은 괴 , 유신체제의 로운 수장으로 등장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유신체제 붕괴의 구조적 필연성을 어 의심하지 않지만, 그 붕괴의 과
 정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히 아무도 유신대학이라 불리던 부산대학
 에서 유신체제붕괴의 가 리리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5년 만에 음 일어 학내
 시위가 5만 명 이상의 대중이 여하는 한 가두시위로 발전하리라고 아무도 예상
 하지 못했고, 한 시위가 일어났다고 정부가 바로 비상계 을 선 하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유신정권의 오른 이 리를 리라고는 더더 예상하지 못했다.
 예기치 못했던 급작 러운 상 에 가장 신속하고 기민하게 반 했던 것은 전두환 등
 신군부였다. 군 내부의 사조 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박정희가 신
 정규 사 업생들을 중심으로 키 군부 내의 한 었다. 이들은 박정희와 차지
 철의 비호 속에 군 요 과 와대 경호 등을 오가 세를 성한 정치군인 이었
 는데, 군부 내에서는 선 과 시기와 제의 대상이기도 했다. 10·26사 은 이들에게
 다 재 이었지만, 로운 기회이기도 했다. 하나회 회장 전두환은 와대 경호

작전차장보와 1사 장을 거 10·26사 당시에는 보 사 관으로 재 중이었다. 10·26사 당시 정동 역사의 현장에 있던 사 은 유신체제의 권력서 14위에 해당하는 대 , 중 정보부장, 와대 경호 장, 와대 비서 장 등이었다. 이 에 사 후 계 사 관을 계 되는 군 모 장 정승화도 재규의 대로 정동 가 의 다른 에 와 있었다. 정승화는 그 때문에 시 재규와 결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아 했다. 이는 유신체제가 위로부 무 지면서 권력의 이 발생했음을 의 했다. 유신체제의 정점에 의 이 생기고, 계 사 관 인 군 모 장마저 대 살해 사 에 연루된 것이 아 는 의심을 계 되고, 보 사 부를 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 중 정보부는 역적 기관이 되어 대 이 된 상 에서 보 사 관 전두환이 계 하의 동수사본부장이 되었다는 것은 신군부에게 로운 기회일 수도 있었다. 유신체제 내에서 권적 지위를 리던 신군부는 박정희의 살이라는 대 명의 위기 상 에서 기 권의 유지를 어 정권의 장악을 해 과감하게 움 이기 시작했다. 계 사 관 정승화는 군 장에 불과한 보 사 관 전두환에게 권력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못마 해 했다. 그는 전두환을 보 사 관에서 해 하여 지방으로 시 계 을 세웠으나, 그 정보가 되어 전두환은 거 로 정승화를 체 하게 된다. 이른바 12·12군사반 이 바로 그것이었다.

전두환 등 신군부가 모 정보를 장악한 유리한 위치에서 과감하게 움 인 반면, 당과 재 민주세력과 학생들은 당면 목표였던 유신 철폐 를 어 박정희의 살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 의 전 에 당 해 했다. 독재자 박정희의 제거는 민주세력으로서도 내심 바라는 바였을 지만, 그를 아 인 사 이 유신체제의 목이었던 중 정보 부의 수장 재규였다는 사 은 당 러운 일이었다. 전두환 등 유신잔당들은 적극적으로 재규를 아 지를 인 패 아로 아 지만, 민주세력은 여기에 아무 대 을 하지 못했다. 재규 자신의 으로 인하여 10·26사 이 재규 발 민주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권력 내부의 과 등으로만 된 상 에서 민주세력은 재규를 호할 계기를 찾지 못했다. 인권변호사들조차 음에는 재규를 변호해 하는 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가, 점차 그의 인 에 매 되고 민주혁명에 대한 그의 정성

을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일에서 재규의 구명운동이나 재가 움직이던 것은 재규의 재이대원에서의 결을 1980년 4월의 일이었다. 재민주세력으로서의 부마항쟁으로 일을 당하고 리부들리기 시작한 유신체제를 로의 으로 무 기회를 재규의 때 이른 거사로 어리게 되었다고 식했을지도 모른다. 재민주세력은 유신을 대체할 일정과 로운 에 른 정치 일정이 제시되는 대신, 유신 에 라 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 권한대 규하를 정식 대 으로 선 하겠다는 일정이 발표되자, 더 이상 상 을 시할 수 없었다. 재민주세력은 11월 24일 동 회관에서 결 식을 위장한 회를 어 거국민주내 의 구성과 조속한 정치 일정의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은 당대로, 재 는 재 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로운 상 에 대한 조 적 비가 무나 부 했다. 학생들은 겨울방학 기간을 학생회 부 을 위한 비기간으로 았고, 1980년 학기 학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을 학내 민주화 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신체제의 언은 필연적인 것이었지만, 재 민주세력이나 학생세력은 그 필연의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기에는 주체적인 역 이 부 했다. 그것은 유신체제가 기고 간 저주였다.

2) 5·18민주항쟁을 전후한 시기 집권 블록의 대응

구도 예상하지 못한 부마항쟁을 맞이했을 때, 유신체제의 권 은 그 대 방 을 고 을 아 할 만 되었다면, 5·18민주항쟁을 전후한 시기에 권 은 내부적으로 결 있었다. 5월 1 일 계 대조치를 두고 5월 16일 전 군지 관회의에서 군의 정치 에 대하여 군수기지사 관 중장이 반대 의 8) 을 고, 5·18민주항쟁에 대한 과 압에 사 장인 31사 장 정 장이 반발 하고, 하 전 도경국장이 군 투 에 반대하는 등 국가기구의 상 부에 있던 인 들이 모두 신군부를 지지한 것은 결 아 었다. 그러나 이 국가권력의 심을 장악 한 신군부는 어 방 으로 나아 지 의 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 무 하고 무 했

던 대 규하는 모 권력을 신군부에게 내 것이나 다 이 없었다.

어 면 더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 히 중산 의 동 이었을 것이다. 부마항쟁은 시
민들로부 라울 정도로 거운 지지를 았다. 부마항쟁에 대한 모 자 는 시민
들이 마나 게 시위대를 지지하고, 과 음 수 등을 제 하고, 도 를 제
하고, 나아가 시위에 여했는지를 감 게 기술하고 있다. 10·26사 은 부
마항쟁이나 다른 지역의 반유신투쟁이 요구하고 기대했던 것을 뛰어 는 박정희
의 음을 가 사 이었다. 무려 18년 동 권했던 박정희의 작 음은 국
민들에게 독재의 말이라는 환희만을 가 다 것은 아 었다. 부마항쟁이나 5·18
민주항쟁에 대한 선 연구 일부에서는 “10·26으로 대부 의 국민들은 한국정치의 장
래에 대해 관”⁹⁾했다고 하지만, 당시 은 사 들은 한국이 어 로 지에 대해 시
불 해했다. 5월 13일과 14일, 15일 3일에 서울을 비 한 대도시에서 학생들이
거리로 나 을 때, 시민들은 거의 동 하지 았았다. 3·1운동 이후의 학생운동사에서
이 정도 규모로 학생들이 려나 을 때, 시민들이 이 게 지켜보기만 했었던 적은
이 때 이었다. 신군부는 시민들의 마음속에 불 심리가 있다는 것을 았고, 오히
려 부 다. 대표적인 사례는 1980년 5월을 전후한 의 조 적 유 었다. 당시
에 중 정보부 등 정보기관은 일본 내 조사 로부 한의 이 박했다는 보
를 수했다. 그러나 인민군의 동 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군본부 정보 모부에서
는 력이동의 후가 전 없다는 이유로 이 보가 가치 없다는 결 을 내 다. 그
에도 불구하고 5월 12일 시국무회의에서 보 사 관 중 정보부장인 전두환은
과 결과 를 보고했고, 정부는 군과 경 에 “ 국내 요 사 에
승하여 괴의 대 도발 투가 예상된다” 비상경계체제에 하라는 명 을 내
다. 이는 군본부의 당부서가 “ 한의 비 라는 보에 신 성이 없다”
고 했음에도 신군부가 학생들의 시위와 이 보를 연결시켜 국가 위기 상 을 조
장하면서 “지역계 을 전국계 으로 대 시 다”는 것¹⁰⁾을 의 한다.

전두환 등 신군부는 군사반란을 일으켜 상관을 체포하고, 정보를 하여 국가위기를 부리는 등 권에 대한 한 의지를 보였다. 그들의 권의지는 유사도 불사할 만 강력한 것이었다. 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신군부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을 장악한 시위와 폭동을 압하는 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 등등의 이유로 민주 일에서는 신군부가 한 권명을 기 위해 광주라는 지역을 의도적으로 선하여 을 부 다고 고 있다. 5·18민주항쟁에 대한 수부대의 강경 압을 음모 이나 사전계 에 하여 해 하는 경 을 말한다. 한 예로 박현 는 신군부가 의도적으로 광주를 선 하였다면서 “역사적 반동의 은 광주가 아이였더라도 다른 어 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었지만” 당시 강경 군부는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승부 를 “ 저항의 역사를 가지면서 경제력으로 약하고 과 또 속에서 에 해 있을 아 라 속에서 체 을 운 전 으로 선 ”하였다고 주장했다.¹¹⁾ 이에 대해 정해구는 “신군부 의 요 유도의 고의성 또는 계 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 같은 주장들의 에서 본다면, 수부대의 무자비한 압은 광주에서 요를 대신켜 신군부 쿠데타의 명 을 보하기 위한 고도의 전 적 계산의 산 ”인데, 이 강경 압이 과연 “신군부 의 고의적인 계 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신군부 장에서 때 저항 발생의 대 우려 지역은 서울을 비 한 수도권”이었으 , 신군부는 이 때문에 수도권에 더 은 수부대를 치했다고 강조했다.¹²⁾

3. 공수부대의 폭력

1) 부마항쟁과 공수부대·해병대의 진압

박정희는 부산에 계 을 선 한 수부대를 투 했다. 당시 전사 관이었던

정 주는 수부대가 폭동 압이나 쿠데타에 자주 이 된 것을 이 게 명했다. “ 수부대는 권자로서는 아주 기 은 부대이다. 기동성이 있고 경 화 있어 간 한 부대이다. 전투력은 또 일당 이 아닌가. 더구나 일선 부대를 때 군 과의 차 문제 등에 대해 신경 필요가 없다”¹³⁾ 수부대는 군의 작전 제권을 벗어 의 부대였으 , 정한 지역을 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에 자유 로웠다.

부마항쟁의 가자들은 한결같이 수부대의 무자비한 압에 대해 언하고 있다. 계 군은 시내에 투 때부 을 하고 무력시위를 했으 , 무수한 부상자를 내 면서 독하게 시위를 압했다. 계 군이 시내를 장악하면서 정말 살 한 위기가 조성되었다.¹⁴⁾ 부산의 언 기관에는 수부대의 무자비한 폭 을 호 하는 제보가 발 다고 한다.¹⁵⁾ 계 군은 심지어 폭 을 말리는 경 관들도 마구 이로 두들겨 다. 은 군인들의 폭 은 무지 지한 것이어서 “데모 군중에게 봉을 때는 어깨 을 때리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지만, “군인들은 데모 군중도 아 고 아무 위 도 주지 않는 양민들의 리를 주로 때 다”고 한다. “ 타이를 매지 않고 장발을 했 거나 어 보이는 자들 중에 까 없이 들려가 수 없는 수모를 당한 사 들” 이 왔다. “ 히 으면 리 간다고 들려 고 른 음으로 어가면 수상 하다고 들려 다”는 것이다.¹⁶⁾

일부 자 는 수부대에 비해 해 대는 폭력을 사하지 않아서 오히려 시위대에게 두들겨 맞았고, 그 때문에 시민들의 신 를 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 그러나 정작 해 대 사로서 부산의 시위 압작전에 투 된 한 사 은 수부대보다 해 대가 더 무자비하게 시위를 압했다 이 게 회고하고 있다.

쫓기는 학생들은 동네 슈퍼로, 혹은 다방으로, 당구장으로 심지어는 워낙 다급한 나머지 안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거리의 공중 전화박스로도 몸을 숨겼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전의 공수부대나 일반 육군 계엄군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대 1로 끈질긴 추적 작전을 시작한 것이다. 순식간에 어느 쪽이 데모하는 학생이고 어느 쪽이 진압군인지, 엉망진창으로 뒤엎킨 상황이 벌어졌다. 이와 같이 1대 1로 추적하는 데모 진압은 진압 사상 전후무후 했다. 지휘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병사들 각각의 자발적인 의지로 일어난 행동이었으며 마치 동네 건달들의 패싸움 같은 마구잡이식의 난투극이었다. 혈기 왕성한 해병대들이 개개인을 상대로 죽기살기로 맞서 싸우는데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겁 많은 민간인인 대학생들이 당해낼 재간이 어디 있겠는가. (...) 딱 한 번 그런 소동이 일어난 이후로 극렬한 시위의 본고장이며 저 유명한 부마사태로 악명을 떨치던 부산과 마산은 너무나 조용했다. 학생들 사이에선 데모하다 걸리면 해병대 계엄군에게 맞아 죽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대학생들 사이에 퍼졌나갔다. 무엇보다 1대 1로 죽기살기로 끝까지 추적하는 계엄군이 무서웠던 것이다. 체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맞붙어 싸우며 안 죽을 만큼 패 닦는 것이 목적인 계엄군은 대학생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 주었던 것이다. 데모하던 학생들이 말하기를 [예고! 해병대 놈들은 사람 새끼도 아녀! 완전히 미친 놈들이라구. 상대하면 절대로 안 돼] 라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¹⁸⁾

부산에는 비상계 이, 마산에는 위수 이 시되었지만, 그 적인 차이가 현장에서의 시위 압 방식의 차이를 은 것은 아 었다. 부산과 마산, 수부대와 해 대 를 가 것 없이 계 군은 무자비한 폭력을 사하여 은 부상자를 았다. 계 군의 강경 압으로 시위가 끝나 다는 데 대해서는 부마항쟁과 관 된 모 자 가 일치 한다. 여기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의문은 똑같은 수부대가 투 되어 무자비한 압을 는데 부산과 마산에서는 시위가 압된 반면, 광주에서는 오히려 시위가 산되었는가하는 점이다.

2) 5·18민주항쟁과 공수부대의 진압

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이 시기적으로는 월의 차이 에 나지 않는다. 두 항쟁 에 압군으로 투 된 부대도 똑같은 수부대였고, 무자비한 압을 다. 그 다 면 우리는 두 지역의 시민들이 다 게 대 한 이유를 어 게 명할 수 있을까 그 이

유는 압군 과 시민들의 두 방 에서 되어 할 것이다.

먼저 부마에 투 된 수부대와 광주에 투 된 수부대가 같은 부대였는가에 대해
해 보아 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1, 3, 5, , 9, 11 수여 과 같은 부대의 차
이를 말하려는 것은 아 다. 똑같은 부대라 할지라도 월 사이에 큰 변화를 을 수
있고, 군대라는 정상 지 관의 지 방 과 현장의 위기가 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다. 무 보다도 먼저 유 해 할 것은 수부대가 부마항쟁을 성
적으로 압하였다는 사 이다. 부마항쟁 후 보 사가 작성한 「부마지역 학생 요
사 교 」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동부대가 “ 동 계에 신속 압, 군이 압을
위해 투 되면 인명을 상하지 않는 위 내에서 과감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타 데모
대원의 간 을 서늘하게 으로 군대만 보면 이 나서 데모의 의지를 상 위
력을 보여 . 군이 동하면 강의 위 과 위력을 과시하여 위압감 주어 ”하 ,
“ 기 방지. 화 등의 기습 에 대비”해 한다고 했다. 또 “사회일 에
서 발생하는 사 한 불 요 라 할지라도 이를 예의주시 필요시에는 동, 동
계에 전히 압할 수 있는 대 을 강구해 하 , 사회불 의 요인이 도리 수 있
는 학원과 교, 기타 정관서에 인 해 있는 급 부대들을 지역 내 요에 동적
이고 성 있게 대 하기 위하여 상시 동역 의 보와 철저한 폭동 압 계
등 대비 이 요 ”된다는 결 을 내리고 있다.¹⁹⁾ 당시 보 사 정보 장이었던
권정달도 “부마사 압작전에 대한 가과정에서 시위의 대규모 산을 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는 동 계부 수부대 등을 투 해 강경 압을 하는 것이 적이라
는 반성 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이 교 이 5월 1 일 비상계 전국 대 이후 발생
예상되는 시위 압 작전의 기본방 을, 신군부 심세력이 수부대에 의한 기 강
경 압으로 정하는 데 적지 않은 을 다고 생 ”한다고 1996년 전두환 일당
의 내 사 수사당시 에서 술했다.²⁰⁾ 요 대 신군부가 장악한 보 사 부는 부
마항쟁 당시 시위가 산된 이유를 동 계에서 강경하게 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고 생 했다. 보 사가 보기에 을 수 없을 정도로 산되던 시위는 수부대가 투 되어 데모대원의 간 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과감하고 무자비하게 압하자 아 것이다.

신군부는 1980년 이 되면 대학가가 시 러 질 것으로 보고 군을 동원하여 시위를 기에 압해 한다고 보았다. 군본부는 1980년 2월 18일 수부대 후방 주요부대에 정 을 시하라고 지시했다. 정 이 폭동 압 을 말하는데, “ 수부대의 경우 원래 교 과정에는 1주일에 4시간 정도의 정 이 되어 있었지만 이때부 는 거의 모 교 을 기하고 정 만을 중적으로 시” 했다고 한다.²¹⁾ 국방부 과거사위 보고서도 하사관이 주 인 수부대원들이 1980년에 들어와서는 부대에서 도 하지 못한 강도 은 정 을 계속 았다고 기술하고 있다.²²⁾ 군대를 투 하여 “시위를 세적으로 압하는 것은 시위가 폭동에 해당 경우에 적 되는 작전 ”이었다.²³⁾ 신군부는 강력한 정 을 계 대조치 전 인 5월 15일과 16일까지도 전국의 정부대에서 시하는 한 , 군을 투 하여 시위와 요를 압하는 정작전을 위한 비에 박차를 가했다.²⁴⁾ 신군부는 대학가의 학을 3월 4일부 사 간 정작전의 성을 하고 문제점을 보 하기 위한 을 시하고, 이어서 3월 6일 1980년도의 제 1차 정회의를 했다.²⁵⁾ 다 음은 이 회의에 제 된 정작전의 요와 정부대장들이 내 회의의 결 이다.

26)

구분	소요	폭동
정의	학생및 사회집단이 회사를 비정적인 방법으로 표현 (법질서를 위협)	다중이 집단이 사회 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폭도화 (법질서를 파괴)

진압책임	경찰	군, 경찰
작전성격	수세적 저지	공세적 진압
작전목표	확산방지, 자진해산 (이해설득, 봉쇄 저지)	돌격, 와해, 재집결 불허 (분쇄, 주모자 체포)
장비	자기보호 우선 (방석모, 방석복, 방패 등)	경무장 : 기동에 유리 기본화기 회대활동(진압봉 휴대 : 와해 후 체포시 필요

27)

- 가) 강후 부 적인 저항운동은 예상되나 대규모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심요원은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교 적 경 등에서 부정적 요 에만 된 이상주의적 목저항 세력
- 나) 대다수의 선 한 학생의 선도와 보호조치는 요 되나 문제 학생, 교수는 강경대 으로 사회로부 의 리가 요
- 다) 군의 투 을 요하는 사 발생시 강경한 조치가 요 .

수부대가 장기간에 정 을 증적으로 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째, 정 에서 가상적은 폭도들이다. 의 강도가 다는 것은 지 이 고 되다는 것을 의 하지 않는다. 지 관들이 보기에 압의 강도가 약하다거나 폭도들 에게 밀 다거나 하면 가 한 차려가 기 마 이고, 이 일이 하루에도

달간 반복되다 보면 폭도에 대한 적대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기 마 이다. 둘째, 수부대 내에서는 수부대가 부마사 를 성 적으로 압하였다는 사 에 대해 다 자부심을 고 있었다.²⁸⁾ 11 수 신의 한 사는 1980년 5월 동을 두고 부마사 를 압한 여 의 한 부대장으로부터 “자신들이 마나 무자비 하고 호하게 시위를 압”하였는지에 대해 “자랑 게 이 기”하는 정신교 을 았 고, “부대원들 역시 그것을 시하는 위기”였다고 회고했다.²⁹⁾ 수부대를 재한

조 제도 “ 전사에선 부마사 의 압을 성 적으로 가했고 이 자신감이 광주사
에서 강경 압으로 나서는 동기를 부여했던 것 같다”면서 광주항쟁 압 당시에 3여
장 들은 “우리는 부마사 를 압했던 부대다”라고 시민들에 게 을 주기도 했다
고 서술했다.³⁰⁾

오랜 정 에 지 수부대 장 들의 위기도 부마항쟁 압당시와는 비교가
정도로 살 했지만, 지 관들은 이 사들을 자제시키기는 오히려 강경
과 압을 부 다. 광주항쟁의 압에 가했던 한 수대원은 부대가 압을 마치고
주 지인 조선대 연 장으로 아 을 때, 중대장이 화를 내 렷을 시키더
“구타를 강력하게 하지 않는다고 더 강하게 무자비하게 구타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회고했다.³¹⁾ 문제는 지 관의 이 지시가 지 관 인의 이상성 이나 동에 의
한 것이 아 라 군의 식 지 체계 - 이 신군부에 의해 장악 된 - 를 해 거듭 하
달 된 방 이었다는 점이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계 사 부와 2군사 부
등 상부의 지시가 “ 수부대원들의 과 압을 부 질했다”면서 군 상 부가 어 식
으로 강경한 방 을 연속해서 하달했는지를 생생히 히고 있다. 계 사 부사 관인
군 모 장 시는 “전 대학교 요에 호한 계 사의 조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보 사 계 에서 전교사 관에게 지 조언, 강력하게 다루도 조치해 것을 요 ”
했으 , 2군사 관은 “전 가 작전부대 투 ”하여 “주모자 체 ”하고 “ 호한 조치”를
하고, “ 고 위반자는 가 수 동원 중 리”하 “ 요자는 후의 1인까지
하여 타 체 ”할 것을 거듭 지시했다.³²⁾ 2군사 관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본 화 된 5월 20일에 가서는 “계 군의 이성적 동”을 강조 으로 “간 적으로나
마 계 군의 과 한 위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광주 시민들의 항쟁을 “이적
위”로 규정했다. 광주항쟁의 문이 다른 지역으로 산되자, 계 사 관 이희성은 5

월 21일 화문을 발표하여 광주시민들의 저항은 불 자나 고 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과거사위 보고서는 “사 을 한 불 자의 으 로 시위를 규정하는 상 부의 인식과 지 들은 수부대원들에게 일정하게 을 다. 여기에다 현장에 유 된 유언비어는 수부대원들이 불 자의 으 로 신” 했으 , “ 못된 인식은 결과적으로 수부대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 압을 하는 경이 다”라고 결 지었다.³³⁾

당시 주한 국 대사였던 라이 은 광주에서 한 수부대의 만 에 대한 국 의 문제가 제기되자, “부마사 때 수부대의 동으로 보아 우리는 광주에서 그 잔 한 만 이 어지리라고는 생 하지 않았다. 우리의 경 으 로 때 그것은 한국군의 동 위에서 게 벗어 것이었다. 사 광주에서의 보고는 무 무시 무시한 것이어서 그 같은 잔학 위가 어졌다는 것을 을 수가 없는 정도였다”라고 말했다.³⁴⁾ 그러나 국정부는 수부대가 “부마항쟁을 어떠한 방식으로 압하였는지 히 고” 있었기 때문에 수부대가 정 을 강화하자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가 제된 국방정보국의 한 전문은 “9년 10월 부마사 당시 전사 장교와 사 들은 대 을 부 리겠다는 자세의 의지를 고 있었다”라고 고 있다. 국 은 “더 나아가 수부대가 시위하는 대학생들에게 발 할 수도 있으 그 때 급 수 있는 문제까지 ”하기도 하였으 , 광주에서 상 이 어 에는 “전부대의 압박 이 사 를 더 악화시 다고 ”했다.³⁵⁾

요 대 광주에 투 된 수부대는 부마항쟁 당시 투 된 수부대와 똑같은 부대였지만, 박정희의 음이라는 과 12·12 군사반 당시의 결정적 역할을 경 했다. 1980년에 어들어서는 강도 은 정 을 지속적으로 았고, 현장에 투 된 에 는 일선 지 관과 군 상 부 모두로부 강경 압을 요구 았다. 수부대원들은 지

관과 군 상 부의 요구가 아 더라도 불 자와 고 의 선동에 의해 폭도로 변 한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압할 한 동인을 고 있었다. 반면, 조 제는 “부 마사 에서 수부대가 한 역할은 과장된 면이 다”고 주장했다. 부산에 투 된 수 3여 은 10월 18일 저 8시 부산시 중구 동에서 3 명의 시위대와 한 부 “ 식간에 이들을 박살내 다”는 것이다. “그 로 수부대가 한 일은 시위 압이 아 라 주로 인들의 구타”였다고 한다.³⁶⁾ 부산에서도 수부대는 무자비했지만, 폭력의 강도는 광주 때에 비하면 계점을 을 만한 강도는 아 었다고 해 할 것이다. 신군부는 수부대가 부마항쟁을 성 적으로 압했으 , 시위 발발 기부 수부대를 투 하여 강력하게 압했으면 시위가 산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교 을 었다. 신군부와 수부대는 부마항쟁 압의 성과에 도 되어 광주에서는 시 위가 발발하자마자 보다 강력하게 압에 나 다. 결과는 신군부의 예상과는 반대였 다. 광주에서는 수부대의 무자비한 만 이 대학생과 일부 시민들의 규모 시위를 거대한 민중항쟁으로 바 어 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4. 시민들의 반응

수부대의 잔 한 압이 광주항쟁을 발한 적인 원인이지만, 저항 주체가 이 폭력을 어 게 인식하고 반 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 한다. 먼저 지적해 할 것 은 부마항쟁과 12·12 사 과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게 변화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다. 적어도 이 적으로는 그 다. 이 상식은 은 경우 지켜지지만, 때로는 하게 반당한다. 한국전쟁 전후 광 위하게 자 된 민간인 학살에서 국군은 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제주 4·3 사 당시에 연대장이 이 는 군이 보인 도는 서 년 같은 우 체나 일 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경 의 도와는 연히 구 되는 것이었다. 군에 대한 긍 정적인 이 지는 4월혁명 당시 계 군이 시위군중에게 보인 화적인 도 때문에

리 지게 되었다. 아이들이 위에 라타서 고 있는 사 만 민과 군의
 회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또 어 있을까. 전 국민은 아 지라도 적어도 부산과 마산
 의 시민들에게 수부대의 현은 군에 대한 기존의 긍정적인 이 지를 바 리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 군대가 국민을 마구 두들겨 패는 을 수 없는 광경이 에
 어 것이다. 광주에서 더 심하게 이 일이 어졌을 때 시민들은 “경상도 군
 인이 와서 전라도 사 를 말 다”는 말을 만들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 을 이
 게라도 명하려고 했다. 광주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산과 마산에서도 “전라도 군인이
 와서 경상도 사 다 인다”라는 말이 일부에서 떠 았다고 한다.³⁷⁾ 12·12군사반
 을 거치면서 군의 이 지는 다시 한 , 이 에는 전국적으로 되었다. 군 모
 장과 전사 관이 부하들에게 려가고, 전사 관 비서 장 오랑 등 어제까
 지 동 었던 반 군이 에 목 을 었고, 하 군본부 작전 모부장은 반
 군의 에 맞아 중상을 었다. 군의 식 지위체계가 이 반 을 압하지 못 으로
 한국군은 자기들 리 질하는 그 군대가 되어 것이다.

정 식은 부마항쟁 20주년 기 심 지 에서 발표한 문에서 “부마에서는 광
 주항쟁 수부대에 대한 전시민들의 저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위가 수그러들었
 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 의문에 답하지 않고 “인권을 유 하는 동
 적 국가폭력은 때때로 를 한 을 고, 때때로 강력한 저항을 는데, 이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여전히 모호하다”라고 서술했다.³⁸⁾ 그로부 10년이
 지만, 아 이 의문은 리지 않고 있다. 언제 대중이 어 방식으로 반 할 것인가
 를 예 하는 것은 불가 하 , 사후적으로라도 명하기는 사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에도 불구하고 이 의문을 해 수는 없다.

부마항쟁이나 5·18민주항쟁을 다 연구는 한 결 같이 지역의 운동전 을 강조하
 고 있다. 그러나 마산에서 1960년 3·15의거의 기억이 일정하게 작 한 것 이 에 부
 산과 광주에서 지 시기의 운동의 기억이나 전 이 항쟁의 발발에 을 다는

적인 거는 없다. 항쟁 발발 이전 지역의 반유신민주화운동의 역이 항쟁을 일으키는데 작했다는 거도 보이지 않는다.³⁹⁾ 주대환은 “10·18항쟁은 자연발생적인 대중봉기였다고 본다. (...) 지역적으로 경인지방 중심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일부 민주인사 학생들 중심이었던 0년대 민주화 투쟁과 부마항쟁은 적 관은 없다. 자기 연장선상에서 보려고 하면 된다고 본다. 오히려 의 제명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⁴⁰⁾ 부산의 경우 지역의 중심적인 대학인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에서는 194년 이래 한 도 학내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다. 부마항쟁에 적극 가한 부산대 학생들은 유신대학이라는 오명을 부러 했고, 이화여대 등에서 자의 성기와 가위를 그 지가 다는 거 없는 문이 떠 왔다는 언을 하고 있다.⁴¹⁾ 광주외의 경우, 198년 6월 2 일 전 대 교수 11명이 「우리의 교 지표」를 발표하였다가 전원 해 되고 두 명이 구속이 되는 등 고 작은 민주화운동이 부산에 비해서는 발하게 일어났지만, 그 다고 이 운동이 광주항쟁 발발의 적인 대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부마항쟁이나 5·18 민주항쟁에서 기존의 운동 은 그 말로 대중 속에서 1 로 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다. 광주의 경우 항쟁이 부산과 마산에 비해 장기간 지속되고 잠시나마 해방 간이 에 라 일정한 역할을 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항쟁의 발발 자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기는 어 다.

부산과 마산, 그리고 광주에서 보다 중요했던 것은 시민들의 여였다. 여한 시민들의 의식을 고 본다면 부산과 마산에 비해 광주에서 일정한 전이 있었다고 이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의 작 러운 음과 유신체제의 동요는 민주화에 대한 기대를 한 부 다. 히 유신체제 하에서 오랜 기간 박 았던 대중이 적 인 정치 동을 재 에 라 광주시민들을 한 호 사 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매우 졌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199년 10월의 부마항쟁 당시의 부산과 마

산 시민들의 정치의식에 비해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일정하게 서 있었다고 생 하지만, 이것은 어 까지나 광주 시민들이 부마항쟁의 결과 리게 된 로운 정치 환경의 을 었기 때문이다. 19 9년 10월부터 1980년 5월까지의 기간 은 한국 현대사에서 해방 후의 3년, 4월혁명 후의 1년과 더불어 게 찾아 간이었다. 그 월은 유신체제를 지 해 긴급조치가 해제되고, 문이 리고, 말의 자유가 회복되고, 학생회가 조 되고, 변화의 기대감을 가 에 게 된 그 기 간이었다.

수부대의 무지 지한 압을 했을 때의 상 도 부산과 마산의 경우와 광주의 경우가 일정하게 달 다. 부산과 마산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 히 한 시위를 은 에 수부대가 투 되었다. 의 괴와 방화, 세무서 습 , 화당사 습 , 언 사 습 등은 시민들의 가 자연 게 표 된 것이었지만, 이 한 동을 감 한 시민들도 이 동이 정 위반이 압의 대상이 수 있다는 것 을 무나도 고 있었다. 수부대의 무자비한 동은 시민들의 예상치를 뛰어 는 것이었지만, 또 한 으로는 그 압은 것이 것일 이었다. 반면 광주에서 수부대의 폭력 압은 으로 없는 것이었다. 광주에서 시민들은 먼저 를 괴하지도 않았고, 세무서를 습 하지도 않았고, 언 사에 붙을 지 지도 않았고, 지 구호를 조 을 이다. 그 데 부마항쟁의 압에서 시위의 발생 기에 강력 히 압해 한다는 것을 교 으로는 수부대의 과 압에 희생양이 되었을 이 다. 서 살펴본 것 광주에서의 수부대의 폭력은 부산과 마산에서보다 강 도 은 것이었다. 어 었던 유신체제하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한 시위를 해 그동 의 불만을 한 하였던 부산과 마산 시민들은 수부대의 강력한 압 이 시작되었을 때 이 자신들이 가 에 지를 모두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반면 박정희가 은 월 동 민주화에 대한 은 기대치를 키 광주시민 들은 아 자신들의 에 지를 간 하고 있었다. 음 수부대의 압이 시작되었을 때, 광주시민들은 에 도 다. 비무장의 시민이 되고 악에 바치고

무장한 수부대와 일 대 일로 맞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 때 수부대의 강경 압이 반복되다 보 도 가던 시민들도 수부대의 약점을 보게 된 것이다. 시위가 자를 끝까지 해 거하거나, 무자비하게 가 하는 수부대의 압박 방식은 하던 수부대원들을 화시키고 고 시 다. 한 시민들은 결자가 아 었다. 5월 18일과 19일 오후까지는 시민들이 수부대에 일방적으로 다면, 5월 19일 저 부 는 이를 들고 바리게이 를 으 수부대에 맞서기 시작했다. 시위의 을 기에 자 려던 신군부의 강경 압이 도를 어서게 되자,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라는 예기치 않은 결과가 어 것이다. 부산과 마산에서도 데모학생이 맞아 었다는 유언비어가 았고, 승일 등 2명이 이 유언비어를 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시신을 보지 못하였다. 시신이 주는 과는 다. 마산 3·15의거 당시에도 경 의 발 로 20여 명이 졌다. 그러나 경 의 발 나 20여 명이나 목 을 었다는 사 이 시위의 산을 가 오지는 않았다. 4·19혁명을 적으로 발시 마산의 2차 의거는 3월 8일 방불명된 주 의 시신이 에 루 이 박 한 모습으로 마산 바다에 떠오른 4월 11일에 일어났다.

부산의 경우 수부대의 폭력으로 은 부상자가 발생하자 시 당국이 무 치 를 결정⁴²⁾했지만, 나게 은 수부대가 시내 도 에서 폭력을 사한 광주의 경우 부상자에 대한 대 은 세 지지 않았다. 전사가 작성한 「광주 요사 압작전()」이라는 문 은 “ 요 압간 발생 부상자 후 대 결여로 장기간 상방치로 군 중 자극”했다고 했다.⁴³⁾ 계 군은 5월 20일 광주역 에서 음으로 발 를 감 했지만, 시위대를 지 못하고 하고 말았다. 이 때 현장에서 희생된 시민 두 명의 시신이 발 다. 시민들은 “군 지 차 에 수 를 연결해서 그 위에 시체를 고 대 극기를 어 시내로 히 지나 다.” 극기 아래로 은 발이 보 였다고 한다.⁴⁴⁾ 시민들은 5월 18일 시작된 수부대의 만 으로 여러 명이 희생되었다고 고 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정부는 한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

「

변하고 있었다. 시민들의 감정은 더 해졌다. 도 에서 수부대의 대대적인 발
가 자 된 운명의 5월 21일 오후 1시를 시간 때의 일이었다.

민중운동사 또는 민주화운동사로서의 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의 연구에서 거운
감자 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이 한 정치인인 과 대중이 당시에 한 상
이 사 발의 계기로서 마만 작 했 하는 것이다. 부산과 마산에서 음
시위를 발한 학생운동의 주역들은 이라는 변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
대 부산대 10·15유인 사 의 이 은 “당시 의 의원 제명문제에
은 관심을 기울인 적은 없었다”라고 언했으 , 당시 경 대생이던 정성기 교수도 “
재 제명”사 은 계기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⁴⁵⁾ 이 장은 대체로
“항쟁 은 10 광복동지역 시위군중 속에서 ... , ... 하고 연호가
나오자, 다른 한 에서 여기서 이가 나와 우리가 이 위해 데모하
나라는 적인 반발이 어나 다”라는 서술을 그 대표적인 거로 제시한다. 그러
면서도 이 자 는 10월 18일의 동지역 시위에서 “ 제명 철회”의 구호가 비
교적 이 나 다는 사 을 부인하지는 않는다.⁴⁶⁾ 당시 부산지부 간사로
동했던 수는 10월 18일 시위에서는 “ 제명 철회”라는 구호가 다른 때보다
도 상대적으로 이 나 다고 언했다.⁴⁷⁾

당시 나 대로 사회과학을 부하고 민중적 시 을 고자 했던 학생운동의 주역들
이 의 제명문제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 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 시위가
일반시민들의 대규모 여로 발전해가는 과정은 의 의원 제명이라는 변수를
고서는 명할 수 없을 것이다. 히 한국현대사에서 한 위치를 점하는 민중
봉기인 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이 의 제명과 대중의 구속이라는 계기
를 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된다. 198 년의 6월항쟁이 폭발적인 대중
여를 보일 수 있었던 것 역시 과 대중이 적극적으로 항쟁에 여하였다는

사 을 떠나서 명할 수 없다. 부마항쟁과 5·18 민주항쟁을 비교하면서 박철규가 던진 질문, “항쟁이 폭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 이었을까 그것을 부마항쟁의 경우 의 제명, 5·18민주항쟁의 경우 대중의 구속과 학살을 강조하여 명하면 민주항쟁이 하되는 것일까 만약 제명과 대중의 구속이라는 정치적 압살 위가 없었더라면 이 두 항쟁의 방은 어 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 하 다.⁴⁸⁾ 과 대중이라는 두 변수가 양대 민주항쟁의 발에서 는 위치를 우리 가 과 가해서는 되는 이유는 두 항쟁이 발발하고 한 세대가 지 오늘에 이 기 까지 우리가 지역주의의 저주 은 유산을 내기 못하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명해 다.

5. 맺음말

한국 정치를 지 해 지역주의의 에 살고 있는 우리는 때로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이 서로 경 하는 감한 모습을 경 하 했다. 이제 한 세대가 른 상 에서 우리는 두 항쟁의 차이 만 아 라 두 항쟁이 어 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 아 한다. 두 항쟁을 의 또는 서로 대 하거나 경 하는 사 사로 인식하게 만 는 지역감정이라는 우리 에 지를 벗어 한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광주 5·18민주항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가폭력이라는 면에서 때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은 광주에서 발생한 수 은 사상자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차이가 두 사 사이의 운명적인 연결을 가려서는 된다. 광주학살은 어 먼 부산과 마산에서 어졌을지 모를 학살이 재규의 박정희의 사살이라는 변수 때문 에 시간을 루고 간을 바 일어 것이다. 또 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은 한국현대사에서 하나의 전환기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결 점이기에 정 식이 지적했던 것 게 보아 하나의 국면 속에서 이해되어 한다. 부마항쟁은 철 성 같아 보이던 유신체제의 약점을 강타하였고, 그 결과 유신체제는 리를 고 비 거리게 되었다.

히 서울의 이라는 매우 중 에만 중된 명 으로 불리는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의 부 이 , 민주화 의 기로에 던 과도기는 광주에서의 거 한 패 로 마무리되었다.

은 사 들은 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을 의 항쟁이라 부른다. 3·1운동도 독 을 쟁 하지 못했으 이요, 8·15해방도 세의 과 으로 이어졌으 이요, 4월혁명도 이요, 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도 이요, 6월항쟁도 다 의 투쟁이다. 역사 어차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기 때문에 어 면 역사의 성이 있을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제 한 세대가 른 상 에서 이켜 때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을 여전히 의 역에 어두어 할까 패 의 이어 부산시민과 광주시민에게만 지 하는가 히 부마항쟁을 의 항쟁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더 문제가 다. 아무도 5년 동 한 도 리 지 지 못했던 부산의 학생운동이 그 거대한 항쟁을 으리라고는 생 도 하지 못했다. 부마항쟁은 10·26사 의 적인 계기가 되었다. 비 “유신정권의 식이 적으로 권력 내 부의 암투로 인한 고권력자의 제거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더 큰 항쟁과 희생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을 의 ”했고, “10·26에서 보여지는 고권력자의 비극적 음 은 부마항쟁을 제대로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 ”한 것이었지만⁴⁹⁾ 부마항쟁은 구 도 예상하지 못하고 도 지 못한 변화를 가 것이었다. 그 부마항쟁을 이라고 부 는 것은 우리의 역 을 비현 적으로 과대 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의 발발에서 의 의원 제명과 대중의 구속이 결정적 인 요인으로 작 한 사 을 인정하는 것을 려하는 것도 비현 적인 도이다. 과 한국전쟁의 학살과 질식할 것 같은 반 주의가 한국 정치에 가했던 제약과 아울러 민중들의 역 이 철저히 괴되었던 라 경 을 떠 다면 대중들이 자기 지역이 한 유력한 정치인의 운명에 민감하게 반 한 사 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할 것 이다.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을 고 한 세대가 지 지 에도 우리는 그 제약에서 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주의 투사들이 당시 인식하지는 못했겠지만 - 어 면 무나 당연한 성과였기에 - 광주항쟁은 부마항쟁이 거 성과위에서 시작된 항쟁이었다. 부마항쟁에서는 사 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광주에서는 은 사 이 었다. 그 데 광주가 한국의 민주화운동사에서 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은 2 일 도 에 은 사 들 때문이었다. 이들의 거 한 패 와 장 한 은 살아 은 자의 이라는 로운 를 동시대인들의 가 속 이 박아 었다.⁵⁰⁾ 부마항쟁에서는 이 적인 경 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 식은 “해방광주와 생존과 사이에서 래를 해 기 이 자기 희생을 선 하는 역사적 결 과 그 과정에서의 고 경 은 쉽게 이해되지 않고 또 감하기도 어 다. 이것은 부마와 광주의 경 사이에 정치적 지역주의가 어들 여지를 겨두었음을 의 한다”라고 지적했다.⁵¹⁾ 광주의 음은 부산을 하여 전국 지에서 수 은 사들을 았다. 부마항쟁은 광주항쟁을 았고 광주는 6월항쟁을 았다. 이제 부마와 광주의 성과였던 민주주의가 심 하게 위 고 있는 상 에서 우리는 두 항쟁의 30주년 기 일을 맞게 된다. 이 위기상 을 할 수 있는 은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을 연속선상에서 악할 때만 나 수 있는 것이 아 까

「
」

발제자의 해에 거의 대부분 동의이다. 히 부마와 광주항쟁 전 과정 상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를 제시한 것은 이의 큰 성과라고 한다. 큰 에서 한교수 이 말한 것 “부마항쟁은 광주항쟁을 앞섰고 광주는 6월항쟁을 앞다”는 선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1. 다만 다의이 (은 저의 오해)이 있는 한 가지 점에 대하여 제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부마항쟁이 만들어낸 역사적 결과 은 에 관한 것이다. 한교수 과 동일하게 저는 부마항쟁이 10.26과 유신체제 붕괴의 중요한 계기였다고 본다. 여러 정을 고려해 볼 때, 작 유신붕괴는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으면서 체제 정 성이 아 유사민간화된 군부권 위주의정권 내부의 적 약한 고리를 부마항쟁의 이 끊어내어 나타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유신정권의 붕괴는 한 구교수 의 과 같이 권위주의체제의 말이었지만 상당히 불 한 결과를 래하는 말이었습 다. 히 유신정권이 “유사민간화된 군부권위주의정권”으로 고지도자에 대한 대 이 존 재하지 않고 군부내의 들의 정치에 라서 변화할 수 있는 성 을 고 있었기 때문에 10.26에서 고지도자가 자기 사 했을 때 오히려 더 독재적인 방 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가 성도 상당했습 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유신의 붕괴가 부마민주항쟁 이라는 “민 을 하여 자극 은” 정권 내부의 등의 산이었기 때문에 10.26이후의 상 에서 보수적인 성 의 과도정부를 운 했던 유신의 리 들도 한국민들의 민주화로의 강한 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 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다. 라서 부마항쟁은 유신정권을 붕괴시

을 생산하였을 만 아 라, 한교수 의 해와는 달리 저는 유신이후 과
도기에서 서울의 봄으로의 진행경로를 확정시킨 역할을 하였다고 다.

규하를 비 한 과도정부 들은 정치력을 지 다기보다는 지 기술관
()로서 군부권위주의정권에서 일해 사 들이었고, 유신 말기에 이 무
무력화되어있던 권여당인 민주 화당과의 긴밀한 유대감도 로 고 있지 않았습
다. 그들은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은 기대를 고 있는 사 들도 아 었다고 할
수 있습 다. 라서 그들이 박대 이 었다고 해서 바로 민주화를 으로의 정부
운 목표로 정하고 이를 서둘러 나 것이라고 을만한 거는 없었습 다. 제
로 그들은 대 권한대 이던 규하가 이 사회적 저항이 히 표현된 바 있는
유신 에 의하여 정식 대 으로 먼저 선 되고 그가 그러한 정 성(과거로부 의
적 정 성)을 대로 점 적인 민주이 의 을 이 하는
내 으로 정국운 의 을 서 발표하는 보수성을 보 다.(1990)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이 19 9년의 과도정부가 민주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유신과는 다른
로운 방식의 권위주의 치를 시도하려는 움 을 보인 경우는 일체 없었습 다.
바로 이 점은 10.26 전 발생했던 부마항쟁이 원인이 되어 유신의 리 일반도 민
중의 강력한 민주화로의 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 다. 유
신말기에서의 민심을 요약해 본다면 한국민 상당수가 속으로는 민주화를 지지하고 있
었지만 그 게 쉽게 그것이 가 할 것이라고 기는 어려웠던 것이 아 었을까라고 저
는 다. 그 데 제로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를 한 항쟁이 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유신정권의 붕괴로 나타나 , 한국민들은 로 민주주의를 만들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게 되고 있던 중이었다고 다. 당시의 과도정부 리 들도
이러한 민심을 고 있었을 것 다. 저는 1980년 3-5월, 히 5월에 학생가두시위에
대한 반 으로 나타나던 중산 시민들의 불 해하던 민심과 19 9년 10-12월경의 유신
체제 붕괴국면에서의 유신체제 오와 연한 민주화예의 의 민심을 그 같은
로 서는 된다고 생 다.

박정희대 이 유고된 후 두주 만인 11월 10일 규하 대 권한대 은 「시국에
관한 화」를 발표하고 유신 에 의하여 그 차에 라 조속히 로 대 을

선하기로 하고 그 대 은 유신 상의 잔여 기(약 5년)를 다 우지 않고 현
 적으로 가 한 른 기간 내에 을 정하고 그에 라 선거를 시해 한다는
 장을 명했습 다. 이 화는 내 상 상당한 문제를 고 있었으나 어 되었 박대
 의 장래이후 과도기에 대한 방 정이라는 점에서 민주화에 대한 중요한 약속
 이었습 다. 라서 12.12쿠테타를 하여 전두환이 마 내 군부의 고지도자였던 정
 승화 군 모 장을 연 하고 군내의 모 권력, 그리고 과도정부 운 에 관해서도
 제력을 장악하였음에도 이러한 기존의 결정과 약속을 쉽게 기는 어려웠다고
 다. 결국 유신의 적자였던 전두환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1980년 에는 민
 주화 이 자유 게 러 치고, 신군부는 때를 기다 수 에 없었던 것 다. 만
 일에 부마항쟁이 없이 10.26이 있었다면, 그러한 상 에서 유신체제의 제도적 동학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도 독재에 적인 관 들과 어 군부 간에 로운 권위주의
 를 시 을 가 성도 상당히 있었을 것 다. 그러 로 19 9년 10월 26일의 박정
 회 음이후 과도정부가 서울의 이라는 해 기를 도 된 데에는 어 까지나 부
 마항쟁의 경 이 만들어 성과가 바 이 되었다는 점이 더 강조 필요가 있다고
 다. 또 그 한에서 부마항쟁은 광주항쟁을 았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다.

2. 한교수 의 에서 간 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광주와 부마의 항쟁 기억에 관한
 “경쟁” 은 “차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마산에서 발표했던 의 한 부 을 하
 여 나 명을 시도해 본 바가 있는 데, 이를 여기서 다시 제시 으로 을
 마무리 하고자 다.

문제는 부마항쟁이 한국민주화의 역사속에서 히 기억되고 있지 못하는가,
 항쟁 이 되었는가에 대한 해 다. 그 데 이 문제를 바라 때 가
 들은 자연적으로 늘 부마항쟁의 경우와 그 바로 월 에 있었던 광주항쟁에 관한
 기억 기 의 경우를 대비하는 경 을 고 있기도 다. 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적 조 들과 주체적 조 들을 나 어 살펴 필요가 있다고 다.
 관적 조 을 먼저 보자면, 기억의 면에서 부마와 광주가 다를 수 에 없었던 것

은 무 보다도 그 두 사 의 역사적 서 때문 다. 1980년 5월을 강타한 서울의 과 광주 항쟁의 결이 에서 그것들이 나오게 역할한 부마항쟁을 밀어 내면서 부마항쟁이 그 속에 러 모양 다. 또 부마항쟁에 비하여 광주항쟁이 그 규모나 기간 역사적 장 면에서 더 큰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 다.

째 부마항쟁의 “적”은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유신체제였는바 19 9년을 끝으로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한 것이어서 1980년대에 기억을 위하여 더 이상 싸울 것이 없었던 데에 반하여, 광주항쟁의 “적”은 신군부 전두환을 정점으로 하는 독재체제로서 198 년 민주화시점에 - 민주화의 기억, 그리고 기억투쟁이 시작되는 시점에 - 현존하는 권력이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 다. 라서 그 결정적인 민주화과정에서, 히 198 -90년 사이의 기간에 과거 산에 관한 주요한 의 중심에는 “광주”가 있었고 “부마”는 해당되지 않았습 다. 이 시기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신의 시대를 반하는 과정은 대두되지 않았던 것이 중요 다. 유신에 대한 기억이 무대의 중심에 서려고 했다면, 그 시기는 1980년 서울의 이었어 했습 다. 그러나 그 서울의 에서는 유신을 반성하고 정한 민주화를 만들어가는 력이 저조하였고, 또 신군부의 권력 로 서울의 은 무나 무 히 짓 히고 말았던 것 다. 라서 부마항쟁은 정당한 가를 을 수 있는 역사적 타이 을 치고 말았던 것 다.

주체적 조 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무 보다도 항쟁 후, 1980년대 반에 부마

는 달리 주요한 동원의 중심이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하는데 패했다.

둘째로 광주의 경우와는 달리 부마에서는 항쟁의 기간이 고 발화자였던 운동권의 조역이 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기억 수 있는 항쟁 주체가, 그리고 항쟁의 기억을 구하는 주체가 명히 성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광주의 경우에는 1980년 5월 21일의 일제사 이후 계 군이 광주를 두고 러나 위 으로 광주 시내에서는 시민에 의한 해방 동체가 성 수 있는 시기가 존재하였고, 세계에 “수습위원회”라는 나 의 지도부가 도 에서 성되어 지식인, 학생, 시민, 기 민중 등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구조가 있었다. 이 기회구조 하에서 광주는 에 학생 지식인 그리고 리 으로부터 나중에는 학생 기 민중으로의 지도부 이양이 가 하였습 다. 라서 항쟁중에서나 항쟁이후에나 간에 어떠한 세력이 항쟁을 이 었는지에 관한 인식 항쟁의 “민중”항쟁으로서의 성 은 구에게나 명히 정되었습 다. 라서 항쟁이후에는 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의 민중운동으로서의 명한 성 을 가 기억투쟁이 전 되었으 , 이는 1980년대 민주민중민 운동의 하나로서 시 자리매 수 있었으 그 운동의 을 하여 항쟁을 기어 기억해내고자 하는 광주지역 동체 내부의 일정한 의가 만들어졌습 다. 그러나 부마항쟁의 경우에는 그 시간적 간적 한계 자연발생적 성 때문에 항쟁의 지도부가 명히 성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 , 지역 동체 에서도 이에 대한 의된 인식을 어내기가 어 기도 하였습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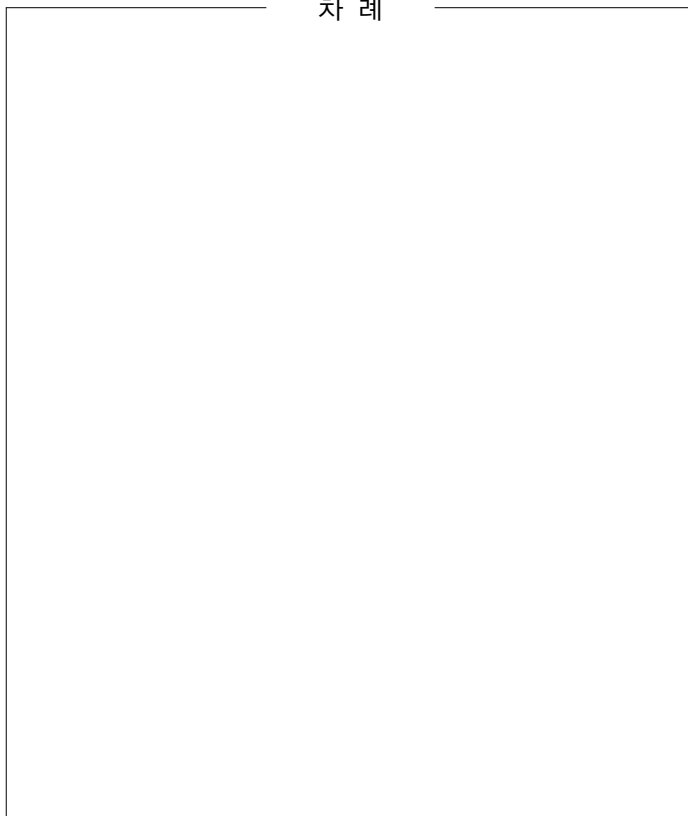
째로 1985년 2.12 선을 하여 정치적 당이 부 하였을 때 이후로 부마지역의 민주화운동은 다시 이라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동원에 매 되었으 198 -8년의 대 의 선거 국회의원 선에서도 부마항쟁의 역사적 기억을 되살리려는 하고 전국적인 문제제기는 존재하지 않았습 다. 부산·마산 지역의 민주화에 대한 일반적 정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부 하거나 한 것은 대로 아 라고 보지만, 그 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비교해 때, 이들 지역 동체가 부마항쟁의 정당성과 그것의 기 필요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 은 의를 유지해 는지에 대해서는 신이 서지 않습 다. 광주의 경우에는 한 으로 박정희이래 지역 중 발전의 해자라는 광 한 의식과 다른 한 으로는 198 -88년의 선거를 하여 고하게 대두된

지역주의 의 여 등이 리 부 기 민중에 이 기까지 광 하게 80년 5월 광주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에 대하여 의되어있었지만, 부마의 경우는 연히 달 다 고 다. 히 마치 광주에서의 봉기에서 불러졌던 대중 부마항쟁의 적 발계기이 지역의 정치적 아이 이었던 의 역할이 중요한데, _____은 부마 항쟁의 기억의 부 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이 또한 사 다. 이러한 차이의 한 명요인은 1990년 1월에 이 결 한 3당 당과 그 _____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 다. 부마지역의 “아들”인 이 신군부세력의 인 “민주정의당” 우대 과 당한 사 은 부마항쟁이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화의 상 으로 재정 되고, 전국 적으로 자리매 하는 데에 결정적인 한계를 정하였음을 부정하기는 어 습 다.

한국의 민주화와 지역의 역할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차례



이 은 부마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부마항쟁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지역의 민주화운동이 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 내 에서는 주체세력에 대한 것, 그리고 부마항쟁의 전반적인 역사 속에서의 가는 다른 발 제에 기기로 하고, 이 에서는 주로 지역과 지역을 하는 광역의 지역사이에 발생하는 운동의 을 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라서 의 서도 지역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필자가 연구한 3.15의거와 10.18 마산민주항쟁을 중심으로 마산의 민주화 운동을 하고, 아울러 민주화 운동의 지역적 전이성에 대한 가를 하였다.

하면, 지역 간 전이성과 그것의 경계를 이루는 곳은 동체의 경계라고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일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그 다고 대한민국내 의 모 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동일한 치을 고 있는 것도 아 고, 동일한 민주화 력을 고 있는 것도 아 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이고, 조 의 밀도와 로운 사상의 유 , 역사적 경, 그리고 국가 치 력이 치는 정도 에 있어서 매우 이질적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서 한국의 지역의 사 들은 국가의 압과 저항의 력이 다른 환경에 여있다. 필자는 이러한 상 을 두에 두 고, 마산을 중심으로 지역의 민주화운동을 하였다. 의 주된 은 지 와 저항 의 고리를 두에 두고, 이 두 가지 고리가 하고, 약한 부 에서 폭발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다. 라서 두 짜 장인 의를 전 시키기 위한 과 이 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면을 강조하는 “약한 고리” 리를 장하여 치 의 고리와 저항의 고리라는 면으로 나 어서 재해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어서 3-6 장에서 부마 민주항쟁 당시에 민주화운동의 전이가 정 위에서 무 게 되었는가 를 명하기 위해서 교 과 구조, 사회관계적 , 그리고 역사적 경 이나 상

의 유를 하였다. 이를 해 현재의 민주화 운동의 잠재적력과 가능성을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관적인 상에서 지역간 상호 의존성은 점차 아지지만, 또한 상대적으로 차과 적대전도 동시에 되고 있어 지역간 연대의 가능성은 매우 유동적이라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민주화운동력만으로는 해결하기의 구조적 조, 사회관계, 상의 유가 동시에 존재할 때가 한 것으로 보인다.

1. 민주화운동의 지역성

“부마민주항쟁은 이상과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된 정치적, 경제적 모순구조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운동이지만, 체제의 강압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던 유신말기인 1979년 10월의 시점에서 부산과 마산지역에서만 반유신 저항운동이 발발한 것은 국가적인 반민주성과 반폭력성 이외에 지역적인 특수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정경환, 2000: 9).

1) 마산의 민주화 운동

한국의 민주화과정에서, 3.15, 부마항쟁, 5.18항쟁 등 마산이라는 한 지역의 운동이 전국적 정세에 을 사례를 고 하면서, 지역의 역할을 재인식한다. 마산이라는 도시는 한국의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로 수 있지만, 해방이후 급한 사회변화, 인구 세계관의 대에 른 인간간 유대의 위기, 동체의 위기가

다. 이에 정치적 폭압, 기본적인 경제적인 생의 과 동시에 동체적 해결의 어려움, 로이 성되는 동체의 불 성이 시기마다 중요한 사회유지를 위한 과제로 떠 다. 이는 국가나 민 의 성이라는 민 역사적인 과제와는 어 보면 다른 차원의 과제이었다. 민 국가라는 것이 지역 동체의 강한 발전에 지대한

을 주는 것은 사 이지만, 그 다고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 다. 이 의 에서 국가의 폭압에 맞선 지역민들의 민중항쟁이 지역역사에서는 중요하게 다 수 에 없다.

해방 후 마산에서는 1946년 10월, 1960년 3-4월, 1999년 10월, 1989년 6월 등 4차례에 걸쳐 권력 사기관인 시위군중들에 의해 파괴되거나 방화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권력의 과잉이 권력 전체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하지만 적어도 권력의 일부가 일정 시간동안 마비되었다는 점에서 민중들의 저항이 강한 사안으로 기록할 수 있다. 4차례의 사건에서도 시위 파괴된 적은 있어도, 경서
 서가 민중들에 의해 점령된 적은 없었기에 전히 도시 전체가 국가기구의 상로
 아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4차례의 사건 중 시위군중이 국가기구의
 에 의해, 1946년에는 12명의 사상자, 1960년에는 15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1999년과 1989년에는 사상자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국가의 억압적인 폭력
 에 의거하여 시위군중 속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들 4가지 사건은 마산에서
 는 1946년에 5여명(당시 인구 6만여명), 1960년에 3-5여명(당시 16만여명),
 1999년 10월 16-1 일시위에는 2여명(당시 인구 40여만명), 1989년 6월 26일에는 1
 만여명(당시 인구 45만여명) 등이 결하여 시위를 열었으므로, 그 규모면에서는 대
 규모 시위의 예로서 선정하기에 적당하다고 하겠다.

2) 민주화운동의 지역 전염성

지역은 물론 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민중국가 동체에
 대한 역사적 신념에 의해 정치적 동체(역사적 동체)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1960년
 마산은 지역이면서도 전국적인 의미가 중적으로 띠었다. 이는 1960년 4월 혁명이
 지역에서 시작하고 서울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고적으로 서울에서 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에 아무도 지역에서 혁명의 도화선이 점화되리라고는 생
 지 못
 하였다. 마산의 수성을 마산이 가 일본에서 환동 들, 민의 정 이 무산자
 이면서, 국가로부터 은 해, 그리고 이를 인식할 정도의 교 수 , 그리고 의거가
 가 하게 된 이주한 무산자 의 동체 성을 지적한다.

1960년 4월 혁명은 2월 28일 대구 학생의거를 시발로 해서 지역에서 서울로, 그리

고 서울에서 다시 지역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고양되었음을 수 있다. 1960년 3-4월 시위의 발생지와 시기를 한 이화수(1985: 149)는 “혁명적 동은 지방에서 시작되어 서울로 쫓고”, “4월 혁명은 시에서 시작하여 서울로 산되었다가 다시 시로 산되고 서울에서 성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또는 1960년 4월 혁명자를 한 에서도 “는 으로 으로”(학민사, 1983)라는 제목을 달았다. 구체적인 내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시 1960년에 타오는 데모의 을 에서 으로 리가는 것으로 약한 점만은 명하다.

부산의 10월 16-1 일 사 이 마산에 전 된 경로

2. 개념과 이론적 틀

1) 지역과 중앙

지역은 히 지역이라는 지리적인 동체적인 간이 아 라 중 과의 관계에서 주변적인, 그리고 지 와 지 의 관계의 속에 위치한 지역이다. 히 국민국가체제에서는 폭력과 이데 로기의 유 를 해 중 은 지역을 지 와 동시에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여기에는 세 을 한 자원동원과 차 적 을 한 라 는 방식도 동원된다. 지방민 역시 중 과 지역이라는 기 을 고 그들의 사고, 생 , 동이 지 질 수 에 없게 된다. 상호 거화, 기대, , , , 기 등이 중 과의 관계에서 나타 다. 라서 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민이 중 에 대해 경 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약한 고리는 쉽게 부서 진다.”

마산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경 인 10.18 마산 민주항쟁을 이해 으로 지역

민의 사회적인 조 과 역사적인 의식을 찾아 수 있다. 그러나 불 히도 학계나 지역의 사회학자들이 이러한 역사에 대해 무시해 다. 한국기독교 교회 의회에서도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하고 있다. “부마사 라고 불리우는 부마 민주항쟁만 역사에 큰 을 으면서도, 그 상이 제대로 러지지 않은 사 도 것이다”(한국 기독교 의회 인권위원회, 198 1 (62). 필자와 비 한 과제를 수 한 정경환은 연구의 목적을 “부마 민주항쟁을 한국 현대 정치사 전과정을 하는 연속적인 민주화운동의 차원에서 의 를 부여하기 위한 것”(정경환, 2000 2)이라고 하면서도, “어떠한 차원에서 연구를 하여 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감대가 전 성되어 있지 않은 상 ”(정경환, 2000 2)이라고 당시의 상 을 가하고 있다. 당시 보다는 연구가 이 적된 상 이기는 하지만, 한국 민주화운동과의 전체적인 과 그 역사적 의 의 면에서는 여전히 부 하다고 수 에 없을 것 같다.

정경환은 19 9년 부마항쟁을 하면서 봉기의 결정적 국면을 강조하고 있다. “민중에 대한 폭압적인 기구를 해서 민주 제적인 치 위를 자 하고 있던 유신정 권하의 상 에서 민중들의 과감한 저항운동의 발생은 광 위한 봉기의 결정적인 국면일 경우 민중의 폭발적인 역동성은 목적의 현 화라는 결과를 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된다”(정경환, 2000 14). 이러한 정경환의 지적하는 결정적 국면의 상 적 조 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무 인가 우리가 강하고 무 질 수 없다고 여 던 것이 무 질 수 있는 상 을 언급하고자 한 상 인 것만은 명하다. 필자는 이러한 정경환의 결정적 국면을 닌이 러시아 자본주의를 하면서 사 한 인 약한 고리의 을 해서 유 하여 명할 수 있다고 본다. 당시 닌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 명이 일어 가 성을 게 보는 서구의 주의자들에 대해서 러시아의 자본주의의 투는 가히 폭력적이고 급 적이라고 주장한다. 제국주의 심국의 으로 동자들이 화되어 가고 있는 선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러시아가 봉 주의적으로 보이 나, 은 더 자본주의적 에 시달리 로 사회주의 혁명의 가 성이 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 한 이다. 한 으로 마산은 박정희정권의 치하에서 가장 급 한 자본주의적 업 발전을 이 한 지역이다. 박정희 정권은 마산과 원 지역을 유

신의 수 를 은 지역으로 치부하고 항상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지역으로 자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산과 원의 업화는, 은 시간에 동자들이 유 되고, 가 한 장내 제 상 속에서도, 유랑하는 동자들의 자유로움이 치면서, 한 으로는 자유로운 사상과 만 의 교 가 산되고 기존의 연고적 감시 을 벗어 상 이 되었다. 다른 한 으로는 유신의 일상적인 감시체제는 강화되어 있었지만, 전국적인 상 에서는 서울과 대도시에 중적인 감시가 강화되어 오히려 마산과 원과 같은 유신의 수 지역이라고 여겨지는 곳은 폭압적인 감시 이 약화된 상 도 보였던 것이다. 여기에 마산 민주항쟁에 대한 해 의 요체가 있다.

이 이와 비 한 에서 장표와 정이 은 경제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해 하 였다. “박정권이 강 하였던 중화학 업화의 모 이 저 장시간 동체제의 동 약적 경 업화의 한계와 문제점을 고 있던 부산과 마산이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에서 제일 먼저 폭발하였던 것이다”(장표, 정이 , 2003 133). 닌의 자본주의 적체제의 약한 고리라는 면과 장표와 정이 의 경제적인 모 의 심화에 른 약한 고리가 같은 이기는 하지만, 약한 고리와 강한 고리들, 이들 의 고리들의 다른 면을 부 시키는데까지 이 지는 못했다. 필자는 자본주의 적체제의 고리에 더하여, 억압과 저항의 고리라는 면을 더하여, 강한 자본주의 고리와 약한 억압과 저항의 고리를 대비하면서, 히 억압이 저항을 이기지 못하는 고리가 발생하 여 폭발하였다고 하는 은유적인 명을 적으로 시도하였다.

간의 을 부 지역과의 관계로서 상정한다면, 마산은 상대적으로 중 국가기구가 위치한 곳에서 가장 먼 변방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대 적인 변방성은 심리적인 사 일 만 아 라, 국가의 억압 력의 면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성하고 있었다. 대내적인 변방성에도 불구하고, 저항적 동이 가 했던 이유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약한 고리라는 표현에서 보여지 이, 일상적 지 가 적나라 하게 사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내부 식민지의 이 에서 명되 이, 중 의 모 이 지방으로 전가되면서 은 경제적 억압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을 것이다.

약한 고리라는 표현은 한 으로 그 고리의 정체를 히는 것과 아울러 고리들의 상호연결강도를 정할 수 있어 할 것이다. 지 의 고리가 약하고, 다른 한 저항의 고리가 강한 곳에서 고리를 부서질 것이다. 지 의 고리라는 면에서 국가 역 을 가하고, 저항의 고리라는 면에서 자원 동원(조 , 동체), 민주화운동의 해 (지역의 역사, 조 , 지역관 정치인 해), 일상적 생 의 간접 구조화(정체성 전승)를 차례로 살필 것이다.

3. 조직 밀도와 새로운 사상의 유입

1) 1946년

1946년 당시 원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극 적인 사상과 조 이 일 이 발달한 지역으로 지적된다. 인민위와 치 대의 조 이 면, 리 위까지 조 되었고, 1946년 10월 6- 일의 폭동시기에도 12명의 민간인이 고, 경 도 고 은 이들이 다치고, 의 상당수도 불 다. 약 6 여 명 이상이 여한 시위였다 고 기 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인구를 6만 명 만으로 다면, 전체거주자의 10 정도, 아 성인인구의 20-30 정도가 여하였다는 것이고, 성인 성인구로 다면 거의 반수가 여한 것으로 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라서 마산의 10월 폭동 기 는 은 이들 자만 본다는 주와 같지만, 대구 폭동의 기를 5일 후에 이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가 찬 투쟁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데 마산, 원, 해, 지역이 다른 경 지역에 비해 급 적인 사상과 조 이 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은 아 보적이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화, 이에 라 한, 일본에서의 인구이동이 왔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선 선 적인 사고방식과 교 을 왔다는 사 , 정세를 악하고 해독할 수 있는

력이 있었다는 점, 그러나 이들에게는 당시로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불정한 을 살아 다는 점에서 극적인 사회비 의식을 가질 가 성이 았다는 점은 명한 것 같다. 당시에 나타 은 조 의 대표자나 원의 명 이 나중에 연결되지 않는 점 을 보면 당시에 극적인 조 에 가 한 이들은 이어지는 정치정세 속에서 지속적인 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수 있다.

해방 간은 한마 로 일본식민지 지 체제를 구성하던 다 이었던 대규모 지주와 자본가계급이 사라지고, 그 대신 조선 위주의 규모 자산가와 작인과 자유 동자가 대 다수인 상 으로 급변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해 에서 들어 한 전체 인구의 10 이상에 달하는 해 환민들(만주와 일본)과 이 에서 어 민 들이 있다. 해 환동 들 역시 으로 어 사 들이었고, 이 의 민 역 시 그곳에서는 지주였을지 라도, 일 한에서는 무산자 계급으로 바 사 들이 다. 이에 더하여 식민지 치하에서 대자산가 계급을 이루었던 일제에 대항하여 상당수 의 규모 자산가 계 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항일 민 의식을 고 시키고 있었다. 해 에서 들어 이들 역시 해 의 문명을 아들여 대적인 장이나 군대나 조 에 서 일한 경 을 고 있고 국내인들보다는 세계적인 정세나 정보를 보다 보 적으로 고 있던 사 들이다.

2) 1960년

마산이라는 도시는 1960년 당시에는 교 과 언 에 사하는 이들이 아 거주자들의 세계관은 매우 대화 되어 있었으나, 경제적인 상 은 어려움에 한 지위불일치의 상 , 아 면 은 구와 은 현 적인 만 도를 보여주는 상 이었다고 해 된다.

마산 지역은 1945년 일제로부 해방 이후에 환동 들의 정 , 한국전쟁 당시 민들이 정 한 점, 전 적으로 일본과의 교 가 아 로운 사상인 사회주의 사상

이 쉽게 들어 있었다는 점, 그러나 서울 정부의 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치하기에 먼 거리에 있었다는 점 등이 양민학살의 해자가 있던 이유라고 지적된다. 국민보도연월들 학살에 대한 원성은 그 무성에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주의와는 관계없는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도 지적한다. 보도연월 희생자들은 대부분적인 사회주의적인 경력은 없으면서 당시에 교을이 은 환동들이 있던 것으로 보여 다. 라서 지식인 계이이 되어 있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식인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가 의 사 들이라는 것이다. 라서 양민학살 사 상 규명을 주도한 인사들은 당시의 사회에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보유한 인사들이 점을 수 있다.

마산은 항구의 도시인 만 가지 사상이 유 되어 되어 있었고, 시장이 발달하여 다른 지역과의 비교도가 하고, 또한 대적인 상인들이 발전하고 있었다. 해방 후와 한국전 당시에도 6 여 명에 달하는 일본인들의 , 일본에서의 환동 들의 유 과 정주, 한국전 당시의 민들과 이들의 정 지가 바로 마산이었다. 라서 마산은 현대사의 고민을 경 한 사 들이 제 기 정 하고 있는 도시였다. 이들은 사회운동의 발자로서 작 하게 된다. 신적인 여자는 아 지만 적어도 사회운동에 리와 명 을 제 하는 역할을 당한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언 동이 비교적 발하였다는 점, 마산신문이 1946년에 등장한 후에 일간지로 계속 동하고 전국 지역의 신문들의 지사가 존재하고 있었다. 둘째로 환동 나 민중 상당수가 지식인 으로 비 적 지식인으로 기 하였다. 세 째로 교 기관이 발달하였다. 1960년 당시에는 해인대학, 간호대학, 마산고, 마산여고, 제일여고, 마산상고, 마산 고, 성지여고 등이 마산에 위치하고 학생은 이고, 여기에 사하는 사 들이 과다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 상 을 대학생들의 전체 한국 인구 대비 비 은 1,000명당 3.8명에 해당되나, 도시에서는 인구 1,000명당 14.5명의 비 이었다(이화수, 1985 149)고 일반화시켜 말하기도 한다. 아무 상당수의 지식계급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명하다.

4. 도덕 공동체의 형성

1) 생활공간

대중 매체에 의존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의 면적 상호작용, 주거의 정상 일상생활을 유할 수에 없는 상(래, 우, 수, 변, 목과 마당), 시장, 기를 리기 위해 정시간과 장에 모이는 상, 주거지와 은 거리를 하면서 이과 만나는 것, 거리에 는 아이들을 찾아다 는 상, 반상회와 같은 식적 모 등은 아무 성인들의 경우에도 이과 자주 면적 이 이루어지는 상 이었고, 이를 해 면적 사회적 관계를 한 감정적 유가 성되고 있다고 해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동체적 감정적 유대의 성은 결국 동과정에서도 러 다. 시위자들이 바로 이 들이고, 이 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가시적 억압적 폭력의 사 은 이들에게 감정적 를 더 쉽게 자아내게 된다. 또한 과 같이 국가의 감시체제로부 의 명성이 보장되는 상 에서는 동으로 나아 가 성이 아지는 것이다. 이는 같은 상 에서도 가시적 폭압이 아닌 의 을 가장한 권력의 에 대해서는 동이 폭력적이고 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다. 비가시적(또는 관 적) 폭력의 사에 대해서는 감정적 성이 일어나는 것이다. 1960년 3월 15일의 시위는 에 발생한 반 년, 경 의 거리에서의 가시적 폭력이 저 시간을 해 가 들과 이 들에게 전 되었고, 감정적 를 자아내게 하여, 시민들이 거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1999년 당시의 동자의 수는 수 자유지역에 190년대 말에 이 면 약 3만 명의 여성 10대 후반 동자들, 그리고 한일 의 여성 10대 동자들 2만여 명, 원 에도 거의 3만 명에 박하는 동자들이 로이 들어서게 된다. 이 중 대다수는 지에서 사 들이었다. 여성 동자들은 대 인, 의 등 에서 원 되었고, 성 동자들은 지역(전 동부지역까지)의 고등학교를 해서 적으로 원하는 경우가 았다. 급 한 인구의 가는 어 여성 동자들의

거주나 동생의 거주가 성하고, 성동자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발되지 않은 주에 의해 장 주변의 전적인에서 거나, 아면 신규로 발된 마산 산호동 등지에서 게 된다. 아무 당시의 인구의 반 이상은 동생적 거주를 하였다. 아생이 아닌, 일반 주거지에서의 동생이 그 말로, 화장, 수도, 마당 등을 동으로 사하는 이었으므로, 현재 상상하기보다는 면적이 있었고, 생의 유를 위해 상호작용이 발하였다고 가할 수 있다. 주거면에서 면적 상호작용이 발하였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해 사회에 대한 정보수, 가가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한다. 라서 당시에 현재보다는 정보수(비)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생속의 정보교는 매우 발하였다.

장내에서도 현재보다는 장내부의 사회적 관계가 적었고, 면적이었다는 점도 지적하여 한다. 승차가 90년대 반 들어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을 두에 다면, 당시에는 어서 하거나, 회사가 제하는, 아면 를 사 하였으므로, 교수 면에서도 사회적 계의 사들의 모습을 관하고, 대화를 게 되고 때로는 교수에 같이 한 사들 리 대화를 하는 경우도 게 된다. 장내의 생도 지보다 동과정이 그리 하지 않았으므로, 동 중에도 동자들 리 대화가 가하였고, 후에도 상당한 동 동자나, 아면 연고적인 사회적 관계를 고 있는 사들 리 시내, 동이나 오동동 등지에서 사회적 만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는 자신이 아닌 사들, 때로는 전지가 다른 사들 리의 이 아으로 자신의 지를 비교하여 관적으로 가할 수 있는 력을 키우게 되고 이를 바으로 사회적인가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하였음을 의한다. 당시에는 다방(, 우유점), 술, 음식점이 현재보다 매우 발전하였다. 사회적 만이 이루어지는 장들은 정보의 산가가 발히 이루어지던 곳이었다.

대적인 교은 당시에 부산과의가 자주 있었고, 다음으로 서울과 대구권이었다. 라서 마산의 경우에는 사회적가의도는 아마도 부산이었을 것이다.

이는 해 고속도로, 구마 고속도로의 , 그리고 동마산 , 성동 , 양
 3거리를 해 오동동 자유 아 이 로 들어오는 도로가 가장 발했었고, 마산 거리
 가 그 다음으로 발했었다는 점을 두에 다면, 이해할 수 있다. 서마산 를
 해 마산 거리로 들어서는 것이 발했고, 지 의 6호 광장 - 마산역 간 도로는 아
 되지 않은 상 었다. 도로의 발달은 내 부적인 교 를 발하게 하였으 , 히
 부마 항쟁에 을 주었다고 가할 수 있는 부의 정보와 사상의 유 의 로는 인
 적인 교 를 하여 이루어졌다. 사회적으로 을 것은 마산 신 서울 유학생들
 의 이었고, 그 다음으로 교기관들의 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히 부산 마산
 지역에서 발하게 전 되었던, 부 세계의 동에 대한 정보와 로운 사상의 수
 은 양서조 운동이나, 사회과학 서적 기로 나타났, 다. 히 이들 사회과학 서적
 기는 은 시민들의 의식적 성을 도모하였고, 이러한 독서인구의 비 이 상당히
 았던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여기에 19 9년 당시에는 가 조 인 이 민이나
 장 조 들에 되었고, 이는 가 이 전 하는 전국적인 움 의 일환이었다. 동
 시에 가 은 당시 오원 사 등으로 이 국가의 압제를 아오면서 은 민주화
 운동의 양을 제 하고 있었다. 경 대학교 인 의 정당과 시내 중심부 정당에서
 리는 시국 사나 강연을 해 은 시민들이 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
 다. 여기에 더하여 가 교구는 가 여성회관을 하여, 한일 과 수 자유
 지역의 10대 여성 동자들을 위한 사회교 기관을 하였다. 교기관은 에
 오 리아 교구의 도움으로 되었고, 운 되었다. 의 목적은 어
 여성 동자들이 교양을 이고 사회적 타 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회교 의
 로그 을 운 하는 과정에서는 어 정도의 사회적 의식에 을 는 계기가 된 것
 으로 악된다. 라서 기관의 의도와 로그 가자의 가가 리는 이유가 된
 다. 기관이나 여성회관의 역사에서는 사회적인 성 과를 부 시키지 않고 있지
 만, 여기에 로그 을 하거나, 수강한 사 들은 사회적인 성 과가 었다고
 술하고 있다.

2) 전통적 사회관계

사회운동의 전 과정에서는 전 적, 또는 전 대적인 사회관계의 연대 이 동원되는 경우가 다. 모성 와 가부장적 상호 기대, 그리고 학생신 의 사회적 기대가 시위 가의 동기를 만들어 다. 자식 또는 자식과 같은 세대의 은이들이 국가의 가시적 폭압상 에 이 면, 이에 가 이나 들, 그리고 동 이 들이 저항하여 시위에 나 서는 이다. 이는 1960년 4월 11일 이후에 발생한 시위에서 어 들(부 자)이 시 위에 적극적으로 여한 이유이다. 3월 15일의 시위 압에서의 폭압성, 그 이후에 발생한 은이들에 대한 무차 적 거와 고문은 결국 4월 11일의 계기를 맞이하여 어 들의 여를 기하였던 것이다. 또한 가부장제의 은 여성들이 시위에 나 것을 하거나, 여성들이 시위에 나선 것을 보거나, 여성들이 시위에서 폭압에 되었을 경우에는 성 시민들은 약자인 여성을 보호해 한다는 사회적 기대를 게 된다. 이러한 기대에 부 하여 성들은 시위에 가할 가 성이 아지는 것이다. 이 는 1960년 3월에 여고 학생들이 자 고등학생들에게 시위에 나 것을 한 상 , 그리고 이 학교의 학생지도부들이 극적인 상 에서도 여학생들을 하여 일 반 학생들이 시위에 나서자, 성의 우월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한 여성도 여하 는 시위에 여하여 되는 강한 사회적 압력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결국 시위과정에 서도 여성들은 성들의 보조적인 역할을 자 하여 을 나른다거나, 을 것을 비 하거나, 부상자를 치 하는 성과 여성의 기존의 사회적 역할에 하게 된다. 이러 한 상 은 1999년 10월 18일 시내의 시위에서 여학생도 시위에 여하는 데, 학생들 은 당연히 여해 된다는 거리의 적 압력을 게 된다. 또한 시위 전에도 다른 곳에서는 시위를 하는데, 마산의 학생들이 시위에 나서지 않는다는 질 을 기도 한다.

3) 변방성

대한민국의 권력이 치는 지역은 동질적일 수 없다. 중심지와 변방지역으로 구 된다. 이는 국가 권력이 제로 치는 면 만 아 라, 히 거주자들의 심리적인 면에서 강하다. 라서 지역이라는 곳은 중 이나 중심지에서 보면 변방이면, 변방이

라는 감정을 지역의 주민들이 강하게 체 하고 있다. 이 에서 박광주도 지역이 독 성이 바로 지역이 가 고유한 성만이 아 라, 다른 면 지역간의 관계를 조 하여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군사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그같은 사 (, 대중에 대한 압박-필자 가)들을 계기로 발되었을 이다. 마산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의 저항운동을 일으 민주성지라거나, 광주가 광주학생의 거의 성지라는 이유, 역시 부마항쟁이나 광주항쟁이 부산, 마산이나 광주라는 정치 역에서 발생한 이유로서 치 않다”(박광주, 2000 3).

중 의 권력은 항상 위압적이고, 강요하 , 해를 기시 다고 여겨 다. 히 정한 정 들이 나서게 된다면 이는 히 심해 다. 1960년의 경우에는 세 도 문제가 었지만, 체들이 요구하는 세 (강제로 는 같은 것들)이 상당한 정도에 달했다. 자의 정에 의하면 세 의 13 정도에 달했다. 국가 식기구들은 재정이 없어서 무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도, 관변 국민운동 체들과 정치조 들은 주민들에게 을 강요하고 사적인 폭력을 일상적으로 사하였으 로, 주민들의 일상 적인 저항의식은 양되고 있었다. 1960년 3.15 의거는 투표권의 부정, 그리고 폭압적 인 시위 저지, 4월 11일에 발 된 주 의 한 주 의 모습은 바로 주민들에게 변 방성을 상 적으로 러내 주었고, 이에 대해 강력한 저항 동이 발 되는 계기를 만 들어 것이다. 199년 10월에는 경 대의 대학 승 이 패하게 된다. 이에 대 한 학생들의 불만은 박 규(전 경호 장, 당시 화당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인 위 세를 고려하여 더 지게 되었다. 여기에 오랜 기간동 유신에 저항하지 못하고, 명치는 않치만 당시의 학생들은 유신 찬양데모를 했다는 자괴심이 상당한 정도에 달 하고 있었다. 이는 1960년의 대구 시위, 199년의 부산 시위에 의해 변방성의 등감 이 더 고양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의 여지는 있지만, 제 당시 항쟁 가자 들에 대한 관 에서 명 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시 신민당 재에 대한 중 지 역에서의 대우 문제였다. “당시 신민당 재는 부산과 마산시민들에 있어서 정 치적 압제와 경제적 을 극복할 수 있었던 회 의 상 이었다. 에 대한 정권 적 차원에서의 압은 부산과 마산시민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굴 이었고, 를 일으

키게 하는 요인이었다. 유신체제가 지 고 있었던 체제적 비정당성에 대한 민중의 적된 , 부산과 마산지역의 경제적 악에 대한 민중의 한 고 이 재에 대한 제명사 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 압은 불에 기 을 는 역할을 하였다 고 하겠다”(정경환, 2000 10). 은 지역에서 서울로 보 지역의 상 적 대표자였다. 라서 에 대해서 경 이 신민당사에서 보여 모 과 언사들, 그리고 국회에서의 제명은 중 정부가 부산과 마산 시민들에게 가하는 억압으로 해 되었다. 이는 항쟁지도부는 명 하게 거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시위 가자들이나 잠재적인 가자 가 자들에게는 쉽게 전 수있는 심정적 동조현상을 일으 다. 심정적 동조라는 것은 시위 가에 대한 리적인 명을 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잠재적인 억압이 현재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을 발시 수 있는 동의 상 적인 사 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경제적인 과 감시와 억압의 상 을 수 없게 만 사 이 바로 에 가한 폭력, 재가 과 원에서의 패 , 국회제명으로 적적이고 점 적으로 상 적인 억압이 지역민들을 결 시키고 도 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역 동체가 유지 수 없는 상 에 까지 이 른 것으로 된 것이다.

5. 국가의 통치능력

1) 1946년

해방이후 마산의 현대사에서 요과 폭동, 아 면 민중들이 항쟁에 나서서 국가와 한 사 인 10월 봉기는 국가 성과정에서 나타 민중들과 군정당국간의 이 었다. 군은 일제국가 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고, 여기에 식민지당국에서 동한 폭압기구의 인사들을 기 하였다. 군 40사 이 경 을 지 했고, 하리 사 장이 경 지사의 역할을 하였으 , 지역의 군수와 시장에는 일제시대 관 들을 대부 명 하였고, 원군수에는 일제시대 해군수가 명되었다. 마산을 대표하는 군정의 자문회의에는 명도 이 다. 당시에는 이 1945년 10월경부 우 인사들은 로

조 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들의 명 은 아있고, 이들은 나중에 마산시장 등의 중
 요보 을 은 사 들이 다. 신 방 에 무한 사 의 구술 에 면, 신 방
 은 산호리에 1만여 의 규모로 200여 명이 무하고 있었는데 이 자치관리 조
 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를 리치고 균정에 로 관리인을 은 것으로 되어 있
 다.

원 중 은 1949년 (아 면 1948년 말)에 마산에서 된 16연대 부연대장으로
 등장한 사 이다. 원은 1949년 부 시작된 반민 위자에 해당하는 사
 이다. 일본군으로 무한 사 으로 정된다. 그는 마산중학교(현재 마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기관 을 차의 호위를 으 , 나타나, “반민 위에서 나를 으러
 오면, 권 으러 아 이겠다”고 말하던 사 이다. 반민 위는 1949년 5월 2 일에
 반민 위 지 조사관이 해에서 일제시에 “다년간 고등 사로서 동 을 울리고
 은 로 극 을 감 했던” 오 수를 채 하고, 29일에는 마산 신으로 일제시에 사
 사로 재 하고, 후에는 일경관과 내 하여 부민을 밀고한 장자관의 해자
 언을 들었다고 되어 있다. 라서 반민 위 동이 본 화되면 1949년 상반기에
 원은 체 를 두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 1949년 하반기에 어들
 면 이 반민 위는 지부지해지기 시작한다.

주민들은 하부 상호 감시조 으로서 민보 이 1948년 12월에 결성된다. 식적으
 로 국사 에는 1948년 5월 선거를 두고 보 이 되고, 민보 은 1950년에
 되었다고 되어있는 신문 기사에는 마산에 민보 이 1948년에 된 것으로 나와서
 이것이 을 것으로 본다. 정당이나 정치 하부 조 에도 대한 년 이 1948
 년 말에 세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국민운동조 또는 정권의 전위조 으
 로서 정과 사 을 어서는 동을 하는 조 이다. 1949년 12월 12일에 나 기사
 는 대한 년 원군 대신면 장에 대한 것인데, 주로 주민 , 히 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를 는다거나 박하여 보리, 현 , 나 등을 는
 방 으로 를 일 고, 또한 년 의 운 비명목, 구전 명목으로도 하고, 정

부를 대신하여 나 어주는 세 민을 위한 구호 도 한다. 현 만 대강 계산하여 도 10 월간 540여만 원을 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1948년에 대 월급이 5만 원이었던 상 , 그리고 한마리가 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면, 80여 마리의 를 한 것과 같은 것이다. 당시의 년 장의 위세를 수 있다.

194 년 당시의 마산의 정치적인 성 에 대한 자 로서는 국의 민간정보 자 가 있다(제 5차 주한 군 민간정보 답사 보고서, 194 . 11. 1 서울 비밀문서 . 149 국무부로 보 문서, 194 . 10. 12-16일에 마산지역을 조사한 것). 이에 면 마산 은 정치적으로는 우 이 지 하고 있으나, 의 력이 강하게 작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 우 이 지 하고 있습 다. 그러나 비 지도자가 지하로 잠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 력이 강하다는 한 거가 보 다... 문자 해독 , 마을의 라 오 구 에 대한 의사, 주요관심사, 군 주 에 대한 도, 지방정부에 대한 만 도, 지 혁에 대한 도, 일본인의 지에 대한 , ..” (사회연구, 1990. 월 4 12 -158). 당시의 마산상 은 으로 러 나 이 반 을 중심으로 한 이 대결을 부 겨서, 민중들의 원과는 상치되는 상 에 서 발생한 것으로 해 된다.

2) 1960년

당시에 지 이 사 한 억압기제들은 경 과 군을 동원한 무력, 식적인 무력은 아 지만 사적인 폭력 조 인 반 년 , 그리고 반조 까지 가 자유당 조 , 그 리고 상적인 관 조 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1960년 마산 의거와 같은 사 를 사전 에 예 한 사 은 없었다. 이러한 상 은 당시 지 당국에서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 다. “그래서 비교적 학생들의 동요가 적었고, 그 데모도 본도 내에서는 끝끝내 없었습 다. 다만 려한 것은 본도에 만약에 그 일이 생긴다고 할 것같으면 부산시내에 수도 다음에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시내에서 무 데모가 있지 않을까 이 우려를 했습 다”(신도성, 경 지사, 1960, 국회마산사 조사위원회 언, 3월 24일).

그러나 시위 여자들은 잠재된 불만을 서로간에 유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발상만 전 되면 언제 지 표면화 가 성을 지 고 있었음을 보여 다. 이러한 양상, 내연되고 있는 불만을 가 마산주민들의 예 치 못한 한 항쟁은 결국, 이 환(1999 186)에 의해, "학생들이 발한 운동에 산발적으로 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규정된다.

정부로서는 지나치게 마산이 조 했던 점이 마산을 비교적 히 다루게되는 면을 보여 다. 마산에는 200여 경 과 39사 군대 력이 있으나, 마산의 요보다는 다른 지역의 요를 오히려 정하고 있었다. 권 기자의 3월 15일 시위에 대한 서술은 시위대보다는 경 의 세가 더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경 의 시간은 경 국의 발표나 당시의 현장에 있었던 권 기자의 언이 더 정 할 것으로 된다. 이 점에서 본다면 무학국민학교 의 시위대에 대한 은 중조(1992)나 (1964)이 서술한 것보다 더 적인 경 의 대 자세에서 이루어 졌다고 가 된다. 3월 16일부 는 경 은 가로 보급된 장비와 기와 을 무기로 하여, 거리에서 불 적으로 인들을 상대로 작전을 다. "무학 국민학교 자산동 로타리의 후의 보루선을 무 경 기동대는 구마산에 했다. 찢차에 기관 을 장 치하여 구마산 동 거리에 결하고 있는 시민과 하여 가하는 시민들을 하여 하기 시작했다.... 제복의 반 년 도 을 고 달아나는 시민들을 학 살했다.... 에 은 데모 시민까지 하여 거해 으 , 에서 유 에 맞아 러 자가 속 했다"(, 1964 259). 3월 15일 마산의거 이후에 자 된 고문과 살 상은 마산시민들을 시 으 , 마산 기동의거는 3월 15일 당일의 부상과 3월 15일 이후 4월 11일 기동의거사이에 경 이 의자를 거하면서 한 신체적 고문에서 비 된 것이다. 부정 하기는 하지만 부상자 125명중 적어도 9명(63.2)이 이 기간에 발생한 부상자라는 기 은 당시 경 의 폭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의 언 도 이를 한다. " 를 지었 지었 이 맞았지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3월 16일 아 에 자기 자식을 찾은 어 , 43세, 자유당, 회의 언, 1960, 국회 마산사 조사위원회, 3월 26일). "시간은 러 12시 사이 이 을 다(

지를 리는 신호이다). 아마 내가 시 으로 려 지 두시간 정도 지 모양이다. 나 려 무고한 시민이 150명은 되어 보인다. 살기와 가 감도는 시 내에는 찬 을 은 긴장된 위기 속에서 잔인무도한 살인경관 들의 만 은 그치 질 않는다. 그 말로 인간 도살장이다”(무신, 1960 1996 63).

당시 관 조 의 성 에 대해서는 4월 혁명 후에 나타 지역 무원조 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 움 을 해 수 있다. 4월 26일의 시위를 당해서 마산시의 대 부 무원들은 신하였다. 또한 중 국가가 무 후에 , 마산시의 회원동에서 주민들이 무원들을 하려는 움 이 있어났다. 1960년 4월 29일(마산일보, 1960. 4. 30일자) 오전 회원동 일대에는 상당수의 된 라가 려졌는데, 그 내 은 3.15 선거당시 주민들의 주권을 약 해 간 민주반역자를 규 한 것으로부 시작 하여, 민주반역자로 10여 명의 동 원으로 변모 동장, 문모 서기, 모 사무장 모 등등을 거 하였다. 1959년 5월 6일 - 8일 사이의 62회 마산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 원들이 로 명된 13 동장이 자유당계라고 하여 민주당 속의원들이 한 사 이 있었다. 라서 동장 명 은 이 자유당의 권력하수인적인 성 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혁명 후의 정 마산시 부시장의 시장 무대리 기간에 이 상당수의 동장이 사표를 제 하였고 사표를 수리하였다. 1960년 6월 29일 마산시의회 6차 본회의에서 정 마산시장 무대리가 답변한 바에 면, 동장 9명이 사표를 제 하였고 이 중 6명은 이 사 하였다고 한다. 신 시장이 한 후인 월 9일 4회 마산 시의회에서 고또수 의원은 동인사의 신을 주장하면서 조속한 동장 인사조치를 구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재정의 60 는 국 원조에 의존하였으 , 195 년부 국 무상원조가 유 상 차관으로 바 고 있었다. 1959년 12월부 마산시 무원의 급여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고 있었으 , 반면 자유당의 선거자 의 로 무원들에게 자 이 지원되고 있었다. 당시 지방자치 예산은 마산시와 동사무 위로 성되어 운 되고 있었다. 동사무 와 마산시가 세 을 거두고, 중 에서 보 무 고, 모 선면 차 에 의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산시와 동사무는 적자재정 속에서, 말 주민들 제하기 위한 방(지 의 반에 해당된다) 조 비, 시국 대 비는 시와 동 예산에 과다하게 성되었다가, 히 1960년에 1959년에 비해 5 가 늘어나고, 그 결국 4월 혁명 이 후에 다시 어 다.

1956년도에 자유당 마산시 당부에는 3만 2 명의 당원이 있다고 기 되어 있다. 당 시 마산인구가 13만 명 정도라고 할 때 인구의 25 정도가 당원이 , 아마도 성인인구 만 가정한다면 마산 성인인구의 40-50 가 자유당 당원이라고 등 되어 있음을 수 있다. 1960년 월동에서 이루어 선거대 기구를 예로 들면, 3,514명의 투표인을 대 상으로 자유당은 회간부 2인, 중 정치 원생 5명의 명 , 동대 위 부장과 차장 4명 명 이 되어 있다. 이들 관변 체와 자유당 조 의 속성상 부 자 가 을 것으로 작되기는 하지만, 아무 자유당의 주장이 사 이라면 대한 조 이 서로 켜 주민들의 사 상 어 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960년 마산의거가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유당조 의 약화와 민주당내 조 등이 의거를 부 을 것이라는 지적을 한다. 마산의 경우, 민주당인사의 자유당 위원장 명에서 자유당 조 이 가동되지 않았고, 라서 경 이 부정선거를 주도하였 거나, 다른 조 에 의해 주도 으로 무리한 상 이 발생했을 가 성은 다. 또한 민 주당의 대 도 구 와 신 의 경쟁 속에서 아 면 신 의 강력한 결력에 어 수가 강력한 력을 발 하여 대 해 나 을 것으로도 보인다.

3) 1979년

마산의 저항의 역사성을 간과하고 있는 국가는 항상 지역민들이 역사의식에 대해 감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라서 1960년의 경우에도 부산을 위 하고 여기고 국 가 폭압 력을 이곳에 중하고 있었고, 19 9년에도 시위가 없었던 마산의 잠재적 력을 간과하고 있었다. 1960년에는 당시의 경 도지사가 술하 이 부산을 요가

지역으로 주목하고 있었고, 1999년에는 다른 대도시 지역을 요가 지역으로 여겨서, 여기에 경과 정보 인력을 중시하였던 것으로 해된다. 대서울지역의 요발발가성이 10월 15일에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마산의 경우에는 유신체제 이후에 거의 요가 없었고, 심지어는 인되지는 않았지만, 경대학생들은 요로 유신체제 찬성데모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자괴감을 이고 있었다. 경의 상시적인 정보사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히 감시 수을 인 수 은 아 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서 경 의 자 에 면, 학내 감시, 사복사의 잠, 학교 에서의 사 에 의한 동 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에도 불구하고, 기 요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고, 시위가 발생하자, 인 의 경 들을 동원하였고, 이어서 16일 에는 39사 력과 경 기동대의 동원, 급기 는 부산에 되었던 해 대와 전사가 치되는 상 까지가게 된다. 라서 적어도 1999년의 경우에 마산에서는 기발생을 예 하지 못했고, 또한 요도 시민들이 대규모 세하는 폭력시위로 나아 것은 사전에 지 못했음은 명하다.

6. 저항의 역사적 상징과 전통

사회적 관계에서 면 성, 상호의존성(상호 기대)이 도 적 유대감을 발 시 다면 또한 지역의 저항과 국가로부 해를 은 것에 대한 역사적 전 은 적으로 사 에 대한 재해 을 가 하게 한다. 인적 차원이 아닌 지역수 의 적 사 들 은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 들에 대해 생존인 들로부 의 구전, 장 의 기 , 장 에 대한 기억들로부 국가의 폭압의 속성, 폭압에 대한 대 으로서의 민중조 방식, 지리적 상 성에 대한 기억을 전수 고 재해 하고 구전된다. 마산의 경우에는 한 으 로운 성원들의 이 으로 말 암아, 적 기억의 전수가 어 지 않았는가 라고 생 되지만, 다른 한 , 한국전쟁기의 내부 상호 적대감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 하고, 또한 에 대한 감이 적었으 로, 국가에 대한 비 에 상대적으로 자유로 다. 한국전쟁기의 국가폭력으로부터 의 해, 조봉암의 가 해사 인 점, 급 한

이 가로 인한 주, 식, 업, 일본과 한 등 비교적 대적인 사회환경을 경험한 이들에 의한 사회비의식의 유되었다. 이러한 이질적인 인자들의 유은 기존의 적 기억을 재해하게 한다. 상대적으로 1960년의 시위에서는 지역성에 관련된 비이적였기는 하지만, 이승만에 대한 비은 상대적으로 성했다고 수 있다. 저항의 전(, 1998)이라는 표현이나, 제도화된 저항성(, 1998)이라는 표현에는 저항의 조에도 저항의 하우가 전수되어 내려오는 수의 인사들이 존재해 하는 조이 있다. 이점에서도 마산에는 대적인 교을은 일본에서의 환민들이 정하고 있었으며, 마산 자체도 일제에 의해 대도시로 발달되었으며, 히 일본 군의 군사항구로서 기하고 있었다. 간이 가지고 있는 상성도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1996-9년에 발생한 오그라의 시위에 대한 연구에서 러나고 있다. 오그라에서는 도시에서 시민들이 는 것, 그리고 도시와 의 정치적 이 심한 점을 상 적으로 이 한 것으로 수 있다. 정호기의 문에서도 광주의 예를 들면서 전 적으로 로와 장로가 기억되고 상 되는 권력의 중심성이 보여지고 있었다. 마산의 경우에는 구마산이 생 세계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신마산이 권력 기구의 장 로서의 의 가 강하였다. 그 경계 지점에 3.15 의 거 이 존재하여, 상 적으로 시민들과 권력 세계와의 경계선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 다. 3.15 의 거 은 경계선의 의 와 동시에 민중 저항의 상 으로 여겨지고, 교 의 요 지에 위치 으로 일상적으로 시민들은 이를 가시적으로 목 하고, 이러한 상 을 체화시 다고 해 된다.

1999년의 경우에는 시내의 장 로 3.15 의 거 이 선정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시위에 가한 사 들이나, 가를 요 은 사 들이나, 아 시위를 압할 을 경 의 경우에도 당연한 것으로 아들였다. 마산의 시위는 3.15 의 거 이 당연하게 권력과 시위군중들의 대치점으로 당연하게 정된다. 이는 구마산(자는 원마산이라고 한다)은 시민들의 생 간, 상가와 유 가, 사회적 동의 중심지인데 반하여, 3.15의 거 을 경계로 하여 그어지는 신마산은 경 서, 시, 원, , 세 무서, 방서, 도 원, 신문사 지사 등, 국가기관들이 밀 되어 있는 장 이다. 라

서 구마산에 모여서 신마산으로 하게 위해서는 3.15의거 이 하나의 경계선의 역할을 당한다. 3.15 의거 이 없었던 1960년에도 그러하였고, 1999년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3.15의거 부 에서 항상 치 한 방전이 어지게 된다. 국가 권력은 경계지점을 어서면 권력이 위 는 것으로 여겨졌고, 시위대는 항상 이 경계선을 어 저항에 권력에 위 을 것으로 가된다. 구마산모여 히 시위를 하는 것은 일상적 생 간에 러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적인 역에 하고, 간 하고, 저항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3.15의거 은 지역의 교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오고 가는 인들이 항상, 암 적으로 경계지점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시위의 장 와 저항 대상의 목표 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성된 사 에 대한 상 에 모이게 된다. 시민들은 시위가 발생하면, 1999년의 경우에는 당연히 3.15의거 주위에 모이는 것으로 저항을 시작한다. 이러한 장 에 하기는 쉽지 않다. 하면 된 거리 에 위치해 있고, 서 지적했다시 구마산과 신마산의 경계지점에 위치해 있으 로, 이 곳은 국가의 권력으로서도 경계선이 되 로, 음 부 이곳을 수 없기 때문이다. 3.15 의거 이 기면, 바로, 시 , 세무서, 원과 , 경 서로 하 로, 3.15 의거 은 적 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본다면 경계선인 이다. 그러나 1960년 3.15의거 후에는 3.15 의거 이 시민들의 의 식 속에는 저항의 상 으로 바 었으 로, 이곳에서 모인다는 암 적인 의가 되어 있는 이다. 저항의 목표는 시기마다 달 으나, 대 는 생 간 속에 있는 국회의원 들의 , 권 정당의 당사, 생 간 속의 가 일차적인 습 대상으로 선정되고, 이차적으로 신마산의 간으로 이동한다. 후의 저항선은 항상 시 과 경 서 방 에서 성되기 마 이다. 일 이곳까지 하면, 저항은 상당정도의 과를 보여 주었다고 여겨지지만, 그래도 시 과 경 서에 대한 의 치 성 여부가 저항의 강 도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7. 토론

한국의 민주화라는 과정에는 지역 시민들에 의한 민주화에 대한 신이 작 하였다. 지, 아 시민 은 지역에서 생성된다는 점을 감 한다면, 지역의 민주화운동들 을 하여 대한민국 민 국가 동체의 민주화가 달성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언술이 다. 그러나 지역들은 다른 인구구성, 도 성, 역사성, 그리고 지 와 억압의 면 에서 보면, 차 적인 요 를 지 고 있다. 이러한 차 적인 요 가 지역마다의 독 한 민주화 운동을 았다고 해 할 수 있다. 지역은 다른 지역의 운동의 을 으, 때로는 경쟁적으로 운동을 치게 된다. 인 지역은 하나의 동의 거를 이루면서 상승적 또는 억압적 력을 치게 된다. 상승과 억압의 방 성 역시 지역 의 오랜 역사적 전 에 거할 것이다. 라서 인구 구성면에서 기 민의 점유, 신규 이 인구에 의한 방적 사고와 로운 동체적 관계의 유, 도 성이 고양 수 있 는 사회적 조 들과 역사성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하였다. 아울러 국가의 지 력 과 억압 력도 중요 을 강조하였다. 아무 이 회를 하여 대한민국의 역사가 중 이라는 큰 무대에서 이루어 것이 아 라, 질적이지 않은 다양한 무대의 연속 적이고 다른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발 할 수 있었다.

작 의 상 을 두에 다면,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가 성은 관적으로 상호의존 성이 강한 지역의 존재, 이들간의 적인 경쟁을 상호 생의 관계로 바 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 것이다. 그 지 않으면, 지역의 민주화 운동의 전이성이 약화되어 국가의 억압성이 강해지고, 민주화의 수 은 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자 적인 조 들의 밀도가 아지고, 이들간의 사회적 가 강해 서, 중간수 의 동원 잠재성을 이는 것이 중요한 요 가 된다. 대한 민국이 하나의 역사적 운명 동 체라는 점이 계속 체 할 수 있는 역사적 해 과 아울러 의례를 해서 동의 민주화 상 을 조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적인 보다는 지역간의 이 가 한 조 은 지 와 억압의 속성을 간 하고 이에 동조하여 억압의 로감에 리지 않고, 신 와 동시에 지역의 민주세력들이 적으로 대 하는 세를 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문헌〉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50
by Bruce Cummi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 한국의 민주화에서 지역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라는 질문은 부마항쟁이나 광주항쟁의 경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비교적 쉽게 하는 것이지만, 학술적 영역에서는 별로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에 속한다. 한국의 정치사회구조에서 중앙과 지방, 또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원적 구성, 그리고 양자 사이의 장이나 차를 학문적 의제로 논다는 것은, 중앙 중심성을 국제경쟁력이라는 이유로 당연시하는 관행에서는 벗어나고,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동이나 의의를 본적으로 성취할 때만 가능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 문제는 지역감정 또는 지역주의라는 화두를 제기한다면, 주로 산업이나 경제적 면에서의 지역발전의 문제로 제기되지만, 정치사회적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이상에서 이은 교수의 문제제기는 이미 부마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하기 위한 의례적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미 해명되지 않은 문제의 재발이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두 세계 사이의 장을 넘어서고, 점점 가는 지역적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은 교수는 그의 발표에서 주로 마산지역에 초점을 두고, 1946년, 1960년, 1979년, 198년의 시위와 운동을 다루고 있다. 나는 이은 교수가 제기한 한국의 민주화에서 지역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지역에서 발생한 시민저항은 어떤 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과 해방이후 현재까지 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나 민주화운동을 어떤 계기로 가해하는가, 그것의 산출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약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정확하게 말한다면, 민주화는 운동정치와 선거정치의 복원에 의한 것이므로, 이 두 가지 장에서의 지방의 역

할은 국면마다 다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46년의 문제는 대구에서 시작된 (히 폭동이라고 불던) 민중적 저항의 전국적 산의 을 하는 것이어서 이 의 문제제기에서는 생 하는 것이 간결하다고 본다.

3. 1960년대 이후 한국이 경 한 압 적 대화과정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관계는 중요하게 다루어 할 주제이다. 그러나 이 주제는 전국적 수 에서는 자주 제기되나 지역적 수 에서는 로 구되지 않았다. 일 , 지역사회연구에서 지역의 민주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더 명 하게 구 필요가 있다. 아울러 1960년이나 1999년의 상 에서 “산업화정도는 민주화 요구와 유의 한 관계”라는 명제는 더 세심하게 되어 할 것이라고 생 한다. 1999-80년의 지역사회에서의 시민적 대중적 저항을 명할 때, 산업화정도를 중요한 독 변수로 한다면, 업화가 전되지 않은 지역, 동 약적 산업화가 이루어 지역, 자본 약 적 업화가 이루어 지역이라는 유 구 과 상대적으로 업화가 이 이루어 지역과 그 지 않은 지역이라는 구 (상대적 박 감의 존재)사이에 어 것이 더 유 한가는 로운 질문이다.

이은 교수는 부마항쟁 당시에 부산에서 시작된 반정부시위가 마산이라는 지역에 무 게 되었는데를 명하기 위해서 교 과 구조, 사회관계적 , 그리고 역사적 경 이나 상 의 유를 하였다. 마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시위의 요인을, 산업화 요인으로 명하기 위해서는 1999년의 시점에서 업화의 신 도시들이었던 항이나 울산과의 비교연구가 유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계급)변수와 정치적 변수 중 어 것이 더 유 한 것인가를 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4. 이은 교수는 이 발표에서, 한국의 “ 지역은 국가의 압과 저항의 력의 면에서 다른 환경에 여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만,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이고, 조 의 밀도와 로운 사상의 유 , 역사적 경, 그리고 국가 치 력이 치는 정도에 있어서 매우 이질적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 히 매우 이질적인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한국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동질적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 더구나 본격적인 산업화정 이 되기 이전인 1960년에는 더 그 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 할지도 모른다.

오늘 한국사회가 관적인 상 에서 “지역간 상호 의존성은 점차 아지지만, 또한 상대적으로 차 과 적대전 도 동시에 되고 있어서 지역간 연대의 가 성은 매우 유동적”이, “한 계 더 은 지역간 연대는, 사회관계, 상 의 유가 동시에 존재할 때 가 ”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히 한국의 정치문화에서는 상 의 유가 중요한 것으로 생 된다. 2000년에 나는 광주항쟁 20주년 기 학술회 의에서 “부산, 제주, 광주의 역사적 연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 또한 상 의 유를 강조한 것이,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이를 어서는 차원의 쟁점들 에 대한 전 을 고려한 것이었다.

5. 정치권력 또는 정권의 장에서 보면, 한국의 민주화과정에서 그들이 부 던 수 은 시민적 저항중에서 그것이 발생한 지역(지방)에 라 정치적 부 이 제로 달 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할만한 거자 는 하지 않고, 또 지방 의 대중적 저항운동과 수도권 의 대중적 저항운동간의 관계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문제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저항과 지방에서 발생한 저항의 정치적 (또는 과)의 차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적 자 가 무 이, 그것을 어 게 보해 하는가는 한국사회의 정치변동에 관한 시적(구체적) 연구에서 해결해 할 중요한 과제이다. 부산-마산이 움 이면 정권이 바 다는 지역적 신 구조는 1960 년과 19 9년의 경 에서 (1980년의 광주의 경 과 대비되어) 만들어 것이지만, 이는 히 해명되지 은 질문에 속한다.